

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第24回 國際學術심포지엄

요 지 집

近代期 日本의 弘報文化政策과 朝鮮·臺灣의 文學

日時：2009年 9月 25日(金) 13:00 - 17:30
場所：檀國大學校 석주선 記念博物館 컨벤션홀
主催：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Dankook University

第24回 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國際學術심포지엄

〈近代期 日本의 弘報文化政策과 朝鮮·臺灣의 文學〉

日時: 2009年 9月 25日 (金) 13 : 00 - 17 : 30

場所: 檀國大學校 석주선 記念博物館 컨벤션홀

主催: 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초대의 말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는 길목에 가내 두루 평안하시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는 오는 9월 25일(금)에 제 24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단국대학교 석주선 記念博物館 컨벤션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제 24회 국내학술심포지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의 대표적 연구자들께서 〈近代期 日本의 弘報文化政策과 朝鮮·臺灣의 文學〉이라는 기획 테마를 가지고 평소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9월

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所長 鄭 澐

檀 國 大 學 校 日 本 研 究 所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Dankook University

■ ■ 제 24회 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國際學術심포지엄 ■ ■

司會 : 韓京子(檀國大 日本研究所 研究教授)

13:00~13:20 接受 및 登錄

13:20~13:30 開會辭 (鄭滌 檀國大 日本研究所長)

◆ 企劃主題: 〈近代期 日本의 弘報文化政策과 朝鮮 · 臺灣의 文學〉

第 1部

13:30~14:10 경성과 동경의 「카페」 문화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 2
 京城と東京の「カフェー」文化に対する比較研究
 - 禹政權 (단국대 교수)

指定討論 - 裴開花 (단국대 교수) 23

14:10~14:50 진화천의 「道」와 잡지 『문예대만』을 중심으로 25
 陳火泉の「道」と雑誌『文芸台湾』をめぐって
 - 廖秀娟(臺灣元智大 教授)

指定討論 - 徐東周(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원) 39

14:50~15:10 休息

第 2部

司會:趙惠淑(檀國大 日本研究所 研究員)

15:10~15:50 제국일본의 「문화외교」에 관한 소고 44
 帝国日本の「文化外交」に関する小考
 - 金弼東 (세명대 교수)

指定討論 - 南相虎 (경기대 교수) 68

15:50~16:30 제국일본의 대외선전활동과 식민지조선 70
 - 「Carnegie재단주최동양시찰미국기자단」을 중심으로
 帝国日本の対外宣伝活動と植民地朝鮮
 - 「Carnegie財団主催東洋視察米国記者団」をめぐって
 - 小林聰明 (大阪市立大 研究員)

指定討論 - 李利範 (강릉대 교수) 107

16:30~17:30 종합토론 111
 司會 - 李相薰(한국외대 교수)

討論 - 鄭滌, 金弼東, 小林聰明, 禹政權, 廖秀娟
 南相虎, 李利範, 裴開花, 徐東周

· Reception

경성과 동경의 「카페」 문화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

京城と東京の「カフェ」文化に対する比較研究

- 禹政權 (단국대 교수)

指定討論 - 裊開花 (단국대 교수)

프 로 필

우정권(禹政權, Woo Jeong-Gueon)

단국대학교 교수 한국문학

■ 주요저서 및 논문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공저, 2005

「조명희의 연해주에서의 문학활동에 관한 연구」 「우리말글」 2005. 4

「1970년대 농촌과 환경의 문제」 「문학과 환경」 2006. 6

「경성의 모더니즘 문학에 나타난 동경체험에 관한 연구」 「일본학연구」 2009. 1 외 다수

경성과 동경의 '카페' 문화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

우 정 권(교수, 미디어아트및스토리텔링연구센터장)

1. 경성과 동경의 카페 문화 생성

동경에 1920년대부터 생겨난 카페가 모던한 도시의 밤문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불을 밝힌 동경의 카페는 진보조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

일본 최초의 카페라 할 수 있는 프렐탕(Printemps)은 마츠야마 쇼조(松山正造)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사람의 만남과 대화의 공간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 당시 예술가와 작가, 배우, 비평가, 정치가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술과 커피를 마시고, 서양 음식을 먹으면서 서구의 체험에 대한 향수를 느끼거나 색다른 경험에 흥미를 가졌다. 카페 라이온, 카페 파우리스타는 긴자 거리에 세워졌고, 평범한 사람들을 주요 고객으로 맞이하였다. 일본에서 카페(Cafe)는 “원래 커피점, 서양요리점, 낚다점 두 가지 뜻 외에도 바도 아마 포함될 것이다”¹⁾라고 한다. “카페는 원래 유럽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가게이지만, 가벼운 알코올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점차 경양식도 취급하게 되고, 레스토랑도 카페라고 부르게 된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카페는 주점, 바-와 동의어인 것 같다. 그렇다면 다이쇼 시대의 카페(かふえ)는 유럽적이고, 쇼와시대의 카페(かふえ)는 미국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

동경의 카페가 커피점과 구별되면서 술을 파는 가게로 변모하면서 조선의 경성에 들어올 때는 커피를 파는 낚다점과는 완전히 구별되었다. 동경의 카페가 처음 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과 사교의 공간이었는데 차츰 여급을 두고 술을 팔기 시작하면서 돈 많은 업자나 셀러리맨들이 주로 출입하는 유흥업소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동경의 카페는 19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까지 흘러오는 과정에서 다방과 분화되어 나갔는데, 이것이 조선 경성에 들어올 때는 처음부터 다방과 카페가 둘로 나뉘어 들어왔다.

조선의 경성에서는 남촌과 북촌에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1932년 5월 5일 『동아일보』에 난 「카페 경영망 북촌에 진출, 음식점수가 굉장히 늘어 작년보다 삼배격증」 기사를 보면, “종로서 관내의 음식점은 1931년 말에 280개소였다. 이것이 4개월이 지난 1932년 봄, 48개소가

1) 『モダン流行語辞典』(喜多壯一郎監修, 実業之日本社, 1933)

2) 鈴木貞美, 모던도시의 표현: 自己·幻想·女性, 白地社, p.54.

증가하여 총 328개소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현저한 증가를 보인 것은 카페로서 6개소에서 17개소가 되었고 카페와 비슷한 업소도 30여 개소가 증가하였다. 카페의 증가 요인은 일본인들이 북촌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1932년에는 17개소의 카페 중에 5개소를 뺀 12개소를 일본인이 운영한다.” 남촌에서 시작된 카페가 북촌에까지 진출하여 급속도로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30년대 경성의 유흥문화를 주도하였던 카페는 1910-20년대의 기생이 있는 요리집을 계승하였다. 비록 시작이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남촌에서 시작되었지만, 조선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북촌에까지 확대되면서 요리집의 영화(榮華)를 뛰어넘게 되었다.

초창기의 남촌과 북촌의 카페 모습은 사뭇 달랐다. 남촌의 카페는 대개 다다미방에 하얀 분을 바르고 기모노 복장을 한 여급들이 있고, 술은 주로 양주와 샷쵸르, 아사히 맥주가 잘 팔렸으며, 일본 가요와 재즈 등의 음악을 듣고 춤을 추었다. 그런데 북촌의 카페는 다다미방보다는 칸막이 사이로 의자와 테이블이 주로 있었고, 기모노 복장을 한 여급과 양장을 한 여급들이 같이 있었으며, 한국 가요와 재즈 등의 음악을 주로 들었다. 물론 손님도 남촌에는 일본사람들이 주를 이뤘고, 북촌에는 조선사람들이 주를 이뤘다. 남촌의 카페가 일본의 카페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띠었다면, 북촌의 카페는 옛날 요리집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 술과 음식이 모두 제공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이 둘의 구분은 모호해져갔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여급을 중심으로 한 퇴폐와 타락의 온상지로 전락하여 갔다.

2. 에로서비스를 제공한 여급

동경의 카페 여급들은 소규모의 요리집인 오텐집과는 달리 에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카페 정서라고 하는 것도, 지금에 와서는 과거의 물건에 지나지 않은군요, 저 문화 주택지의 집에서 위스키 따위를 마신다 해도 즐겁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자 종업원이 미인에 잔이라도 들려준다면, 일단, 서양 게이샤의 기분이 들겠지요, 이 여급을 그대로 두는건 세계에서 일본 밖에는 없겠죠.³⁾

게이샤와 같이 술을 마시려면 사전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돈도 많이 들었지만, 카페 여급을 통해 손쉽게 게이샤와 같은 기분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동경 카페 여급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가난한 농촌 지방 출신이 많았고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그것에 비해 경성 카페 여급들은 도시 출신이 많았고, 여배우 출신이거나 보통학교 이상의 졸업생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경성의 카페 문화가 동경과는 달리 도시 문화가 낳은 전형적인 모던한 유흥문화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예가 된다. 경성의 카페 여급들은 인텔리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도 하는 순정파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경성이나 동경의 여급들 모두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

3) 鈴木貞美, *モダン都市の表現：自己・幻想・女性*, 白地社, p.50.

계를 꾸려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주 수입원은 손님들로부터 받는 팁이 전부였다. 당시 동경 카페 여급들의 수입은 대략 중산층 수입 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하고, 경성 카페 여급들 대부분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배우 출신 여급이나 인기 있는 여급들은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는 그들의 수입원이 팁이라는 데 있다. 많은 손님들을 끌기 위해 카페 안에서 자극적이며 퇴폐적인 행동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밀매음을 하게 되었다. 경찰은 이곳을 집중 단속하여 카페에서 남녀가 에로틱한 장면을 연출하거나 춤을 추는 것을 엄금⁵⁾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매춘부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강요가 아닌 자의적 의사에 의해 매음을 하는 것이므로 요리집의 기생과는 달랐다.⁶⁾ 카페 여급의 매음 행위는 순전히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이뤄짐으로 인해 여성이 성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체성을 갖게 되었고,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근대기 사회 변화와 관계를 지으면서 여성의 주체성과 능동성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다.⁷⁾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들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좋지 못하다. 여급이 카페 생활을 하면서 벌은 돈을 집에서 무위도식하는 인텔리 유부남에게 모두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이 당시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였는데, 이 점은 이조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급들의 복장은 대개 기모노 복장을 하였지만 양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에이프런을 하였다.

카페의 여급의 모습은, 기모노의 위에 가슴부터 내려오는 에이프런을 걸치고, 매듭을 리본 같이 뒤에 묶었다. 흥록이라도 그렇게 했다. 꿈에 그린 듯한 카페의 여급의 운치가 남아 있습니다. 후지야이스의 웨이트리스는 모두 기모노를 입고 있다. 분명 자춧빛에 민무늬의 “울로 된 기모노는 그 시대에는 없었지만, 그런 느낌이었다.” Serge 같은 일식복장이 제복이었다. 웨이트리스라고 해도, 오오마사 시대의 카페의 여급 모습에서 나폴나폴 대는 에이프런을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1930년 정도에 끝난 것만은 아니겠지. 자춧빛 일식복장에, 십자모양으로 띠를 조이고, 종아리의 조금 위 부분까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 기모노가, 뭐라 할 것 없이 기본 복장이었다. 상련의 손님에게는 짧은 대화를 나누고, 절대로 지나치게 교태를 부리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친한 친구 같은 감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 커피와 와플과 어린이 프라이 따위를 날랐다.⁸⁾

경성 카페 여급들은 기모노와 양장을 같이 입었다. 남촌에 있는 카페 여급들이 주로 주로 기모노복을 입었다면, 북촌은 양장을 입은 여급들도 상당수 있었다.

4) 「풍기문란의大本영-「카페」를 집중단속-웨트레스 공포시대가 올 터」, 『동아일보』, 1929년 9월 29일 9면

5) 「「카페」에서 팬스를 嚴禁」, 『동아일보』, 1939년 4월 22일 4면

6) Silverberg, *The Modern Girl as Militant*, pp.256~257.

7) 대부분의 카페 여자종업원은 살아가기 위해 이 직업을 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의 관계에 대한 가능성과 문화적인 성의 실천 같은 것은 분명히 보였고 이것은 일본 근대기의 사회변화와 함께 나타났다(p.55)

8) 鈴木貞美, *モダン都市の表現：自己・幻想・女性*, 白地社, p.56.

3. 여급과 손님의 로맨스, 순애보와 자유연애

카페를 출입한 손님들은 주로 학생들이었고, 그 다음으로 셀러리맨, 지식인 문사, 영화업 종사자, 은행업자, 광산업자 등이었다. 카페에 가서 술 한 잔 으려면 10원 정도(현→지화페로 22여만원)들었는데, 웬만한 월급 갖고는 힘든 사항이었다. 돈이 없는 셀러리맨들은 동대문이나 경성 변두리에서 선술집이나 오텟집에서 술을 하였지만, 돈 많은 모던보이들은 일본인들이 주로 가는 남촌의 카페들을 출입하였다. 그러면서 카페 여급과의 연애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당대 잡지나 신문에서 다루는 카페 관련 기사에는 여급과 남성고객(학생, 셀러리맨, 지식인 문사 등)과의 연애 이야기들이 자주 소개되었으며, 박태원, 이효석, 안희남 등의 소설에서도 카페 안 연애이야기가 주된 제재로 등장한다.

카페 여급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회사원과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결국 회사원에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 파혼을 당하기도 한 사건이 벌어졌다.⁹⁾ 이와 같은 사건이 당시 경성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며, 그 속에서 당시 카페 여급이 유흥가의 술집 작부였지만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사랑에 대해 갈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하였는데, 그 남자가 결혼하여 주지 않자 비관하여 자살을 기도한 사건¹⁰⁾도 일어났다. 이 밖에 여러 기사에서 카페 여급들이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 한강 十三번지 「모던카페」 군자가 사랑의 실패로 인해 머리에 물들이는 약 '유리와' 를 마시고 자살을 기도¹¹⁾한 것부터 시작하여 신천지(新天地)의 여급 에리나(본명 김정숙(19))가 가정이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으나 결국 버림을 받아 자살을 도모¹²⁾한 것에 이르기 까지 실연과 자살은 긴밀한 상관성을 가졌다. 여급의 애정 상대자가 회사원, 학생, 유부남, 룸펜 등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을 당하기도 하였다.¹³⁾ 카페 여급의 낭만적이면서 아름다운 사랑은 당시 사회의 문화적 코드였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대정시대에 '자유연애', '직업부인' 등과 같은 모던한 사고방식이 생겨났다. 메이지 시대 기타무라 도코쿠(北村透谷)의 연애지상주의에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성관계도 노골적으로 묘사되었다. '자유연애'는 연애지상주의에 편승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상주의와 같은 금욕성은 없다. 대정 말기에는 <성애론>이 유행하고, <직업부인>이 주목받는 분위기 속에서 개방적인 연애 기분이 문화의 일부가 되어 젊은 남녀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자유연애'란 다이쇼 모더니즘을 배경으로 해서 해방된 남녀의 화

9) 「삼아사숙 오십전군과 부호양」, 동아일보 1929년 11월 19일, 4면

10) 「낙원회관」의 여급 이정옥이 자살을 기도하였다. 「百年芳盟水泡 情郎結婚하자飲毒-낙원회관 카페의 여급 紅燈의 불을 등지고」, 『동아일보』, 1934년 4월 15일, 석간 2면.

11) 「女給이飲毒」, 『동아일보』, 1934년 4월 8일 2면

12) 「自殺에도 競争」, 『동아일보』, 1933년 11월 14일, 2면.

13) 엔젤 카페의 여급 이성자가 어느 남자와 동거를 하였는데, 이 남자는 다른 여급과 바람을 피고 자신의 돈 천 여원 (현재 약 2천 3백여만원)도 소비하여 이성자가 자살을 기도하였다.

「사랑이 원수로 정산은 정수에 - 피쉬인 돈 천원만 날아가 카페에 피고인 흥련」, 『동아일보』, 1933년 7월 22일, 2면.

려한 연애를 말한다. 대다수의 여성은 자유연애를 동경했지만 엄격한 순결규범 속에서 순수한 애정으로 맺어진 상대와의 연애결혼을 꿈꾸는 게 고작이었다. 그렇지만 카페 여급에 대한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았다. 나가이 카푸(氷井荷風)의 『장마전후』에서 카페 여급 키미에는 성적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순결하고 정숙한 여자와는 거리가 멀다. 키미에는 시골에서 태어나 동경에 와 카페 여자종업원이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남자 손님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워 나갔다.

카페 여급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워 나가는 것이 강한 것은 동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경성에서는 그 보다 오히려 순정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여급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즉 경성의 여급들이 유부남이며 무위도식하는 인텔리 남성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였을 때 자살을 감행하곤 하는 것은 동경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4. 실화, 범죄와 사건의 온상지

일본 동경에서 카페는 각종 범죄의 온상지였다. 이점은 경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카페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자들이 늘어만 갔다. 돈이 없음에도 카페에 당당히 출입하여 결국은 카페에서 경찰서로 직행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시골에서 올라와 '킹홀' 카페에 유흥을 하다 돈이 모자라 무전취식하게 되어버린 상인¹⁴⁾, 공산당원이라고 주장하며 가짜 권총으로 카페 '엔젤'의 여급을 협박하여 무전취식한 청년¹⁵⁾, 돈 한푼 없이 카페에 들어와 30여원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한 두 청년¹⁶⁾, '평안' 카페에서 무전호유를 하던 손님이 여급에게 폭행까지 가한 사건¹⁷⁾ 등이 그러하다. 카페를 선술집 정도로 생각하고 카페를 처음 출입한 이들이 무전취식으로 종로서 보안계로 인치되었다. 선불금으로 낸 2원을 음식 값이라 여겼으나, 알고 보니 그것은 여급에게 주는 팁이었고, 나머지 음식회계값은 21원 70전은 따로 지불해야 했다. 결국 그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자연히 종로서로 향하게 되고 만 것이었다.¹⁸⁾

그 반면에 술값을 숙여 손님에게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곳도 있다. 3원 50전하는 매주주를 양주로 숙여 한 병에 25원을 받다가 달미를 잡힌 카페¹⁹⁾도 있었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가격을 손님에게 부당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폐해들이 늘어남으로 총독부 물가전문위원회에서는 술, 맥주의 공정가격을 검정하고²⁰⁾, 그에 따라 공정가격을 고시하여 실시²¹⁾하는 방침

14) 「갓 쓴 시골 商人 카페 出入 웬 말」, 『동아일보』, 1933년 12월 23일 2면

15) 「假拳 銃青年 女給脅迫取食 - 자기는 공산당원이라고 카페엔젤에 또 怪事」, 『동아일보』, 1934년 1월 8일 석간 2면

16) 「카페怪男兒 結局無錢取食」, 『동아일보』, 1934년 1월 31일 석간 2면

17) 「鑛業家逢變, 카페에서 무전호유」, 『동아일보』, 1939년 8월 8일 2면

18) 「카페에 出入타 逢變한 두 青年」, 『동아일보』, 1934년 1월 28일 2면

19) 「술 한 병에 二十五圓也 - 暴利의 先鋒隊 「카페-」와 「빠」 鍾路 「네운」 街의 異聞」, 『동아일보』, 1939년 10월 6일 석간 2면

20) 「料理 飲食店 「카페」 에 淸麥酒 價格을 公定 違反者를 經警이 嚴重團束 飲酒黨은 安心하라」, 『동아일보』, 1940년 5월 30일 2면

21) 「料理店 카페 一等의 酒 啤酒 價格決定 - 今日 物價委員會에서」, 『동아일보』, 1940년 6월 7일 2면

이 생기기도 하였다.

돈은 없고, 카페는 이용해야 하는 이 기괴한 현상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마련하여 카페로 향하는 이들이 늘어만 갔다. 카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일삼는 사람도 있었다. 16회에 걸쳐 외투와 축음기들을 절취하여 전당포에 맡긴 돈 540여원을 카페에서 호유한 사건²²⁾, 경성제대 복장을 한 가짜 대학생이 백화점에서 절취한 것으로 카페를 출입한 사건²³⁾, 성실하던 상점점원이 자신이 일하던 상점과 부근 상점에서 돈을 훔쳐 유흥하다 붙잡힌 청년²⁴⁾, 그리고 은행을 털어 카페 「국수」에서 유흥을 즐기기도망중인 사람²⁵⁾, 종로 우편소에 근무하던 사람이 공금 1200원을 횡령하여 카페에서 유흥을 하다 체포된 사건²⁶⁾ 등등이 그러하다.

술로 익어가는 카페 안에서는 유흥이라는 쾌락이 있는 반면에 폭행도 벌어졌다. 술에 취해 카페 여급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폭력단원들의 검거 소탕작전²⁷⁾, 술에 취해 여급을 폭행²⁸⁾하고, 여급을 폭행하던 손님을 말리려던 사람들이 칼에 찔리고 중상을 입는 사건²⁹⁾ 등이 있었다. 또한 말다툼으로 시작해 살인으로 끝난 사건도 있었다. 여급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를 칼로 찔러 즉사하게 만든 사건이 있어 가해자는 십년의 구형을 언도받은 사건³⁰⁾도 있었다. 술과 여급의 웃음으로 시작한 카페가 폭행과 살인의 범죄의 온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일본에서는 카페를 출입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모던보이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호경기 이후 등장한 모던문화에 대한 감각을 구비한 새로운 유형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모걸'과 같이 자유분방한 자유연애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직장인인 '하이칼라'나 멋쟁이 예술가인 '댄디'라 불리는 남성들이 서양풍의 풍속을 받아들이면서 카페를 출입하면서 각종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5. 결론

동경의 카페가 조선의 경성에 전해 오면서 그 양상은 조선적으로 변화하였다. 일본 너머에 유럽과 미국이 있는 것처럼 조선 경성에서의 카페 문화는 일본식과 서구식이 결합된 양상을 띠었다. 여급들의 복장이 기모노와 양장을 같이 병행되었고, 술이 양주와 일본 맥주

22) 「절도질하여 카페서 호유」, 『동아일보』, 1933년 3월 26일 석간 3면

23) 「假字大學生 「카페」에서 暴行」, 『동아일보』, 1935년 1월 23일 석간 2면

24) 「카페에서 醉한 술- 商店돈을 窃取하여갓고 豪遊 留置場에서 靛 靑年」, 『동아일보』, 1936년 6월 30일 2면

25) 「犯行後 七日 市内潛伏 菊水카페에서 豪遊 京城郵便局서 名古屋에 送金 各處에서 劇의場面 演出」, 『동아일보』, 1938년 2월 11일 2면

26) 「카페出入에 亡身한 靑年」, 『동아일보』, 1934년 2월 16일 석간 2면

27) 「권총등무기휴대 효두에 일대결전 - 카페 녀급새두고 완연한 전쟁 「에로」 「테로」 雙奏曲」, 『동아일보』, 1933년 3월 1일 석간 2면

28) 「「카페」에서 폭행 - 부내원동 금홍목」, 『동아일보』, 1934년 11월 29일 석간 2면

29) 「카페 殺人犯 殺人罪로 公判에 廻付」, 『동아일보』, 1935년 7월 10일 석간 2면

30) 「「카페」 살인사건 십년을 구형 - 공범인에게는 삼년의 징역, 재판장이 실지검증」, 『동아일보』, 1935년 10월 6일 2면

가 섞였으며, 노래가 서구식 재즈가 유행하였으며, 서구의 영화를 보면서 '몽파리' 패션이 유행한 것 등에서 그 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조선적인 전통 양식은 여급들의 사랑 방식에 나타났다. 순정적이며 순수한 사랑에 대한 갈구는 그들이 매음을 하였지만 성의 상품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준다. 더욱이 욕망을 해방구로서 카페를 이용하지 않은 점은 일본 여급들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여성의 성적 주체성이 강화되면서 육체적 사랑에 대한 터부가 사라지기 시작한 반면에 조선에서는 정조 관념이 여전히 유효하게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비록 매음을 하여도 정신적 사랑만은 지켜나가겠다는 여급들의 의지 속에 또 다른 형태의 정조 관념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사랑의 방식이 오늘날 드라마와 영화 속에도 나타나 순수한 사랑의 로망을 갈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한다. 이것이 일본에는 없는 한국만의 방식에 의한 사랑인 것이다. 이 문제는 본고의 논의를 벗어나기 때문에 차후에 매체를 통해 드러난 한국과 일본의 사랑 방식이라는 주제로 상론하기로 한다.

아무튼 경성과 동경의 카페에 대한 비교를 통해 유흥문화가 일본의 욕망을 분출하는 장소이면서 새로운 감성의 자극제가 되었고, 그 속에서 모던 문화의 다양한 형태를 받아들이고, 체험하면서 '감각적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요소로 작용 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

1. 일차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여성』, 『별건곤』, 『女聲』, 『女性』, 『조광』, 『東光』, 『만세보』, 『인문평론』, 『문장』, 『별건곤』, 『三千里』, 『新東亞』, 『新生活』, 『신민』, 『新女性』, 『朝光』, 『朝鮮之光』, 『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2. 이차 자료

1) 저서

강준만·오두진(2005),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인물과 사상사.

권보드래(2003),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권오만 외(2002), 『종로: 시간, 장소, 사람』, 서울학연구소.

김경일(2003a),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b), 『한국 사회사상사』, 나남출판.

_____(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김기호 외(2003), 『서울 남촌: 시간, 장소, 사람』, 서울학 연구소.

김미지(2005), 『누가 하이카라 여성을 데리고 사누- 여학생과 연애』, 살림.

김영모(1982)a, 『韓國社會階層研究』, 一潮閣.

_____(1982)b, 『일제하의 민족 생활사』, 현암사.

김주리(2005), 『모던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살림.

김진송(1999),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현대성의 형성』, 현실문화연구.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2001),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형성』, 아세아문화사.

_____ (2006), 『거울과 미로 : 풍속사』, 천년의 시작.

문옥표 외(2003), 『신여성- 한국과 일본의 근대여성상』, 서울: 청년사.

백지혜(2005), 『스위트 홈의 기원』, 살림.

손정목(1996a), 『일제강점기 도시 사회상 연구』, 일지사.

_____ (1996b),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 일지사.

소래섭(2005), 『에로 그로 년센스- 근대적 자국의 탄생』, 살림.

신기욱·마이클 로빈슨 편,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2006.

신명직(2003), 『모던뿐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여성사연구모임 길밖세상 편(2001),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염복규(2005),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살림.

우정권(2004), 『한국근대 고백소설의 형성과 서사양식』, 소명출판.

이경훈(2003), 『오빠의 탄생- 한국근대문학의 풍속사』, 2003.

이성욱(2004), 『한국근대문학과 도시문화』, 문화과학사.

이승원(2005), 『소리가 만들어낸 근대의 풍경』, 살림.

이진경(2005),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장규식(2004), 『서울, 공간으로 본 역사』, 해안.

장유정(2006), 『오빠는 풍각쟁이야-대중가요로 본 근대의 풍경』, 민음사.

조영복(1997),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조이담(2005),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바람구두.

천정환(2003), 『근대의 책읽기』, 푸른 역사.

최혜실(2000), 『신여성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태혜숙 외(2004),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한국여성연구원 편(2002),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한국현대문학학회(2003), 『한국문학과 풍속-1』, 국학자료원.

마이클 로빈슨(1990),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나남출판.

2> 논문

고석규(1997), “일제강점기 서울 중심부에 나타난 도시문화의 특성”, 『한국사학사연구』, 나남출판.

_____ (2004),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출판부.

구인모(2002) “무정과 우생학적 연애론”, 『비교문학』 28집.

김경수(2002), “염상섭의 초기 소설과 개성론과 연애론” 『어문학』 Vol. 77, 한국어문학회.

김동식(2001), “연애와 근대성-신소설과 계몽적 논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8호.

김미지(2001), 『1920-3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국문과 석사학위논문.

김연희(2002), 『일제하경성지역 카페의 도시문화적 성격』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김영근(2000), 「일제하 식민지적 근대성의 한 특징-경성에서의 도시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7집, 한국사회사학회.

김지영(2003), “자유연애의 이상과 식민지 근대의 현실-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 연구”, 『우리어문연구』 20호.

_____ (2004), 『근대문학 형성이 '연애' 표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박정애(1999), 「1910-1920년대 초반 여자일본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석사논문.

서정자(1987), 「일제강점기 한국여류소설 연구」, 숙대박사학위논문.

_____ (1988), 「나해석 연구」, 『문학과 인식』, 박문사.

서지영(2003a), “조선후기 중인층 풍류공간의 문화사적 의미-서구 유럽살롱과의 비교를 통하여” 『진단학보』 95호, 6월.

_____ (2003b), “식민지시대 카페여급 연구-여급잡지 <女聲>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학』 19권 3호, 한국여성학회.
 _____(2004), “식민지근대 유흥풍속과 여성
 섹슈얼리티-기생·카페여극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집, 한국사회사학회.
 손유경(2003), “1930년대 다방과 ‘문사’의 자의식”,
 『한국문학과 풍속-1』,
 한국현대문학회 편, 국학자료원.
 신영숙(1986), 「일제하 신여성의 연애, 결혼문제」,
 『한국학보』 45,
 _____(1989), 「일제하 한국여성사회사 연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논문.
 안숙원(2000), 「신여성과 에로스의 역전극-
 나혜석의 <현숙>과 김동인의
 <김연실 전>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3호, 한국여성문학회.
 안미영(2000),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극 고찰-
 이상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여
 성문학연구』 3호, 한국여성문학회.
 유선영(2000), “육체의 근대화: 할리우드 모더니티의 각인”,
 『문화과학』 24,
 이덕화(2000), “신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여성문학연구』 4호, 국여성문학회.
 이명선(2002), 『식민지 근대 ‘신여성’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
 -성별과 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논문.
 이배용(1999a), “일제하 여성의 전문직 진출과
 사회적 지위” 『국사관 논총』
 83집, 국사편찬위원회.
 _____(1999b), “개화기·일제시기 결혼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한국근현대사 연구』 10.
 이상진(1995), “신여자의 자각과 욕망”,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일사.
 이영자(1991), “자본주의와 성” 『여성연구』
 9권 2호, 한국여성개발원.
 _____(1999), “소비대중여성과 페미니즘”
 『성평등연구』 3집, 가톨릭대 성평등연구소.
 이태숙(2000), 『여성성의 근대적 경험양상
 -1920~30년대 문학을 중심으로』
 고려 대학교 국문과 박사논문.

이혜령(1999), “성적 욕망의 서사와 그 명암”,
 『반교어문연구』.
 이호숙(1995), “위악적 자기방어기제로서의 에로티즘”,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길사.
 정혜영(1999), “‘연애’의 동경과 좌절-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과 <마음이 열린 자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Vol. 11,
 한국현대소설학회.
 최혜실(1998), “경성의 도시화가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소설에 미친 영
 향” 『서울학 연구』 9호.
 한기형, “근대잡지 『新青年』과 경성청년구락부
 : 『신청년』 연구1”, <서지학보> 26호, 2002, 12
 한형구(2000),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계보
 소설을 통해 본 20세기 서울의
 삶의 역사와 그 공간지리의
 변모” 『서울학 연구』 14호.

[일본]

青木英夫·メイS青木(1975), 『目で見る女性
 ファッション史』, 衣生活研究会.
 青木英夫·メイS青木(1987), 『風俗史からみ
 た一九三〇年代』, 源流社.
 青木英夫(1981), 『風俗史からみた一九二〇年代』, 源流社.
 石角春之助(1935), 『銀座女譚』, 丸ノ内出版社.
 内田誠, 『喫茶卓』, 双雅房, 1936.
 海野弘(1985), 『モダンガールの肖像 : 1920年代
 を彩った女たち』, 文化出版局.
 大谷絹子(1930), 『女給日記』, 金星堂.
 柏木博(1998), 『ファッションの20世紀-都市·消費·性』,
 NHKBOOKS(日本放送出版協会).
 喜多壯一郎監修(1933), 『モダン流行語辞典』,
 実業之日本社.
 北山晴一(1991), 『おしゃれの社会史』, 朝日選書.
 コルデン・シェベラ(2000), 『ベルリンのカフェ-黄金の一九二〇年代』,
 和泉雅人·矢野久訳, 大修館書店.
 酒井真人(1930), 『東京盛り場風景』, 誠文堂.
 鈴木貞美(1992), 『モダン都市の表現-自己·幻
 想·女性』, 白地社.
 鈴木貞美編(1989), 『モダンガールの誘惑』,

- 平凡社.
高梨由太郎編(1934), 『喫茶店の新構成卷一』,
洋々社.
谷口政秀・小野磐彦(1931), 『婦人職業の実際』,
桃源社.
谷崎潤一郎(1925), 『痴人の愛』, 改造社.
仲村祥一編(1973), 『現代娯楽の構造』, 文和書
房.
ハインツ・クロイル著(1983), 平井正, 田辺秀樹訳,
『キャバレーの文化史
』, ありな書房.
初田享(1993), 『カフェーと喫茶店』, INAX出版.
林哲夫(2002), 『喫茶店の時代 : あのときこんな店があった』,
編集工房ノア.
ヴィクターシルヴェスタ(1931), 『モダン社交ダンス』,
玉置真吉訳補, 四六書院.
平岡正明(2005), 『昭和ジャズ喫茶伝説』, 平凡社.
広津和郎(1931), 『女給・小夜子の巻』, 中央公論社.
広津和郎(1932), 『女給郡代』, 中央公論社.
星田宏司(1988), 『日本最初の珈琲店 : 「可否茶館」
の歴史』, いなほ書房.
星田宏司(2003), 『黎明期における日本珈琲店史』,
いなほ書房.
南博(1983), 『モダン都市東京-日本の1920年代』,
中央公論社.
森蒼太郎(1931), 『ダンスホールエロ享楽時代』,
日昭館書店.

■ ■ ■ 京城と東京の「カフェ」文化についての相互比較 研究

ウ・ジョンコン(教授、メディアアート、ストーリーテリング研究センター所長)

1. 京城と東京のカフェ文化の生成

東京に1920年から生まれたカフェがモダン都市の夜文化を主導していた。派手なネオンサインで灯っていた東京のカフェは、神保町を中心に広く存在していた。

日本の最初のカフェといえるPrintempsは、松山正造により成立したが、人の出会いと対話の空間の場として始められた。ここに当時、芸術家や作家、俳優、批評家、政治家が集まってきた。彼らは酒とコーヒーを飲み、西洋の食べ物を食べながら西欧の体験の香水を感じたり、味わったことのない経験に興味を持った。カフェライオン、カフェパウリスタは銀座に立ち並び、平凡な人々を主な顧客に迎えた。日本でカフェ(Cafe)は、「元来コーヒーショップ。西洋料理店・喫茶店の二つの意味以外にもバーもたぶん含まれるだろう」¹⁾という。「カフェはもともと西欧ではコーヒーを飲む店だが、軽いアルコールがおいてあるところもある。次第に軽洋食として扱われ、レストランもカフェと呼ばれるようになる。しかし、米国ではカフェは飲み屋、バーと同意語のようだ。大正時代の「かふえ」は西欧的で、昭和時代の「かふえ」は米国的だといえよう。」²⁾

東京のカフェがコーヒーショップと区別されながら酒を売る店に変貌し、朝鮮の京城に入ってくるときは、カフェはコーヒーを売る喫茶店とは完全に区別されていた。東京のカフェは初め文人たちが集って話をする会合や社交の空間であったのに、次第に女給をおき、酒を売り始めるにつれ、お金がたくさんある業者やサラリーマンが主に入出入りする遊興業所になり始めた。このように東京のカフェは、1910年代後半から20年代まで時代の流れの過程で茶房と分化されたのだが、これが朝鮮の京城に入ってくるときは、初めから茶房とカフェが二つに分れて入ってきたのである。

朝鮮の京城では、南村と北村にカフェが雨の後の竹筍のように生まれた。1932年5月5日『東亞日報』に書かれた「カフェ経営網北村に進出、飲食店件数が格段に増え、去年より 三倍激増」記事を見ると、「鐘路で 管内の飲食店は1931年末に280個所だった。これが4ヶ月過ぎた1932年春、48個所が増え、総328個所になった。その中でも顕著な増加を見せたのは、カフェで 6個所から17個所になった。カフェと似た業所も30余個所が増加した。カフェの増加の 要因は、日本人が北村に進出したためである。昔は日本人が運営するカフェが存在しなかったが、1932年には、17個所のカフェの中に5個所を除いた12個所を日本人が運営する。」南村で始まったカフェが北村

1) 『モダン流行語辞典』(喜多壯一郎監修, 実業之日本社, 1933)

2) 鈴木貞美, モダン都市の 表現: 自己・幻想・女性, 白地社, p.54.

にまで進出し、急速にその数が増えたのである。30年代京城の遊興文化を主導してきたカフェは1910-20年代の妓生のいる料理店を継承した。はじめは、日本人が主に居住する南村で始まったが、朝鮮人が多く集まっている北村にまで拡大し、料理店は栄華を極めた。

草創期の南村と北村のカフェの姿は、全く違った。南村のカフェは大概畳部屋で、白いおしろいを塗り着物を着た女給たちがいて、酒は主に洋酒とサッポロ、アサヒビールがよく売れた。日本の歌謡とジャズなどの音楽を聴き、踊りを踊った。ところが、北村のカフェでは畳部屋よりは衝立を間に椅子とテーブルが主にあり、着物姿の女給と洋服を着た女給がいっしょにいて、韓国の歌謡とジャズなどの音楽を主に聴いた。もちろん、客も南村では日本人が主で、北村では朝鮮人が主であった。南村のカフェが日本のカフェをそのまま移した姿であったのに対し、北村のカフェは、昔の料理店の姿を保ち、酒と食べ物の両方を提供した。しかし、時間が次第に流れるにつれ、この二つの区分が曖昧になった。それに伴い徐々に女給を中心とした退廃、墮落の温床地に転落していったのである。

2. エロサービスを提供した女給

東京のカフェの女給たちは、小規模の料理店のおでん屋とは違いエロサービスを提供した。

カフェの情緒というものも今では過去の物に過ぎないですね。文化的な住宅地の住まいでウィスキーなどを飲んだとしても楽しくもありません。しかし、女性の従業員が美人で一杯ついでくれたら、とりあえず西洋の芸者の気分になるでしょう。この女給をそのままおいておくのは世界で日本だけでしょう。³⁾

芸者のように酒を飲もうとしたら事前に複雑な手順を踏まなくてはならず多くのお金も必要だが、カフェの女給を通し手軽に芸者のような気分を味わえたという。東京のカフェの女給の出身を見たら貧しい農村の地方出身が多く、ほとんど教育を受けられなかった者たちだ。それに対し京城のカフェの女給たちは都市の出身が多く、女優出身や普通の学校以上の卒業生が大部分であった。これは京城のカフェ文化が東京とは違い、都市文化が生まれた典型的なモダン遊興文化であることがわかる例になる。京城のカフェの女給はインテリ男性と話をすることを好み、愛のために自分の全ての者をあげようとする純情派でもあった。それでも京城や東京の女給はすべて労働現場で仕事をする人として生計を立てるしかなかったのであるが、彼女たちの主な収入源は、客からもらったチップが全部であった。当時東京のカフェの女給の収入はだいた

3) 鈴木貞美, モダン都市の表現: 自己・幻想・女性, 白地社, p.50.

い中産層の収入以上に稼いでいたという。京城のカフェの女給は大部分十分ではなかったが、俳優出身や人気のある女給は相当な財産を得たという。問題は彼女らの収入源がチップであったというところである。多くの客を導くためにカフェの中では刺激的で、頹廢的な行動⁴⁾をせ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のであり、次第に密賣淫をするようになった。警察はこのような場所を集中的に取締り、カフェで男女がエロチックな場面を演出したり、踊りを踊ったりすることを厳禁⁵⁾とした。しかし、彼女らを売春婦とはしない。彼女らは強制的ではなく恣意的意思によって賣淫をしたのであるから料理店の妓生とは違った。⁶⁾ カフェの女給の賣淫行為は純然に自分の意思によって行っていたため、女性が性の奴隷になってはおらず主体性を持つようになり、社会的経済活動をするための契機を得たという点で意義がある。特に日本では、近代期社会の変化と関係により女性の主体性と能動性という点で高く評価した。⁷⁾ しかし、朝鮮では、これらに対する見方は、変わらず良くない。女給のカフェ生活をしながら稼いだ金を家で無爲徒食するインテリ男性（既婚者）にすべて貢ぎ、それでも愛を渴求する姿が当時の社会では、よく見られる現象の中の一つであったが、この点は李朝時代から伝わった伝統的な男性中心的なイデオロギーの所産と言えよう。

女給の服装は大抵きものであったが、洋装をするときもあった。胸から下げるエプロンをした。

カフェの女給の姿は、きものの上に胸から下げるエプロンをかけ、後ろでリボン結びをした。夢を見たようなカフェの女給の韻致が残っています。フジアイスのウェイトレスは全部きものを着ている。はっきりした紫で「ウールのきものは、その時代にはなかったが、そんな感じだった。」Sergeのような日本式の服装が制服だった。ウェイトレスと言っても、ひらひらしたエプロンを着ていたのではない。それは1930年ぐらいに終わ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紫の日本式服装に、十字模様にもを締め、ふくらはぎまで白いエプロンをかけていた。なんとなくそのきものが、基本の服装であった。常連客には短い会話をし、絶対に過度に嬌態を見せたりしなかったが、とても親しい友達のような感覚を持っているように見えた。コーヒーとワッフルとフライのようなものが飛び交った。⁸⁾

京城のカフェの女給は、きものと洋装を共に着た。南村にあるカフェの女給が主にきものを着たが、北村は洋装を着た女給たちも相当数いた。

4) 「풍기문란의 대본영- 「카페」 를 집중단속-웨트레스 공포시대가 올 터」, 『동아일보』, 1929년 9월 29일 9면

5) 「 「카페」 에서 팬스를 嚴禁」, 『동아일보』, 1939년 4월 22일 4면

6) Silverberg, *The Modern Girl as Militant*, pp.256~257.

7) 대부분의 카페 여자종업원은 살아가기 위해 이 직업을 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의 관계에 대한 가능성과 문화적인 성의 실천 같은 것은 분명히 보였고 이것은 일본 근대기의 사회변화와 함께 나타났다(p.55)

8) 鈴木貞美, *モダン都市の表現：自己・幻想・女性*, 白地社, p.56.

3. 女給と客のロマンス、純愛と自由恋愛

カフェを出入りした客は、主に学生たちだった。その次に、サラリーマン、知識人である文士、映画業界の従事者、銀行業者、鑛産業者などだった。カフェに行き、酒を一杯飲もうとするなら10ウォンぐらい(現在の貨幣で22余万ウォン)かかり、普通の月給では行けなかった。お金がないサラリーマンたちは、東大門や京城の外れの方で立ち飲み屋やおでん屋で酒を飲んだが、お金がたくさんあるモダンボーイたちが主に行く南村のカフェを出入りした。そしてカフェの女給との恋愛が頻繁に見られるようになった。当時雑誌や新聞で扱われるカフェ関連の記事には女給と男性顧客(学生、サラリーマン、知識人である文士など)との恋愛話がよく紹介され、パク・テウォン、イ・ヒョソク、アン・フェナムなどの小説でもカフェの中の恋愛話が主な題材に登場した。

カフェの女給が自分の身分を隠して会社員と恋愛し結婚しようとしたが、結局、会社員に自分の身分がわかり破婚したという事件も起きた。⁹⁾ このような事件が当時、京城内で一度や二度ではなく数多く起こった。当時のカフェの女給は遊興の町の飲み屋の酌婦だったが、それでも一人の人間として愛情を渴求する心がいかに強かったか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ひいては、愛する男性と結婚しようとしたのに、その男性が結婚してくれず悲観し、自殺を凶った事件¹⁰⁾も起きた。この他にさまざまな記事からカフェの女給たちが叶わぬ愛により、自殺を凶る事件が数多く起こった。漢江十三番地「モダンカフェ」のクンジャが恋愛の失敗により髪の毛を染める薬「ユリワ」を飲み自殺を凶った¹¹⁾ことから始まり、新天地の女給のエリナ(本名キム・ジョンスク(19))が家庭のある人と恋に落ち、結局捨てられて自殺を凶った¹²⁾ことまで、失恋と自殺は緊密な相関性を持った。女給の愛情の相手が会社員、学生、既婚者、ルンペン(浮浪者)などの多様な階層の人々であったが、彼らと純粹で美しい恋愛をしたりもしたが、時には、愛という名で利用されたりもした。¹³⁾ カフェの女給の浪漫的で美しい愛は、当時の社会の文化的なコードであったのである。

日本では、大正時代に「自由恋愛」、「職業婦人」などのようなモダンな思考方式が生まれた。明治時代に、北村透谷の恋愛至上主義には見られなかった性関係も露骨的に描写された。「自由恋愛」は、恋愛至上主義に便乗していくように見えるが、至上主義のような禁欲性はない。大正末期には<性愛論>が流行し、<職業婦人>が注目される雰囲気の中で開放的な恋愛気分が文化の一部になり、若い男女の間で共有されて

9) 「삼아사숙 오십전군과 부호양」, 동아일보 1929년 11월 19일, 4면

10) 「낙원회관」의 여급 이정옥이 자살을 기도하였다. 「百年芳盟水泡 情郎結婚하자飲毒-낙원회관 카페의 여급 紅燈의 불을 등지고」, 『동아일보』, 1934년 4월 15일, 석간 2면.

11) 「女給이飲毒」, 『동아일보』, 1934년 4월 8일 2면

12) 「自殺에도 競争」, 『동아일보』, 1933년 11월 14일, 2면.

13) 엔젤 카페의 여급 이성자가 어느 남자와 동거를 하였는데, 이 남자는 다른 여급과 바람을 피고 자신의 돈 천 여원 (현재 약 2천 3백여만원)도 소비하여 이성자가 자살을 기도하였다.

「사랑이 원수로 정산은 정수에 - 피쉬인 돈 천원만 날아가 카페에 피고인 흥련」, 『동아일보』, 1933년 7월 22일, 2면.

いた。このように日本の「自由恋愛」という大正モダニズムを背景にし解放された男女の派手な恋愛をいう。大多数の女性は、自由な恋愛を憧れたが、厳格な純潔規範の中で純粋な愛情で結ばれた相手との恋愛結婚を夢見るのが全部であった。しかし、カフェの女給に対する視線は、そんなに温かいものではなかった。氷井荷風の『つゆのあとさき』でカフェの女給のきみえは、性的欲望をそのまま顕にし、純潔で貞淑な女性とは距離がある。きみえは田舎で生まれ、東京に上京しカフェの女子従業員になり、多くの男性客と会い自分の性的欲望を満たした。

カフェの女給が自分の性的欲望を満たしていくのが強いのは、東京で多く見られる現状である。京城ではそれよりむしろ純情で献身的な愛を渴求する女給がもっと多く見られる。すなわち、京城の女給が既婚者であれ無為徒食のインテリ男性であれ、献身的に愛しそれが成就されなかったとき自殺を強行したりしたのは、東京ではあまり見られなかった現象である。

4. 実話、犯罪、事件の温床地

日本の東京でカフェは各種の犯罪の温床地であった。この点は京城でも同じである。カフェで無銭取食する者たちが増え続けた。金がなくてもカフェに堂々と出入りし、結局はカフェから警察署に直行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が多くあった。田舎から上京し「キングホール」カフェで遊興をし、お金が足りず無銭取食ようになった商人¹⁴⁾、共産党員と主張し、おもちゃの拳銃でカフェ「エンジェル」の女給を脅迫し無銭取食した青年¹⁵⁾、1銭の金も無しにカフェに入り、30余ウォンの酒と食べ物を無銭取食した二人の青年¹⁶⁾、「平安」カフェで無銭豪遊をした客が女給に暴行まで加えた事件¹⁷⁾などがそうである。カフェを立飲み屋ぐらいに考えてカフェを初めて入った彼らが無銭取食で鐘路で引致された。前払いで払った2ウォンを食べ物の代金として考えたが、それは女給にあげるチップであった。残りの飲食会計額は21ウォン70銭は別に払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結局、彼らは持ち金がないということで、自然に鐘路に向かう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¹⁸⁾

その反面、酒代をごまかし客に不当な料金を請求したところもある。3ウォン50銭する高級酒を普通の洋酒に混ぜ、一瓶25ウォンとしてもらったのがばれ捕まったカフェ¹⁹⁾もあった。約10倍近い価格を客に不当請求し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弊害が

14) 「갓 쓴 시골 商人 카페 出入 웬 말」, 『동아일보』, 1933년 12월 23일 2면

15) 「假拳 銃青年 女給脅迫取食 - 자기는 공산당원이라고 카페엔젤에 또 怪事」, 『동아일보』, 1934년 1월 8일 석간 2면

16) 「카페怪男兒 結局無銭取食」, 『동아일보』, 1934년 1월 31일 석간 2면

17) 「鑛業家逢變, 카페에서 무전호유」, 『동아일보』, 1939년 8월 8일 2면

18) 「카페에 出入타 逢變한 두 青年」, 『동아일보』, 1934년 1월 28일 2면

19) 「술 한 병에 二十五圓也 - 暴利의 先鋒隊 「카페」와 「빠」 鍾路 「네은」 街의 異聞」, 『동아일보』, 1939년 10월 6일 석간 2면

増えるにつれ、総督府の物価専門委員会では、酒、ビールの公定価格を検定し²⁰⁾、それによって公定価格を告示し実施²¹⁾する方針が生まれもした。

金もなく、カフェは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奇怪な現象の欲求を埋めるために、犯罪を犯しても金を用意しカフェに向かうこのような者が増えるだけ増えた。カフェの遊興費を準備するために窃盗をする者もいた。16回にかけて外套と蓄音機を窃盗し、質屋に預けた金540余ウォンをカフェで豪遊した事件²²⁾、京城除隊服装をした偽物の大学生が百貨店で窃盗し、カフェを出入りしていた事件²³⁾、誠実だった商店店員が自分が働いていた商店と近所の商店でお金を盗み、遊び捕まった青年²⁴⁾、そして、銀行強盗をしカフェ「ククス」で遊興を楽しみ逃亡中の者²⁵⁾、鐘路の郵便所で勤務していた人が公金1200ウォンを横領しカフェで遊興をして逮捕された事件²⁶⁾などなどがそうである。

酒で熟していくカフェの中では遊興という快樂がある反面、暴行も広がった。酒に酔い、カフェの女給を間において繰り広げられた暴力団員の検挙の掃討作戦²⁷⁾、酒に酔って女給を暴行²⁸⁾し、女給を暴行する客を止めようとした人々がナイフに刺され、重症を負った事件²⁹⁾などがあった。また、口喧嘩で始まり殺人に終わった事件もあった。女給を間におき、口喧嘩をしているうちに相手をナイフで刺し、即死させた事件もあり、加害者は10年の求刑を下された事件³⁰⁾もあった。酒と女給の笑いで始まったカフェが暴力と殺人の犯罪の温床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

日本ではカフェを出入りする人々の中の相当数がモダンボーイであった。第1次世界大戦の好景気以後、登場したモダン文化に対する感覚を伝承した新しいタイプの人物たちであった。彼らは「モガール」のように自由奔放な自由恋愛を追求した。そして、会社員である「ハイカラ」や格好いい芸術家である「ダンディ」と呼ばれる男性たちが西洋風の風俗を受け入れながら、カフェを出入りし各種の犯罪を引き起こしもしたのである。

20) 「料理 飲食店 「카페」 에 淸麥酒 價格을 公定 違反者를 經警이 嚴重團束 飲酒黨은 安心하라」, 『동아일보』, 1940년 5월 30일 2면

21) 「料理店 카페 一等의 酒 卍무 價格決定 - 今日 物價委員會에서」, 『동아일보』, 1940년 6월 7일 2면

22) 「절도질해야 카페서 호유」, 『동아일보』, 1933년 3월 26일 석간 3면

23) 「假字大學生 「카페」 에서 暴行」, 『동아일보』, 1935년 1월 23일 석간 2면

24) 「카페에서 醉한 술- 商店돈을 竊取해야갓고 豪遊 留置場에서 靚 靑年」, 『동아일보』, 1936년 6월 30일 2면

25) 「犯行後 七日 市内潛伏 菊水카페에서 豪遊 京城郵便局서 名古屋에 送金 各處에서 劇的場面 演出」, 『동아일보』, 1938년 2월 11일 2면

26) 「카페出入에 亡身한 靑年」, 『동아일보』, 1934년 2월 16일 석간 2면

27) 「권총등무기휴대 효두에 일대결전 - 카페 녀금새두고 완연한 전쟁 「에로」 「테로」 雙奏曲」, 『동아일보』, 1933년 3월 1일 석간 2면

28) 「「카페」 에서 폭행 - 부내원동 금홍목」, 『동아일보』, 1934년 11월 29일 석간 2면

29) 「카페 殺人犯 殺人罪로 公判에 廻付」, 『동아일보』, 1935년 7월 10일 석간 2면

30) 「「카페」 살인사건 십년을 구형 - 공범인에게는 삼년의 징역, 재판장이 실지검중」, 『동아일보』, 1935년 10월 6일 2면

5. 結論

東京のカフェが朝鮮の京城に伝わる過程でその様相は朝鮮的に変化した。日本の向うに西欧と米国があるように、朝鮮の京城でカフェ文化は日本式と西歐式が結合した様相を帯びた。女給の服装はきものと洋服が併用され、酒は洋酒と日本のビールが愛用され、歌は西歐式ジャズが流行し、西欧の映画を見ながら「もんぱり」ファッション流行など、その様相を見ることができた。そういう変化の中、朝鮮的な伝統様式は女給の愛の方式に現われた。純情で純粋な愛の渴望は彼女たちを売淫させたが、性の製品化を露骨に現さなかったことを立証している。さらに、欲望の解放口としてカフェを利用しなかった点は、日本の女給にはあまり見られなかった場面である。日本が明治維新以後、女性の性的主体性が強化され、肉体的な愛に対するタブーが消え始めた反面、朝鮮では貞操観念が変わらず有効に社会的規範として腰を据えていた。例え、売淫しても精神的な愛だけは守り抜くという女給の意志の中にまた別の形態の貞操観念があったことがわかる。事に依るとこのような愛の方式が今日のドラマや映画の中にも現われ、純粋な愛の浪漫を渴望することで現われ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これが日本にはない韓国だけの方式による愛なのであろう。この問題は本稿の論議を逸脱するため、次回メディアを通し現われる韓国と日本の愛の方式という主題で詳論することにする。

いずれにしても京城と東京のカフェの比較を通し、遊興文化が日本の欲望を噴出する場所であり新しい感性の刺激剤になり、その中でモダン文化の多様な形態を受け入れ体験しながら「感覚的な存在」を確認させてくれる要素として作用したのである。

* 参考文献

<한국>

1. 일차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여성』, 『별건곤』, 『女聲』, 『女性』, 『조광』, 『東光』, 『만세보』, 『인문평론』, 『문장』, 『별건곤』, 『三千里』, 『新東亞』, 『新生活』, 『신민』, 『新女性』, 『朝光』, 『朝鮮之光』, 『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2. 이차 자료

1> 저서

강준만·오두진(2005),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인물과 사상사.
 권보드래(2003),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권오만 외(2002), 『종로: 시간, 장소, 사람』, 서울학연구소.
 김경일(2003a),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b), 『한국 사회사상사』, 나남출판.
 _____(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김기호 외(2003), 『서울 남촌: 시간, 장소,

사람』, 서울학 연구소.
 김미지(2005), 『누가 하이카라 여성을 데리고
 사누- 여학생과 연애』, 살림.
 김영모(1982)a, 『韓國社會階層研究』, 一潮閣.
 _____(1982)b, 『일제하의 민족 생활사』, 현암사.
 김주리(2005), 『모던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살림.
 김진송(1999), 『서울에 만스홀을 許하라-현대성의 형성』,
 현실문화연구.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2001),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형성』,
 아세아문화사.
 _____(2006), 『거울과 미로 : 풍속사』, 천년의 시작.
 문옥표 외(2003), 『신여성- 한국과 일본의 근
 대여성상』, 서울: 청년사.
 백지혜(2005), 『스위트 홈의 기원』, 살림.
 손정목(1996a), 『일제강점기 도시 사회상 연구』, 일지사.
 _____(1996b),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
 일지사.
 소래섭(2005), 『에로 그로 닌센스- 근대적
 자국의 탄생』, 살림.
 신기욱·마이클 로빈슨 편,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2006.
 신명직(2003), 『모던뽀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여성사연구모임 길밖세상 편(2001),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염복규(2005),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살림.
 우정권(2004), 『한국근대 고백소설의 형성과
 서사양식』, 소명출판.
 이경훈(2003), 『오빠의 탄생- 한국근대문학의 풍속사』, 2003.
 이성욱(2004), 『한국근대문학과 도시문화』,
 문화과학사.
 이승원(2005), 『소리가 만들어낸 근대의 풍경』, 살림.
 이진경(2005),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장규식(2004), 『서울, 공간으로 본 역사』, 해안.
 장유정(2006), 『오빠는 풍각쟁이야-대중가요로
 본 근대의 풍경』, 민음사.
 조영복(1997),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조이담(2005),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바람구두.
 천정환(2003), 『근대의 책읽기』, 푸른 역사.
 최혜실(2000), 『신여성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태혜숙 외(2004),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한국여성연구원 편(2002),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한국현대문학회(2003), 『한국문학과 풍속-1』, 국학자료원.
 마이클 로빈슨(1990),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나남출판.

2> 논문

고석규(1997), “일제강점기 서울 중심부에
 나타난 도시문화의 특성”,
 『한국사학사연구』, 나남출판.
 _____(2004),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
 간 문화』, 서울대출판부.
 구인모(2002) “무정과 우생학적 연애론”,
 『비교문학』 28집.
 김경수(2002), “염상섭의 초기 소설과 개성론과 연애론”
 『어문학』 Vol. 77, 한국어문학회.
 김동식(2001), “연애와 근대성-신소설과 계
 몽적 논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8호.
 김미지(2001), 『1920-3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국문과 석사학위논문.
 김연희(2002), 『일제하경성지역 카페의 도시문화적
 성격』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김영근(2000), 「일제하 식민지적 근대성의 한 특징-
 경성에서의 도시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7집, 한국사회사학회.
 김지영(2003), “자유연애의 이상과 식민지 근대의 현실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 연구”,
 『우리어문연구』 20호.
 _____(2004), 『근대문학 형성이 '연애' 표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박정애(1999), 「1910-1920년대 초반 여자일본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석사논문.
 서정자(1987), 「일제강점기 한국여류소설 연구」,
 숙대박사학위논문.
 _____(1988), 「나해석 연구」, 『문학과 인식』, 박문사.

- 서지영(2003a), “조선후기 중인층 풍류공간의 문화 사적 의미-서구 유럽살롱과의 비교를 통하여” 『진단학보』 95호, 6월.
- _____ (2003b), “식민지시대 카페여급 연구-여급잡지 <女聲>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학』 19권 3호, 한국여성학회.
- _____ (2004), “식민지근대 유흥풍속과 여성 섹슈얼리티-기생·카페여급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집, 한국사회사학회.
- 손유경(2003), “1930년대 다방과 ‘문사’의 자의식”, 『한국문학과 풍속-1』, 한국현대문학회 편, 국학자료원.
- 신영숙(1986), 「일제하 신여성의 연애, 결혼문제」, 『한국학보』 45.
- _____ (1989), 「일제하 한국여성사회사 연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논문.
- 안숙원(2000), 「신여성과 에로스의 역진극-나혜석의 <현숙>과 김동인의 <김연실 전>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3호, 한국여성문학회.
- 안미영(2000),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급 고찰-이상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호, 한국여성문학회.
- 유선영(2000), “육체의 근대화: 할리우드 모더니티의 각인”, 『문화과학』 24.
- 이덕화(2000), “신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여성문학연구』 4호, 국여성문학회.
- 이명선(2002), 『식민지 근대 ‘신여성’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성별과 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논문.
- 이배용(1999a), “일제하 여성의 전문직 진출과 사회적 지위” 『국사관 논총』 83집,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9b), “개화기·일제시기 결혼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한국근현대사 연구』 10.
- 이상진(1995), “신여자의 자각과 욕망”,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일사.
- 이영자(1991), “자본주의와 성” 『여성연구』 9권 2호,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1999), “소비대중여성과 페미니즘” 『성평등연구』 3집, 가톨릭대 성평등연구소.
- 이태숙(2000), 『여성성의 근대적 경험양상-1920~30년대 문학을 중심으로』 고려 대학교 국문과 박사논문.
- 이혜령(1999), “성적 욕망의 서사와 그 명암”, 『반교어문연구』.
- 이호숙(1995), “위악적 자기방어기제로서의 에로티즘”,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길사.
- 정혜영(1999), “‘연애’의 동경과 좌절-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과 <마음이 열린 자>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Vol. 11, 한국현대소설학회.
- 최혜실(1998), “경성의 도시화가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소설에 미친 영향” 『서울학 연구』 9호.
- 한기형, “근대잡지 『新青年』과 경성청년구락부 : 『신청년』 연구1”, <서지학보> 26호, 2002, 12
- 한형구(2000),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계보 소설을 통해 본 20세기 서울의 삶의 역사와 그 공간지리의 변모” 『서울학 연구』 14호.

[일본]

- 青木英夫·メイS青木(1975), 『目で見る女性ファッション史』, 衣生活研究会.
- 青木英夫·メイS青木(1987), 『風俗史からみた一九三〇年代』, 源流社.
- 青木英夫(1981), 『風俗史からみた一九二〇年代』, 源流社.
- 石角春之助(1935), 『銀座女譚』, 丸ノ内出版社.
- 内田誠, 『喫茶卓』, 双雅房, 1936.
- 海野弘(1985), 『モダンガールの肖像 : 1920年代を彩った女たち』, 文化出版局.
- 大谷絹子(1930), 『女給日記』, 金星堂.
- 柏木博(1998), 『ファッションの20世紀-都市・消費・性』, NHKBOOKS(日本放送出版協会).
- 喜多壯一郎監修(1933), 『モダン流行語辞典』, 実業之日本社.

- 北山晴一(1991),『おしゃれの社会史』,朝日選書.
 コルゲン・シェベラ(2000),『ベルリンのカフェー黄金の一九二〇年代』,
 和泉雅人・矢野久訳,大修館書店.
 酒井真人(1930),『東京盛り場風景』,誠文堂.
 鈴木貞美(1992),『モダン都市の表現—自己・幻
 想・女性』,白地社.
 鈴木貞美編(1989),『モダンガールの誘惑』,
 平凡社.
 高梨由太郎編(1934),『喫茶店の新構成巻一』,
 洋々社.
 谷口政秀・小野磐彦(1931),『婦人職業の実際』,
 桃源社.
 谷崎潤一郎(1925),『痴人の愛』,改造社.
 仲村祥一編(1973),『現代娯楽の構造』,文和書
 房.
 ハインツ・クロイル著(1983),平井正,田辺秀樹訳,
 『キャバレーの文化史
 』,ありな書房.
 初田享(1993),『カフェーと喫茶店』,INAX出版.
 林哲夫(2002),『喫茶店の時代:あのときこんな店があった』,
 編集工房ノア.
 ヴィクターシルヴェスタ(1931),『モダン社交ダンス』,
 玉置真吉訳補,四六書院.
 平岡正明(2005),『昭和ジャズ喫茶伝説』,平凡社.
 広津和郎(1931),『女給・小夜子の巻』,中央公論社.
 広津和郎(1932),『女給郡代』,中央公論社.
 星田宏司(1988),『日本最初の珈琲店:「可否茶館」
 の歴史』,いなほ書房.
 星田宏司(2003),『黎明期における日本珈琲店史』,
 いなほ書房.
 南博(1983),『モダン都市東京—日本の1920年代』,
 中央公論社.
 森蒼太郎(1931),『ダンスホールエロ享楽時代』,
 日昭館書店.

배 개 화

경성과 동경의 ‘카페’ 문화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
토론문

1. 글쓴이는 “동경 카페 여급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가난한 농촌 지방 출신이 많았고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그것에 비해 경성 카페 여급들은 도시 출신이 많았고, 여배우 출신이거나 보통학교 이상의 졸업생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경성의 카페 문화가 동경과는 달리 도시 문화가 낳은 전형적인 모던한 유흥문화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예가 된다.” 고 동경의 카페 문화와 경성의 카페문화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동경의 카페 문화가 “전형적인” 도시 문화, 모던한 유흥문화가 아니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이러한 카페 문화에 대한 평가는 뒤에 오는 동경의 카페 여급의 주체성과 경성의 카페 여급의 주체성을 비교한 것과는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필자는 동경의 카페 여급의 경우 에로서비스를 선택 및 결정할 권리가 여급 자신에게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능동성이 나타난다고 평가하고 있음에 반해 경성의 카페 여급의 경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앞부분에서 경성의 카페 문화가 동경에 비해서 근대적, 도시적이었다는 것과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3. 1930년대 동경과 경성에서 ‘자유연애’ 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비교를 부탁드립니다. 경성의 여급들의 경우, 카페를 통해서 인텔리 남성들과의 자유연애를 많이 하였음에 비해서, 동경의 여급들은 자유연애보다는 에로서비스에 더 치중하였다는 것이지요?

4. 카페라는 문화를 형성하는 한 축이었던 카페 여급들의 출신성분이나 교육 정도가 동경과 경성에서 차이가 났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식민지 근대성의 성격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京城と東京の「カフェ」文化についての相互比較研究 討論文

1. 論述の「東京のカフェの女給の出身を見ると、貧しい農村地方出身が多かった。ほとんど教育を受けられなかった。それに対し京城のカフェの女給は都市出身が多く、女優出身や普通の学校以上の卒業生が大部分であった。これは京城のカフェ文化が東京とは違い、都市文化が生んだ典型的なモダン遊興文化であることがわかる例になる。」と、東京のカフェ文化と京城のカフェ文化の違いを説明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対照は、東京のカフェ文化が「典型的な」都市文化、モダン遊興文化ではないという意味として読み取れます。これに対する補充説明をお願いいたします。

2. また、このようなカフェ文化に対する評価は、後の東京のカフェの女給の主体性と京城のカフェ女給の主体性を比較するのとは矛盾したことのようです。筆者は東京のカフェの女給の場合、エロサービスを選択、または決定する権利が女給自身にあったという点をあげ、女性の（性的）主体性と能動性の現れだと評価する一方で、京城のカフェの女給の場合、家父長的なイデオロギーの影響下にあったと評価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評価は前の部分で京城のカフェ文化が東京に比べ近代的、都市的であったということと矛盾しているようであります。

3. 1930年代東京と京城での「自由恋愛」は、どんな意味を持っていたのか、比較をお願いいたします。京城の女給の場合、カフェを通じインテリ男性との自由恋愛をたくさんしたということですが、それに比べ東京の女給は自由恋愛よりはエロサービスの方が多かったのでしょうか。

4. カフェという文化を形成する一つの軸だったカフェの女給の出身や教育の程度が東京と京城で差が出た理由は何なのか、そして、これを通して見られる植民地近代性の性格は何なのか、説明をお願いいたします。

진화천의 「도」와 잡지 『문예대만』을 중심으로

陳火泉の「道」と雑誌『文芸台湾』をめぐって

- 廖秀娟(臺灣元智大 教授)

指定討論 - 徐東周(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원)

프로필

廖秀娟 (Liao Hsiu-Chuan)

台灣元智大學 教授 日本近現代文學／昭和文學

■ 주요저서 및 논문

「中島敦 「牛人」論」 『解釈』 第49卷1・2月号 2003.02

「中島敦 「李陵」論—他者との対峙」 『阪大近代文学研究』 2006.03

「太宰治 「惜別」論—「私」の語りから」 『台大日本語文研究』 2007.7

「中島敦 「虎狩」論」 『台灣日本語文學報』 2007.12

외 다수

진화천(陳火泉) 「道」와 『문예대만(文藝臺灣)』

廖秀娟(元智大学助理教授)

1. 시작하는 말

진화천 「道」는 1943년 7월 『문예대만』 제 6권 3호에 발표된 소설이다.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청남(靑楠)은 전매국의 제뇌시험소(製腦試驗所)에 근무하는 본도인(本島人)이다. 장뇌(樟腦)의 원동력이 되는 가마개량에 몰두하고 대만총독부 식산국장의 추천으로 산업전사훈장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기사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년 전부터 검토되었던 기수(技手)임관은 내지인인 다케다(武田)에게 밀려서 실패로 끝나고 만다. 한 때, 신경쇠약에 걸린 그였지만, 어느 날 지금까지의 자신 안에 「국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본도인적인 사상을, 본도어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여 이 일을 계기로 재기할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대만육군특별지원병에 지원하여 피를 흘림으로써 제국과의 혈연적으로 관련이 없는 본도인에서 황민(皇民)으로 변신하는 길을 가고자 피하였다.

우선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문예대만』의 편집후기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부분이다. 「우선 신인 진화천씨의 「道」(163매)를 읽어 주었으면 한다. 이 본도인 문학에 대해서는 이미 본문중의 추천사에서 자세히 기술하였으니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면으로 볼 때도 나누어 게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얼마나 본사가 큰 희생을 치르고 이것을 일괄 게재할 결심을 했는지, 8포인트활자로 하여 55페이지를 필요로 하는 이 대작을 읽어서 그 이유를 독자도 부디 잘 이해해주시 바란다. 「道」야말로 실로 글자그대로 문제작이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道」는 400자원고지로 163매, 자수 약 6만 5천자 정도의 「대작」이었지만 전체가 일괄게재되었다. 그 분량은 그 때까지의 『문예대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모였다.

따라서 이하에서 본 발표가 주목한 것은 이 파격적인 대우에 대해서이다. 「얼마나 본사가 큰 희생을 치르고 이것을 일괄 게재할 결심을 했는지, (중략) 그 이유를 독자도 부디 잘 이해해주시 바란다」라는 편집자의 말에 착목하여, 의도된 「이유」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모색하고 「道」를 고찰해 보는 것이 본 발표의 목적이다.

1) 『文藝臺灣』 제 6권 3호 1943. 7, P172

2. 「道」의 해석

그럼 우선 「道」의 연구사를 간단히 확인해 두고자 한다. 「道」는 발표당시부터 대만문단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었던 濱田隼雄·西川滿 두 사람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²⁾. 또, 같은 해 말의 좌담회 「징병제에 대해서」에서는 神川清에게서도 「황민문학의 결정(結晶)」이라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전후가 되자 鍾肇政에 의해 「가정(苛政)과 폭력, 학대 하에서 고통으로 가득 찬 항의문학³⁾」이라고 평가받고 작품의 재평가가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道」는 저항문학으로서 읽혀지기 시작했지만, 垂水千惠는 진화천이 전시 중에 참가한 좌담회, 하이쿠(俳句), 동인지에 발표된 작품을 근거로 하여 진화천에게 당국에 대한 「항의」의도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⁴⁾.

선행연구에서 「道」가 황민문학인지 저항문학인지라는 점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거꾸로 이 작품은 양쪽 모두 해석 가능한, 즉 양의적인 요소를 포함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문예대만』 편집자가 「道」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란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道」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西川滿의 「소설 「道」에 대해서⁵⁾」부터 생각해 보자. 니시카와는 다음과 같이 「道」를 평가하고 있다.

작품의 중간정도까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읽었다. 너무나도 세련되지 못하다. 조사사용이 잘 못된 곳도 많다. 그렇지만, 후반에 들어서 나도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굉장한 문학이라고 생각하여 앉은 자세를 바로 하였다. 누구라도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소리내어 읽었다. 그리고 그 때에 있는 그대로 감동했다. (밑줄은 필자, 이하 동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40년 1월 1일, 西川の 노력으로 대만시인협회를 대신하여 대만문예가협회가 설립되고 그 기관지 『문예대만』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그 후 『문예대만』의 편집방침은 西川の 의도가 크게 반영되게 되었다. 따라서 西川の 「후반에 들어서 나도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한마디는 『문예대만』의 〈생각〉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중요한 힌트를 제시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西川를 크게 감동시킨 「道」의 후반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道」는 주인공 청남이 특무기관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다케다와의 승진경쟁에서 패한 부분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청남과 계장의 논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려진 것은 다음과 같은 청남의 주장이었다. 즉 「존황양이(尊皇攘夷)」라는 일본정신을 가지면 본도인이라도 조선인이라도 대만인이라도 황민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 (천황의 피를 이어받은) 내지인이라고 해도 그 행동이 일본정신에 부합하와의 승 한, 황민이라고승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남이 혈통이라는 벽을 부수고 일본정신의 유무에서 「좋은 일본인」에 대한 재정의의를 시도한 것에 중점이 놓여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서 승진경쟁에 패한 청남은 일기에서 「국화는 국화. 꽃은 벚꽃. 모란은 결국 꽃이 아닌가!! 천황각하만세를 외치고 죽을 수 있는 것은 황군뿐이니, 이 한 몸을 나라를 위해 목숨

2) 좌담회 「徵兵制をめぐって」 『文藝臺灣』 제 7권 1호, 1943. 12, P17

3) 鍾肇政 「日據時代臺灣文學의 盲點—對『皇民文學』의 一個考察」 『聯合報』 1979. 6. 1 일본어 번역문은 垂水千惠 「日本統治と皇民文學—陳火泉の場合」(『台湾の日本語文學』 五柳書院 1995. 1, p83) 에서 인용한다.

4) 垂水千惠는 「진화천은 일본인이 기뻐할 모범적인 황민상을 그림으로써, 작가로서의 명성과 직장에서 승진을 손에 넣으려고 했다」고 그의 의도를 서술하고 「道」의 항의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日本統治と皇民文學—陳火泉の場合』 『台湾の日本語文學』 五柳書院 1995. 1 P75-P101)

5) 『文藝臺灣』 제 6권 3호, 1943.7, P142

을 바치는 것은 황국신민뿐이니, 본도인인 나는 결국 황민이 아닌가? 아아, 결국 인간이 아닌가? 라고 자신의 심경을 적고 있다. 즉, 종래의 천황신앙과 통치정부의 허위성을 간파한다는 일종의 도달점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리에 떠오른 「多蟲不癢, 多債不想」이라는 대만어 속담으로 본도인에게 주어진 차별문제를 「국어」 문제로 전환해가는 것이다. 즉, 청남은 자신이 「본도인적인 사」 문제 도어로 생각」 해 버리는 것문제철저하게 「국어」 생활문제추구하와의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본도인생활문제추구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내지인에 의한 부당한 차별문제이러한 형태로 합리화하」 문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전환해 내지인의 본도인에 대한 불공평한 차별대우라는 문제는 얼버무려지게 되고, 거꾸로 철저남이 어」 생활문제열렬는 추구하는 청남의 모습이 초점화강조되게 된다. 더욱이 청남은 일본정신을 갖추는 것으로 인한 황민자격취득이라는 종래의 지론을 포기것문제철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동일한 적에 대해서 본도인 내지인과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피를 흘리와의 으면 황민이 될 수 없다어로 피를 흘리는 것밖에 황민이 되는 길은 없다고 주장하기에제이른다. 결국에는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군특별지원병에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서 西川, 함눈시울을 뜨겁게」 것문, 「굉장한 문학이다어라고 말하게 한 것의 존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작품 후반부에 그려진 청남의 어」 추구될제철저함 피를 흘 전환해 황민이」 문제하는 생각」 결의이다. 제추론은 『문예대만』의 다른 기사에서도 증명된다.

長崎浩, 周金波, 진화천(陳火泉), 神川清이 참가한 좌담회 「징병제에 대해서⁶⁾」에서 진화천의 「道」에 관한 언급이 몇 군데 나온다. 예를 들면, 長崎浩는 「진씨의 「道」에서는 주인공의 마음의 상극이 애처로울 정도로 그려져 있다. 징병제에 대한 황민의 기분을 추구해 가는, 거기에 큰 반성도 있고 그것을 계기로 개척해 가야 하는 새로운 문학의 길도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언급하고 있다. 「道」에서 청남이 「징병소집장」에 대해 미야자키(宮崎)라는 일본인에게 한 말- 「나를 생각해 봐라. 너에게는 언젠가 소집될 기쁨이 있지만 나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원해도 얻을 수 없어-」가 이 발언의 근거가 되었는지, 그는 「道」를 본도의 징병제실시와 관련지어서 논하고 있다.

또한 長崎浩는 계속해서 국어 상용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국어문제에 대해서도 「道」에서 하나의 반성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있지요.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인공이 『국어로 생각하고 국어로 사색하는 것조차 자신에게는 불가능했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심각한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징병제실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국어습득이 시급했습니다만, 본도 청년뿐만 아니라 대만내지인도 국어가 일본정신의 혈액이라고 생각하여 국어를 보급, 순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만 문학자의 큰 사명 중 하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 온 것처럼, 작품 후반부에 들어서 청남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좋은 일본인」의 재정의 문제는 지원병과 국어상용문제로 바뀌어 간다. 그리고 작품세계 외적인 부분에서도 長崎浩, 神川清⁷⁾의 발언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바로 이 부분이 초점화되어 있는 것이다.

3. 『문예대만』의 전환

전술한 바와 같이 『문예대만』의 편집자는 「道」를 일괄 게재하는 고심을 이해해 달라고 독자에

6) 『文藝臺灣』 제 7권 1호, 1943. 12, P3-P17

7) 「징병제실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주장한 것은 역시 이 천황각하만세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황민문학의 결정(結晶)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진씨의 「道」는 수로안내였다고 생각한다」(神川清 「徵兵制をめぐって」 『文藝臺灣』 제 7권 1호, 1943. 12, P17)

게 호소할 정도로 「道」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 기대의 내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밝히기 전에 『문예대만』이 전시하의 대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문예대만』은 1940년 1월에 西川滿에 의해 창간된 대만최초의 종합문예잡지였지만, 그 발행기관인 대만문예협회가 대만시인협회에서 개편, 조직된 것이었기 때문에 초기작품은 시가 대부분이었다. 또 게재된 작품의 대다수가 西川滿의 색채를 띤 「남국정서」, 「이국취미」적이었던 것이 결국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국적인 것, 예를 들면 붉은 사당의 지붕이라든지, 서낭신의 제례라든지, 마조(媽祖)의 제전과 같은 것을 소재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아름답고 진귀하지만 뭉클하게 가슴에 아 닿는 저력이 비교적 적다⁸⁾」, 「문학작품의 창작의도 중에서 이국적인 정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외지문학의 사도(邪道)이다⁹⁾」라고 있듯이, 西川의 이국취미가 비판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예대만』은 西川개인의 취미잡지에 지나지 않는다¹⁰⁾고 하여 『문예대만』 그 자체의 가치가 부정되었다. 이들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1941년 6월 20일에 각의(閣議)결정된 지원병 제도도입이 계기가 되어 같은 해 9월 발행된 제 2권6호에는 지원병을 테마로 한 소설, 周金波의 「志願兵」, 川合三良의 「出生」이 게재되었으며 이 이외에 전쟁시 특집도 실리는 등, 『문예대만』의 편집방침은 크게 전환된다. 그 이후 『문예대만』은 어용잡지의 색채를 점점 강화해 간다.

그 역할 중 하나는 국어 상용의 고취이다. 평소부터 周金波 「田子の辯解」(제 3권 제1호, 1940.10)와 新垣宏一의 소설 「城門」(제 3권 제 4호, 1942. 1), 河合讓 「大東亞の言葉」(제 4권 제 4호, 1942. 8)를 통해서 국어사용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있다. 또, 두 번째는 전쟁찬미이다. 특히 1941년 12월 8일 진주만공격이후 전쟁을 찬미하는 시가 많이 실린다. 게다가 1942년부터 1944년 1월 종간될 때까지 매년 12월호에 12월 8일의 특공공격을 기념하는 특집 「대동아전쟁」이 특집으로 편성된다¹¹⁾. 그리고 1943년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때에는 高橋比呂美 「国に捧げて」¹²⁾와 같은 나라의 정병모집에 기쁘게 응하는 시까지 쓰고 있다.

이전에 명예로운 소집장을 어머니에게 보이고/ 남동생은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어머니 제 몸은 이미 나라의 것입니다」라고/ 그 말대로 그의 몸은 나라에 바쳐졌다/ 지금 대동아전쟁 하에서 설령 부름을 받지 않아도/ 나도 또한 단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제 몸도 나라의 것이다」라고/ 나라에 바친 후방의 1억 명의 몸은/ 지금이야말로 뜨거운 철이 되어서 적군 격멸에 역투하고 있다 (이하 생략)

세 번째는 정책선전이다. 1943년 5월, 황민봉공회(皇民奉公會)의 산하에 있었던 대만문예가협회가 조직 개편되어 새롭게 대만문학봉공회로 편성되었지만 그것이 일본문학보국회 대만지부와 표리일체 관계인 것은 지부간사임원¹³⁾이 『문예대만』의 동인과 거의 중복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으며 또 제

8) 黃得時 「臺灣文壇建設論」 『臺灣文學』 제 1권 2호, 1941. 9, P7

9) 中村哲 「昨今の台湾文学について」 『臺灣文學』 제 2권1호, 1942. 2, P3

10) 「『文藝臺灣』은 결국 소설을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취미잡지로 추락했다. (중략) 정말로 西川滿은 개인의 취미잡지 의외(意外)-원문 및 인용문 그대로임. 번역자주)에 아무것도 아니다」(鹿子木龍 「文藝詩評」 『臺灣公論』 제 4호, 1942.4) 본문인용은 『日本統治期臺灣文學研究序說』(綠陰西方, 2004. 3, P36)에서 한다.

11) 『文藝臺灣 詩集大東亞戰爭』 제 5권2호, 1942. 12, P6-P32. 『文藝臺灣 詩集大東亞戰爭』 제 7권1호, 1943. 12, P3-P32.

12) 『文藝臺灣』 제 6권6호, 1943. 11, P2

13) 사단법인 일본문학보국회 대만지부의 「지부규정」에서는 「(지부장)失野禾積 (이사장)西川滿 (이사)島田謹二, 瀧田貞治, 齊藤勇松居桃樓, 張文環, 山本孕江孕, 濱田隼雄 (간사장)濱田隼雄 (간사)龍 瑛宗, 이라고 지부 임원을 공표하는 문장이 있다. (『文藝臺灣』 제 6권 5호, 1943.5, P69)

6권 제 2호의 편집소식 「여월소식¹⁴⁾」에서도 그것은 공언되고 있다.

『문예대만』 제 7권 제 1호에서는 쇼와 20년부터 대만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는 것 때문에 좌담회 「징병제에 대해서」가 기획되어서 그 내용이 전문 게재되고 있는데, 잡지의 말미 편집소식에서 『문예대만』의 정책협력 자세가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본지가 황민문학 수립을 위한 존재인 것은 새삼스럽게 쓸 필요도 없지만, 이 목표 때문에 우리는 단단한 동지적 결합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다. 본 호의 좌담회 내용 등, 우리의 방향을 어느 정도까지 독자제현 앞에서 피력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¹⁵⁾

『문예대만』이 보여준 이러한 「방향」을 보면 편집자가 「道」에 위탁한 〈생각〉이라는 것도 쉽게 상상될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작가 진화천이 『문예대만』의 편집자 측의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인 것이다.

진화천이 언제 『문예대만』의 동인이 되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문예대만』 제 3권 제 1호 사보의 소설단평 란에서 「「산이 높으면」 진화천군이 큰 로망이 될 듯한 멋진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테마가 정해지지 않았다. 소설구성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더욱 제대로 착수하였으면 하고 생각한다¹⁶⁾」라고 있듯이 진화천의 작품 「산이 높으면」을 평론하는 글이 보이는 것과 濱田隼雄의 「소설 「道」에 대해서」에서 「진군은 1년 이상도 전에 역시 제뇌인(製腦人)을 그린 적도 있었지만, 그 때는 내가 차분하게 장편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잊고 있었을 즈음, 이 작품을 받았다¹⁷⁾」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진화천은 적어도 1940년 10월에는 『문예대만』 동인과 교섭을 가지고 두고 등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진화천은 『문예대만』의 어용문학으로서의 자세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문예대만』의 편집자 측이 좋아할만한 테마, 즉 지원병과 국어상용문제를 작품소재로 한 진화천에 대해서 「일본인이 기뻐할 규범적인 황민상을 그림으로써 작가로서의 명성과 직장에서의 승진을 손에 넣으려고 했다¹⁸⁾」와 같은 비판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별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道」라는 작품이해에 대해서 일의적인 제한을 추가해도 좋다는 이유가 될 리 없다는 것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싶다. 즉 「道」라는 텍스트 자체에 담겨있는 〈비판의식¹⁹⁾〉도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텍스트의 반역

작품의 전반부, 내지인인 계장이 청남의 승진실패원인을 그 자신이 「본도인」이었던 것에서 찾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식민지정부의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슬로건 이면에 감추어진 차별도 역시 동시에 폭로하고 있다. 또, 전시하의 국민에게 결전을 선양(宣揚)하는 〈모범〉이 된 바쇼(芭蕉)를 열렬히 추구하는 청남의 자세에 대비하는 형태로 다케다가 「또 바쇼야?」라고 말한 것과, 미야시로가 「그것, 누구의 말이야?」라고 말한 것이 묘사되고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본도인이 얼마나 일본제국의 언설을 엄격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고 해도 제국이 약속한 「일시동

14) 『文藝臺灣』 제 6권 2호, 1943. 6, P50

15) 『文藝臺灣』 제 7권 1호, 1943.12, P34

16) 『文藝臺灣』 제 3권 1호, 1940.10, P89

17) 『文藝臺灣』 제 6권 3호, 1943.7, P142

18) 주 4)와 동일

19) 줄고 「陳火天 「道」 論—語りからみる作品の<批判性>—」 『台湾日本語学会』 25호, 2009.6, P105-126

인」에 배반당한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 한편으로 태어나면서 일본인은 아무런 노력과 번뇌 없이 너무나도 간단히 황민이 되고 황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야유적 색채를 띠면서 대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작품 안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는, 언뜻 본 줄거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듯 보이는 부부간의 어긋남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道」는 청남부부의 빈곤생활을 그리고 있지만, 청남의 「대군의 방패가 되어 지금 우리들/ 기쁘게 용기내어 죽을 것이다/ 이미 버린 몸이니 욕심은 없다/ 그저 우리가 황민이 될 것이다」라는 당시 지원병을 고취하는 노래가 작품말미에 실려 있는 것은 바쇼의 성빈생활(聖貧生活)을 추구하는 남편의 배후에서 금전에 관심이 없는 남편으로 인한 부인의 고생, 황민이 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육군에 지원한 남편에게 버려진 부인과 4명의 어린 아이의 〈비명〉이 압살되려 하는 것을 고발하고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에서 보이는 비판성이 진화천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문맥 안에서 은폐된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텍스트 자체는 『문예대만』 편집자의 〈의도〉와 작가 진화천의 〈의도〉를 초월하여 식민지 정부가 선전하는 미사여구 이면에 있는 차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인 것이다.

陳火泉 「道」 と 『文藝台湾』

廖秀娟(元智大学助理教授)

一、はじめに

陳火泉「道」は、一九四三年七月の『文藝台湾』第六卷三号において発表された小説である。作品の粗筋は次の通りである。

主人公青楠は、専売局の製脳試験所に勤務する本島人である。樟腦の原動力となるかまどの改良に没頭し、台湾総督府殖産局長の推薦によって産業戦士勲章を受勲するほどの優秀な技師でもあった。しかし、にもかかわらず、三、四年前から検討されていた技手への任官は内地人の武田に敗れて失敗に終わってしまう。一時、神経衰弱に陥った彼だったが、ある日、今までの自分の中に、「国語」ではなく、あくまでも「本島人的な思想を、本島語で考へ、本島語で思」うところがあったことが問題だったのだと考えるに至り、それによって立ち直るきっかけをつかむ。そして、台湾陸軍特別志願兵に志願し、血を流すことによって、帝国との血の繋がりのない本島人から、皇民へと変身する〈道〉を築こうと図るのであった。

まず注目したいのは、『文藝台湾』の編集後記に次のように記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先づ新人陳火泉氏の「道」(百六十三枚)を読んで貰ひたい。前人未到のこの本島人文学については、すでに本文中の推薦の辞に於て詳しく述べられてゐるから、ここに再び繰り返すことはしないが、その内容から云つても分載は不可能である。如何に本社が多大の犠牲を払つて、一挙にこれを掲載する決意を固めたか、8ポイント活字を以てして尚、五十五頁を要したこの大作を読んで、どうかその理由を読者もよく考へていただきたい。「道」こそは、実に文字通りの問題作である¹⁾。ここに記されているように、「道」は四〇〇字詰原稿用紙で一六三枚、字数およそ六万五千字ほどの「大作」であったが、全文一回で掲載された。その分量は、それまでの『文藝台湾』にはない規模のものである。

そこで以下に本発表が照準を合わせるのは、まさにこの破格の扱いについてである。「如何に本社が多大の犠牲を払つて、一挙にこれを掲載する決意を固めたか、(中略) どうかその理由を読者もよく考へ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編集の言葉に着目し、そこに意図された「理由」というのがいったいどのような

¹⁾ 『文藝台湾』第六卷三号 1943.7、P172。

ものであったのかを探って「道」を考えてみるのが本発表のねらいである。

二、「道」の読まれ方

それではまず、「道」の研究史を簡単にたどっておきたい。「道」は、発表当時から、台湾文壇に確固たる地位を築いていた濱田隼雄・西川満の両名より高い推賞を受けていた。また、同年末の座談会「徴兵制をめぐって」では、神川清からも「皇民文学の結晶」だと評価されている²。しかし、戦後になると、鍾肇政によって「苛政と暴虐下に於ける、苦痛に満ちた抗議文学」³だとされ、作品の再評価が呼びか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れを契機として、「道」は抵抗文学として読まれ始めるようになったが、垂水千恵は、陳火泉が戦時中に参加した座談会、俳句、ないし同人誌に発表された作品を手がかりとして、陳火泉に当局への「抗議」の意図があったとは到底考えられないと結論づけている⁴。

先行論文における「道」の評価が、皇民文学か抗議文学かという争点を持っていることは、裏を返せば、同作品はいずれとも解釈可能な、両義的な要素を含み持った作品だということでもある。そこで、以下では、『文藝台湾』編集者が「道」を通じて読者に伝えたい〈思い〉とは何だったのかという点を焦点にしながら、「道」を再検討してみたいと思う。まず、西川満の「小説「道」について⁵」から考えてみる。西川は次のように「道」を評価している。

作の半分ぐらみまでは、首を傾け傾け読んだ。どうも荒削りである。助詞の間違ひも多い。が、後半に入って、私も亦臉を熱くした。これは大変な文学だと居すまひを正した。誰にでも読ませたいと思った。声をあげて読んだ。そしてその度に素直に感動した。(傍線筆者、以下同様)

周知のように、一九四〇年一月一日、西川の奔走によって台湾詩人協会に代わって台湾文芸家協会が設立され、その機関紙『文藝台湾』創刊号が発行された。それ以来、『文藝台湾』の編集方針は西川の思惑が大きく反映されたものとなった。したがって、西川の「後半に入って、私も亦臉を熱くした」の一言は『文藝台湾』の〈思い〉を探る際に重要なヒントを与えてくれるものだとい

² 座談会「徴兵制をめぐって」『文藝台湾』第七卷一号、1943.12、P17。

³ 鍾肇政「日據時代台湾文學的盲點一對『皇民文學』的一個考察」『聯合報』1979.6.1。日本語訳文は、垂水千恵「日本統治と皇民文学—陳火泉の場合」(『台湾の日本語文学』五柳書院1995.1、P83)に拠る。

⁴ 垂水千恵は「陳火泉は日本人の喜ぶ模範的な皇民像を描くことで、作家としての名声と、職場での昇進を手にいれようとした」のだと彼の意図を述べ、「道」の抗議文学としての可能性を退けている。「日本統治と皇民文学—陳火泉の場合」『台湾の日本語文学』五柳書院1995.1、P75—P101)。

⁵ 『文藝台湾』第六卷三号、1943.7、P142。

える。

では、西川を大きく感動させたという「道」の後半には、いったい何が描かれていたのだろうか。「道」は、主人公青楠が特務機関にいた経験を持つ武田との昇任争いに敗れたところで重要なターニングポイントを迎える。作品の前半において、青楠と係長との議論を通じて繰り返し描き出されるのは、次のような青楠の主張であった。すなわち、「尊皇攘夷」の日本精神を持てば、本島人であっても朝鮮人であっても満州人であっても皇民たりうるということ、そしてその一方で、(天皇の血を受け継ぐ)内地人であったとしても、その行動が日本精神に合致しない限り、皇民とはいえ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青楠が血統という壁を取り壊し、日本精神の有無から「よき日本人」の再定義を試みたところに重点が置かれている。しかし、後半に入ると、昇任争いに敗れた青楠は、日記の中で「菊は菊。花は桜。牡丹は、つひに、花にあらざるか!!天皇陛下万歳を叫んで死に得るものは皇軍のみであり、一身を捧げて国に殉ずるものは皇国臣民のみであり、島人われは、つひに、皇民にあらざるか?あゝ、つひに、人間にあらざるか。」と自らの心境を綴っている。つまり、従来の天皇信仰や統治政府の虚偽性を見破るという一種の到達点を得たのである。しかし、それにもかかわらず、脳裏にひらめいた「ツェーサツベエチユン多蝨不癢、ツェーゼエベエスユン多債不想」という台湾語の俚諺によって、本島人に与えられた差別問題を「国語」の問題に刷りかえていくのである。すなわち、青楠は自分が「本島人的な思想を、本島語で考へ本島語で思」ってしまっていることを、徹底的に「国語」の生活を追求しなかつたためであると考え、本島人としての自分が直面している、内地人による不当な差別をこのようなかたちで合理化しようとするのである。そうすることで内地人の本島人に対する不公平な差別待遇という問題はぼかされることになり、逆に徹底した「国語」生活を熱烈に追及する青楠の姿が焦点化・強調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ある。さらに、青楠は日本精神の具有による皇民資格の取得という従来の持論を放棄し、「同じ目標に向ひ、同じ敵に対して、本島人内地人と共に汗を流し、共に血を流さなくつては、皇民たり得ないのだ」と、血を流すことでしか皇民にはなり得ないのだと主張するに至り、ついには腺病質な体格を抱えながらも陸軍特別志願兵を志願することになるのである。ここで西川をして「臉を熱く」させ、「大變な文学だ」といわしめたものが見えてくるだろう。すなわち、作品後半に描かれた青楠の「国語」追求の徹底さと、血を流すことによって皇民たろうとする彼の決意である。この推論は『文藝台湾』の他の記事からも裏付けられる。

長崎浩、周金波、陳火泉、神川清を招いた座談会「徴兵制をめぐつて⁶」では、陳火泉の「道」へ言及したところが何箇所も出てくる。例えば、長崎浩は「陳さんの「道」の中には、主人公の心中の相尅が痛ましいまで描かれてゐる。徴兵制に対する島民の気持を突き詰めて行く、そこに大きな反省もあり、これ

⁶ 『文藝台湾』第七卷第一号、1943.12、P3-P17。

を契機に開拓してゆくべき新しい文学の道も示されてくるのではないですか。」と述べている。「道」において青楠が「赤い紙」をめぐって宮崎という日本人に言った言葉——「僕のことを考へてみい。君に、いつか召されるよろこびがあるが、僕には、その期待さへできはしない。のぞんでも得られないのだ」——がこの発言の根拠となったか、彼は「道」を本島の徴兵制実施と関連付けて論じている。

さらに、長崎は続けて国語の常用問題にも言及している。「国語の問題についても、「道」に一つの反省として語られてゐる言葉がありますね。はつきり覚えてはゐませんが、主人公が『国語で考へ、国語で思索することさへ自分には出来なかつたのか。』といふ所がある。深刻な反省だと思ひます。(中略) 徴兵制実施に当つて、實際的に国語修得が急務となつて来た訳ですが、本島青年だけでなしに在内地人も、国語が日本精神の血液だといふことを思ひ、国語を普及純化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ひます。これは台湾の文学者の一つの大きな使命でもありませう」。以上見てきたように、作品の後半に入って、青楠が長年追及してきた「よき日本人」の再定義の問題は、志願兵と国語常用の問題にすりかわっていく。そして作品世界の外においても、長崎浩、神川清⁷の発言から窺われるように、まさにそこが焦点化されているのである。

三、『文藝台湾』の転換

前述したように、『文藝台湾』の編集者は、「道」を一挙に掲載するという苦心を理解してほしいと読者に呼びかけるほど、「道」に大きな期待をいだいていた。その期待の内実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つたのかを明らかにする前に、『文藝台湾』が戦時下の台湾でどのような役割を果していたのかを究明する必要がある。

『文藝台湾』は一九四〇年一月に西川満によって創刊された台湾初の総合文芸雑誌であつたが、その発行機関である台湾文芸協会が台湾詩人協会から改組したものであつたため、初期の作品は詩作品がほとんどを占めていた。また、そこに掲載された作品の多くが西川満の色彩に満ちた「南国情緒」「異国趣味」的なものであつたことがやがて批判の対象にもなっていく。「エキゾチックなもの、例へば紅い色をした廟の屋根とか、城隍爺の祭りとか、媽祖の祭典とか、いふやうなものを多く素材に選んだため、見た目には非常に美しく珍しいが、ぐつと胸を打つて来る底力が比較的少ない⁸」、「文学作品の創作意図のうちにエクゾチックな情緒を狙うといふことは外地文学の邪道である⁹」とあるよう

⁷ 「徴兵制実施に当つて最後に唱へるのは、やはり此の 天皇陛下萬歳であると思ひます。そこに皇民文学の結晶を発見します。差しあたつて陳さんの「道」は、その水先案内であつたのだと思ひます。」(神川清「徴兵制をめぐって」『文藝台湾』第七卷第一号、1943.12、P17)。

⁸ 黄得時「台湾文壇建設論」『台湾文学』第一卷第二号、1941.9、P7。

⁹ 中村哲「昨今の台湾文学について」『台湾文学』第二卷第一号、1942.2、P3。

に、西川の異国趣味が批判されたのみならず、『文藝台湾』は西川個人の趣味の雑誌に過ぎない¹⁰として『文藝台湾』そのものの価値が否定されたのである。それらの批判を意識したせいか、一九四一年六月二〇日に閣議決定された志願兵制度の導入が契機となり、同年9月発行の第二巻六号には、志願兵をテーマにした小説、周金波の「志願兵」、川合三良の「出生」が掲載されたほか、戦争詩特集も組まれるなど、『文藝台湾』の編集方針は大きな転換を見せ始める。それ以来、『文藝台湾』は御用雑誌の色彩を徐々に色濃くしていくのである。

その役目の一つは、国語常用の鼓吹である。普段から周金波「囧仔の辯解」(第三巻第一号、1940.10)や新垣宏一の小説「城門」(第三巻第四号、1942.1)、河合譲「大東亜の言葉」(第四巻第四号、1942.8)を通して、国語常用の重要性を鼓吹している。また、二つ目は戦争の賛美である。特に一九四一年十二月八日の真珠湾攻撃を境に戦争を賛美する詩が多く出されている。さらに一九四二年から一九四四年一月の終刊にかけて毎年の十二月號で十二月八日の特攻攻撃を記念する詩集「大東亜戦争」が特集されている¹¹。そして、一九四三年、戦争が膠着状態に入った時には、高橋比呂美「国に捧げて」¹²のような、国の徴兵に喜んで応じる詩まで書かれているのである。

嘗つて名誉の赤紙を母に示し/弟は微笑を湛へながら云つた/「お母さん、私の體はもうお國のものです」と/その言葉の通り彼の體はお國に捧げられた/今大東亜戦下たとひお召には預からなくとも/私も亦決然と云へるのだ/「私の體もお國のものだ」と/國に捧げた銃後一億の體は/今こそ熱鐵となつて的撃滅に力闘してゐる (以下、省略)。

三つ目は政策宣伝である。一九四三年五月、皇民奉公会の傘下にあった台湾文芸家協会が改組して新たに台湾文学奉公会として編成しなおされたが、それが日本文学報国会台湾支部と表裏一体の関係であることは、支部幹事役員¹³が『文藝台湾』の同人とほぼ重なることから明らかであるし、また第六巻第二号の編集消息「荔月消息¹⁴」においてもそのことは公言されている。

『文藝台湾』第七巻第一号では、昭和二十年から台湾で徴兵制が施行される

¹⁰ 『文芸台湾』は、遂に小説を勉強する者のための機関ではなくて、趣味の雑誌に墮してはたなのである。(中略) 正に西川満君個人の趣味雑誌意外の何者でもない。」(鹿子木龍「文芸時評」『台湾公論』第四号、1942.4)。本文引用は『日本統治期台湾文学研究序説』(緑陰書房、2004.3、P36)に拠る。

¹¹ 『文藝台湾 詩集大東亜戦争』第五巻第二号、1942.12、P6-P32。『文藝台湾 詩集大東亜戦争』第七巻第一号、1943.12、P3-P32。

¹² 『文藝台湾』第六巻第六号、1943.11、P2。

¹³ 社団法人日本文学報国会台湾支部の「支部規定」では、「(支部長) 矢野禾積(理事長) 西川満(理事) 島田謹二、瀧田貞治、斉藤勇松居桃楼、張文環、山本孕江孕、濱田隼雄(幹事長) 濱田隼雄(幹事) 龍瑛宗」と支部の役員を公表する一文がある。(『文藝台湾』第六巻第五号、1943.5、P69)。

¹⁴ 『文藝台湾』第六巻第二号、1943.6、P50。

ことを以って、座談会「徴兵制をめぐつて」が企画され、その内容が全文掲載されているが、雑誌の末尾の編集消息において、『文藝台湾』の政策協力の姿勢が次のように明白に示されている。

本誌が皇民文学の樹立のための存在であることは、あらためて書きたてるまでもないが、全くのところこの目標の故に、われわれは固い同志的結合を以てこれまで歩んで来たのである。本號の座談会の内容など、われわれの方向をある程度まで讀者諸賢の前に披瀝したものと云つてよからう。¹⁵

『文藝台湾』が示したこのような「方向」を見れば、編集者が「道」に託した〈思い〉というのも容易に想像されるだろう。そこで問題となるのは、作家陳火泉が『文藝台湾』の編集者側の思惑を知っていた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ある。

陳火泉がいつ『文藝台湾』の同人になったのかは定かではないが、『文藝台湾』第三卷第一号の社報で小説短評の欄で「山高ければ」陳火泉君大きなロマンになりさうな素晴らしい素材を持つてゐるがまだテーマができてゐない。小説の構成とは何かを知り、もつとまともに取りくんだらと思ふ¹⁶とあるように、陳火泉の作品「山高ければ」を評論する文が見当たることや、濱田隼雄の「小説「道」について」の中で「陳君は一年以上も前矢張り製脳人を描いたことがあつたが、その時は僕はじっくり長編をかくべきだと云ひ、それを忘れてゐた頃この作がとどけられたのである¹⁷」と述べられていることからみれば、陳火泉は、少なくとも一九四〇年十月には『文藝台湾』の同人と交渉を持ち、投稿なども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したがって、陳火泉は『文藝台湾』の御用文学としての姿勢は十分に承知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したがって、『文藝台湾』の編集側が喜ぶテーマ、すなわち志願兵や国語常用の問題を作品の素材にした陳火泉に対して、「日本人の喜ぶ模範的な皇民像を描くことで、作家としての名声と、職場での昇進を手にいれようとした¹⁸」というような批判が浴びせられたとしてもそれはやむを得ないことだろう。とはいえ、それが「道」という作品の読みに対して一義的な制限を加えてよい理由にな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にも十分注意しておきたい。つまり、「道」というテキスト自体に潜む〈批判意識¹⁹〉もまた見逃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る。

四、テキストの反逆

¹⁵ 『文藝台湾』第七卷第一号 1943.12、P34。

¹⁶ 『文藝台湾』第三卷第一号 1940.10、P89。

¹⁷ 『文藝台湾』第六卷第三号 1943.7、P142。

¹⁸ 注(4)と同じ。

¹⁹ 拙作「陳火泉「道」論—語りからみる作品の〈批判性〉—」『台湾日本語学会』25号、2009.6、P105-126。

作品の前半、内地人の係長が、青楠の昇任失敗の原因を彼自身が「本島人」であったことに求めた姿が描かれているが、このことは、植民地政府の「一視同仁」というスローガンの裏に隠された差別もまた同時に暴き出している。また、戦時下の国民に決戦を宣揚する〈模範〉になった芭蕉を熱烈に追求する青楠の姿に対比するかたちで、武田が「また芭蕉か?」と言ったことや、宮城が「それ、だれのことばかね?」言ったことが描写されているが、それによって、本島人がどれだけ日本帝国の言説を真摯に受け止めそれに基づいて行動したとしても、帝国の約束した「一視同仁」に裏切られることが避けられないこと、その一方で、生まれながらの日本人は何の努力や煩悶もせずに、いとも簡単に皇民になり皇軍になりうるということが、皮肉を滲ませつつ対比的に浮き彫りにされている。

そして、もっと深く掘り下げてみると、作品の中で何回も繰り返される、一見本筋とは何の関連もないように見える夫婦間の齟齬も深い意味を持ってくるのである。「道」は饒舌に青楠夫婦の貧困生活を描いているが、青楠の「大君の御楯となりていまわれら/喜び勇んで死ぬべかりけれ/すでにして捨てし身なれば欲はなし/ただ御民われとなりてしやまん」という、当時の志願兵を鼓吹する歌が作品末尾に配置されていることは、芭蕉の聖貧生活を実直に追求する夫の背後で金の無心に苦勞する妻の心勞や、皇民になる資格を手に入れるために陸軍に志願した夫に捨てられた妻と四人の幼い子供の〈悲鳴〉が圧殺されようとしていることを告発してもい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な作品にみられる批判性が、陳火泉によって意図的に文脈の中に隠されたものなのかどうかは明らかではない。しかし、テキスト自体は、『文藝台湾』編集者の〈思い〉や作家陳火泉の〈意図〉を越えて、植民地政府の喧伝する美辞麗句の裏にある差別の実相を赤裸々に描き出していることは疑いない事実なのである。

서동주(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황민화시기 문학을 바라보는 시점과 그 의의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도 식민지 시기(일제강점기)의 문학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재평가의 핵심은 해방 이후 식민지 시기 문학연구에서 공식담론의 역할을 해왔던 이른바 '민족주의적 시각' 혹은 '민족해방적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족주의 문학(저항문학)과 친일문학(협력의 문학)을 선별하는 데 집중했던 기존의 연구태도를 상대화하고, 나아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친일(협력)과 반일(저항)의 이분법이라는 식민지 시기를 바라보는 고착화 된 시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제국일본의 전체주의적 지배 속에서 실제로 협력과 저항이 과연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1940년대 이후 총동원 체제 속에서 유의미한 저항의 거점이 과연 얼마나 존재했는가라는 문제의식에 촉발된 바가 적지 않다. 따라서 연구의 논점도 협력과 저항을 구분하는 것에서 제국의 지배가 식민지에서 어떻게 관철되었으며 제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배체제 속으로 포섭(동원)했는가라는 '지배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른바 문학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은 좀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관통하는 기조(基調)되는 의미의 존재를 승인하더라도, 텍스트는 동시대의 관련되는 담론과 표상 그리고 관념체계와 다양한 교섭의 산물—그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에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텍스트가 구조적으로 지배 담론과의 긴장관계 속에 놓여짐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그 긴장 관계를 통해서 지배 담론의 작동 방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때때로 그것이 장악하지 못한 '공백' 혹은 '틈새'를 드러내는 일이며, 다른 한편으로 저항의 담론마저 포섭해 가는 지배의 교활함과 역동성을 포착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陳火泉의 「道」에 대해 친일문학인가 저항문학인가라는 기존의 독해방식을 상대화하면서,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식적으로 조응하면서도 바로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거역하는 요소가 공존하는, 달리 말하면 어떤 모순적 양면성을 구조화 한 텍스트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발표자의 시도는 현재의 연구동향과 깊이 공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식민지 조선과 식민지 타이완에서 특히 1940년대 황민화 시기 문

학의 존재양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한 귀중한 연구 성과라는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본 논문이 갖는 이상과 같은 학문적·현재적 의의를 전제한 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1. 1940년대 타이완의 일본어문학을 재조명하는 작업에서 陳火泉이라는 작가 그리고 「道」라는 텍스트가 차지하는 위상 혹은 의미는 어떤 것인가? 당시 국어(일본어)의 권장과 및 징병제 실시를 협력의 관점에서 주제화한 텍스트는 「道」만이 아닐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 작가와 텍스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道」라는 텍스트와 陳火泉이른 작가가 황민화 시기 타이완문학에서 갖는 고유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2. 논문의 마지막 부분(四, テクストの反逆)에서 「道」라는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제국을 향한 비판성의 문제를 여러 논거를 들어 논증하고 있다. 여기서 발표자는 주인공이 주위의 일본인으로부터 '제국의 신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건은 '一視同仁'을 주창하는 제국의 배신을 의미하며, 여기에 일본인과 비일본인(타인완인)에 대한 제국의 차별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은 신민이라는 정체성에 자각적이지 못한 일본인이 진실한 타이완인의 신민으로의 변신을 가로막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일견 제국에 대한 비판으로 보이지만, 이상적 황민과 현실의 황민(소설 속의 일본인)을 구별한 위에서 결국 이상의 실현을 가로막은 현실의 문제를 지적할 뿐, 황국신민으로의 '道'이라는 이상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국에 대한 비판으로 읽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발표자는 황국신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방치된 빈곤에서 텍스트의 지배에 대한 반역을 읽어내고 있지만, 실제로 1940년대 식민지에서 생산된 다수의 일본어문학작품은 식민지의 빈곤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빈곤은 「道」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제국의 중심을 향한 정신적 기투(企投)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빈곤을 다루는 것 자체가 바로 지배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문제를 포함해 이 텍스트의 비판성에 대한 좀더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한편 「道」가 갖는 비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텍스트의 비판성을 규명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道」가 실린 〈文藝臺灣〉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西川滿가 창간한 일본어잡지로서 타이완 현지의 문단에서는 타인완인 문학자가 중심이었던 〈臺灣文學〉과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양 잡지는 타이완 문단을 양분하는 중요한 미디어였음은 분명하지만—독자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알 수는 없지만—잡지의 성격상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타이완어도 아니고 일본어로 쓰여졌으며 일부 지식인 집단 사이에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道」의 비판성을 끌어내고, 당시 타이완 문학계를 리드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

던 陳火泉를 친일문학라는 규정에서 '구제'하는 것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텍스트의 의미를 일의적(一義的)으로 귀착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소수의 지식인 사이에서 당시에는 인지되었을 여부도 불분명한 텍스트의 비판성을 언급하는 것의 의의는 무엇인가?

* 우선 이상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의문은 발표회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ソ・ドンジュ(ソウル大學校日本研究所 HK研究教授)

皇民化時期の文學を読み取る視点とその意義

1990年代後半以後、韓国も植民地時期(日帝強占期)の文学に対する再評価の作業が活発に為されている。この場合の再評価の核心は、解放以後の植民地時期の文学研究で公式談論の役割をしてきた所謂「民族主義的視角」あるいは、「民族解放的視角」に対する問題提起だと言える。即ち、民族主義文學(抵抗文學)と親日文學(協力の文學)を選別するのに集中していた既存の研究態度を相対化し、ひいてはより広い意味で親日(協力)と反日(抵抗)の二分法という植民地時期を読み取る固着化された視角をどのように克服するのかという問題が重要な課題として浮上した。このような認識の転換は、何よりも帝国日本の全體主義的支配の中で実際に協力と抵抗がいかに鮮明に区分され、特に1940年代以後の總動員體制の中で意味有る抵抗の拠点がいったい、どのくらい存在していたのかという問題意識に触発されたところが少なくない。したがって、研究の論点も協力と抵抗を区分するもので帝國の支配が植民地でどのように觀察されており、帝国はどのような方式で人々を支配体制の中で、包攝(動員)したのかという「支配の問題」として転換された。

しかし、この場合にも所謂文学テキストを扱う方式はもう少し細心の注意を要求する。なぜなら、テキストを貫通する基調とされる意味の存在を承認するとしても、テキストは同時代の関連した談論と表象、そして觀念体系と多様な交渉の産物—それがどのような政治的目的のため作られた場合にも一—というわけである。そして、これはテキストが構造的に支配の談論との緊張関係の中に置かれていたことを意味する。重要なことは、この緊張関係を通して支配談論の作動方式を見せてくれたと同時に時折、それが掌握できなかった「空白」あるいは「隙間」を顕にすることであり、一方で抵抗の談論までも動員していく支配の狡猾さと逆動性を捕捉す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な視点で見たとき、陳火泉の「道」に対する親日文學なのか抵抗文學なのかという既存の讀解方式を相対化しながら、帝國の支配のイデオロギーに意識的に照応されながらもまさに帝國のイデオロギーを拒逆する要素が共存している。言い換えると、ある矛盾のある両面性を構造化したテキストという新しい意味を付与している発表者の試みは現在の研究動向と深く共鳴しているだけでなく、その後植民地朝鮮と植民地台湾で特に1940年代の王民化時期の文学の存在様相に対する総合的な理解のための貴重な研究の成果という意義を持っていると考える。

ここでは、本稿が持つ以上のような学問的、顯在的意義を前提とした上で次の質問を提起したいと思う。

1. 1940年代の台湾の日本語文學を再照明する作業で陳火泉という作家、そして、「道」というテキストが占める位相もしくは意味はどんなことか。当時、国語(日本語)の勸奨と徴兵制の實施を協力の觀點から主題化したテキストは「道」だけではないだろう。そのような状況で特にこの作家とテキストに注目する理由は何であるのか。言い換えれば、「道」というテキストと陳火泉のような作家が王民化時期の台湾文学で持つ固有の意味は何なのか。

2. 論文の最後の部分(四、テキストの反逆)で、「道」というテキストが内包している帝國に向かった批判性の問題を諸論拠をあげ、論證している。ここで発表者は主人公が周囲の日本人から「帝國の臣民」として認定できない事件は、「一視同仁」を主唱する帝國の背信を意味し、ここに日本人と非日本人(台湾人)に対する帝國の差別を現している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むしろこの事件は、臣民という正体性に自覺できない日本人が眞実の台湾人の臣民としての変身を妨げる現實を告發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これは、一見帝國に対する批判として見えるが、理想的王民と現實の王民(小説の中の日本人)を区別したために結局理想の實現を妨げる現實の問題を指摘しただけで、王国人民としての「道」という理想を否認してはいない点において帝國に対する批判として読むことに無理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また、発表者は王民人民のイデオロギーによる放置された貧困でテキストの支配に対する反逆を読み取っているが、実際に1940年代の植民地で生産された多数の日本語文學作品は、植民地の貧困を描いている。ここで貧困とは「道」と同じように主人公の帝國の中心に向かった精神的企投を説明させるようにした仕掛け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事情は貧困を扱うこと自体が、まさに支配に対する批判として連結されないかもしれないことを見せている。以上の問題を含みこのテキストの批判性に関する説明がもう少し必要だと考える。

3. 一方「道」が持つ批判性を認定するとしても次のような質問を提起し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いったいこのテキストの批判性を糾明することが持つ意味は何なのか。「道」が掲載された<文藝臺灣>は、周知の通り 西川滿が創刊した日本語雑誌として台湾現地の文壇では台湾人の文学者が中心であった<臺灣文學>と競争的關係を形成していた。両雑誌は、台湾文壇を両分する重要なメディアであったのは明らかであるが一讀者層に対する正確な実体がわからないが一雑誌の性格上、知識人の集團を中心として受容されていたであろうと推測される。台湾語でもなく日本語で書かれており、一部の知識人の集團の間で受容されていた可能性が高い「道」の批判性を導きだし、当時の台湾文学界をリードする位置にあったわけでもない陳火泉を親日文學という規定で「救濟」することの意味はいったいどこにあるのか。テキストの意味を一義的に歸着させているのも問題であるが、少数の知識人の間で当時は認知されていたかどうか不明なテキストの批判性を言及することの意義は何なのか。

* まず、以上の3つの質問をし、そのほか細かい疑問は発表会の席を借りて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제국일본의 「문화외교」에 관한 소고 帝国日本の「文化外交」に関する小考

- 金彌東 (세명대 교수)

指定討論 - 南相虎 (경기대 교수)

프 로 필

김필동(金彌東, Kim Pil-Dong)

세명대학교 교수 일본사상/문화

■ 주요저서 및 논문

『일본 일본인론의 재발견』 J&C, 2007.2

『일본의 정체성』 살림출판사, 2005.7

『근대일본의 민중운동과 사상』 J&C, 2005.6

「戦後日本の対外経済協力構想に関する少考」 『일본학보』 2009.5.31

「日本の国際地位変化と欧米文化外交の推移」 『일본학연구』 2009.5.31

「戦後日本外交史における「文化外交」の推移と意味」 『일본학보』 2008.5.31

「戦後日本外交史における文化外交研究－1960年代を中心に」 『일본학연구』 2008.5.31

외 다수

제국 일본의 ‘문화외교’에 관한 소고

김 필 동(세명대학교일본어학과 교수)

들어가며

인류사에 있어서 문화를 매개로 한 교류의 역사를 ‘문화 교류’라고 이해할 경우, 교류의 형태는 이문화끼리의 자연발생적인 접촉에 의한 교류와 나라라든지 집단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며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교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근대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문화 교류’라고 하면, 주로 후자의 형태를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경우도 세계2차대전 전부터 후자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문화 사업’ ‘문화 공작(文化工作)’ ‘문화 외교’의 관점에서 교류 정책을 추진했다. 즉, 문화 교류의 하나의 속성이기도 한 자연발생적인 측면에 나라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 함으로써, 일본 문화의 목적 지향적 해외 전파와 일본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구했다.

필자는, 일본 사회의 ‘일본 문화’를 둘러싼 통합적 가치의 형성과 그것을 활용한 ‘외교’적 활동의 역사를, 근현대의 ‘일본식 가치’의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유력한 사례로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 정책과 문화 교류의 외교적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는 문화 외교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저절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일본의 ‘문화 외교’를 분석하는 연구사적 의미를, 필자의 종래의 일본 문화 연구 방법론과 관련지어 파악하는 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문화 외교에 있어서의 제국 일본의 ‘일본 문화’의 이해, ‘문화 외교’의 개념, 그리고 문화 외교의 인식 배경과 체제 구축 과정 등을 분석했다.

1. 문화 외교 연구의 시점과 배경

1) 본 연구의 관점

필자는,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 연구의 심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우선 일본·일본인·일본 사회가 체현하는 일반적 정서와 심리 및 전통적인 사유 양식이 반영된 문화 양태를, 통사적 관점 내지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일본 문화 연구’로 파악하고 나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개의 전제 조건(문제 의식과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¹⁾.

하나, 일본인의 의식 구조와 행동 양식, 전통 사상과 관행, 법과 제도(혹은 키 컨셉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논점)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일관된 논리로, 일본의 사회 문화의 제현상을 규정하는 내면적 특성을 분석하는 문제 의식, 예를 들면, 의식 구조와 행동 양식의 분석→그것을 잉태하는 사회구조의 분석→일본 문화의 특징 해명→ 타문화와의 비교 시점의 확보이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 연구의 생육 기반의 강화를 위해서도 요구되어야 할 조건이다.

또 하나는, 문제의식을 객관적인 결과로 이끌어내기 위한 폭넓은 자료 수집과 과학적 연구 방법론의 단련이 필요하다. 특히, 방법론으로는 예를 들면, 현실 생활에서의 일본인의 사유 양식의 독자성의 분석, 사유 양식과 그 집합체인 문화 양태의 상관관계 분석, 그 결과로 규정된 제도와 관행 등이, 또한 일본인의 의식 세계를 속박하는 형태를, 연속·순환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의 단련이다.

따라서, 제국 일본의 ‘문화 외교’의 전체상을 분석할 때,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국제 정치 구조와의 관련성 안에서 파악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1) 일본인의 사유 양식과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등이 역사를 통해서 형성해 온 인식론적·실천론적 사유 양식의 특징, 2) 그것이 일본의 국제적 지위 변화를 반영한 ‘외교’ 정책과 결부되어 가는 과정, 3) 그 결과적으로 일본의 식 가치의 확대 재생산→새로운 국가 이미지 창출→세계의 ‘생활 문화’의 일본화 촉진 메카니즘의 해명 등이다. 요컨대, 일본의 ‘문화’와 그 ‘문화’가 발하는 제가치를 중시하는 ‘일(日)²⁾의 사유 양식, ‘외교’를 매개로 해서 추구하려 한 목적 지향적 가치 및 그 결과와 의미를 실증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 본 연구의 시대사적 배경-사상·문화적 관점에서의 역사성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힘의 원천의 변화(The changing sources of power)를 주창한 조셉·S·나이는, 일본은 1930년대의 대동아공영권(Greater East Asian Co-Prosperty Sphere)을 창설하려고 한 군사 전략보다, 1945년 이후의 통상 국가(trading state)로서 사는 전략이 일본에 있어서 훨씬 더 좋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대를 따르게 하는 힘(command power)이라는 면에서는, 일본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군사력도 상대적으로는 약하고, 특히, 상대를 끌어 들이는(co-optive) 중요한 힘인 문화면에서는, 일본은 지극히 고립하고 있다고 한다³⁾. 한마디로 하면, 경제성장 전략은 향후도 유효하겠지만, 문화적으로 고립(insular)하고 있으면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어렵다고 하는 논리이다.

문화력이 발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세계적인 지지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문화력이 일본을 이기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일본 문화가 고립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논리는 편협적이고, 오리엔탈리즘적 발상이다. 포스트냉전 시대에 있어서의 문화적 파워는, 그 정치적 영향력보다는 생활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제대국이란 지위에 편승하여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서브·컬처의 영향력을 조셉은 놓치고 있고, 그의 인식을 비웃 듯 ‘쿨·재팬’의 세계화는 강해지고 있다. 그 지지가 지금은 일본의 문화 외교의 발상까지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21 세기에 있어서 일본의 문화 대국화라는 야망을 가능하게 하게 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금 ‘문화 외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영향력은, 국제사회를 지배한 20 세기 가치의 붕괴와

1) 拙論『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論』展開に関する一考察』『日本学報』第58輯、2004.3参照

2) 여기서 말하는 ‘일’은 일본, 일본인, 일본사회의 총칭이다.

3) Joseph·S.Nye,Jr: *BOUND TO READ: the chandind nature of American power*, Basic Books, 1990, 29~33頁

함께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GNC'가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듯이, 이미 일본 사회는 근대의 부국 강병론이나 전후의 부국(=경제력) 논리를 넘어 또한, 아시아에 대한 문화 우월 의식이나 서구 콤플렉스를 넘어 일본 문화의 재평가와 확대를 통한 문화 대국 일본의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흐름은 '문화 강국'을 꿈꾸고 있는 한국 사회에 많은 일을 생각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본 연구를 재촉하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상·문화적으로 놓칠 수 없는 역사성이 몇가지 있다.

첫째, 일본의 문화 외교의 생육 기반으로서는 일본의 국제 문화 교류와 일본 문화 형성의 역사적 기반('국제 교류'를 통한 '수용'과 '발신'의 역사)을 중시해야 하고, 거기서부터 일본 문화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역사성이다. 즉, 끊임없이 나라의 문명·문화 진화의 원동력으로서 선진 문명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그것을 '일본화'하는 '창조적 수용'을 실천해 왔다.

둘째, 역발상에 의한 일본식 가치의 대외 지향성이다. 문화적·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확실히 세계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일본은 한 번도 세계의 중심으로 서는 일은 없었다. 그것을 밖에서는 일본 문화의 '고립'이라는 시점에서 보려고 하지만, 일본은 그 한계를 반대로 민족 번영과 대외 '팽창'을 위한 활로로 적극적으로 바꾸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일본식 가치'의 대외 확산이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 확산되게 되었다고 하는 역사성이다.

셋째, '문화'에 의한 외교라고 하는 발상이, 이미 제국 일본의 대외 팽창 과정에서 구상되어 실천되었다고 하는 역사성의 증시이다. 문화 외교에 관한 인식은, 1920년대를 지나면 구체성을 띠며 나타나게 된다. 杉村陽太郎의 경제 건국과 문화 정책 구상, 越智元治와 柳沢健의 국제 문화 사업 구상, 三枝茂智의 문화 건국책 구상, 松本学の 문화 국제연맹 구상 등이 대표적이다⁴⁾. 이러한 구상 속에서, 일본 문화의 해외 소개, 학술·문화 교류의 확충, 일본식 가치의 전파, 일본 문화의 학문적 연구 기반 구축과 대외 문화 정책과의 제휴, 문화 외교나 국민 외교론의 제창 등이 주창되어 오로지 그 이념과 방향성이 계승되고 있다.

넷째, '문화 외교'는 21 세기의 일본 외교가 지향하는 국가 전략의 요체라고 하는 점이다. 조셉·나이아가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그 나라가 내면으로부터 자아내는 매력)으로서 소프트·파워를 주창하고 있듯이⁵⁾, 오늘의 국력과 외교력에 있어서의 문화의 영향력은 더욱 더 강해지고 있어 정치·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과 맞물린 '글로벌한 문화 시스템'⁶⁾의 성숙도 현저하다. 그 때문에 일본은, 21 세기의 국력으로서 문화력(전통 문화+현대문화)의 중요성을 범국가적으로 재인식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국민적인 에너지를 결집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의 국제적 지위 변화와 문화 외교와의 깊은 관련성이다. 예를 들면, 패전국→전후 부흥→국제사회 복귀→평화 국가→고도 경제성장→경제 선진국→경제대국→국제 국가→문화 대국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정세 변화나 그 안에서의 일본의 역할(국가 이미지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을 잘 판별하면서, 보다 국가화·전략화된 형태로 '일본 문화'의 전략적 발신을 해 왔다.

4) 芝崎厚土『近代日本と国際文化交流』(有信堂高文社、1999), 「第三章 誕生、1 対外文化政策の構想」参照
 5) Joseph S. Nye, Jr 『SOFT POWER-The Means Success in World Politics』Perseus Books Group, 2004参照. Joseph에 의하면'소프트파워'란 행동원리에서 보면 내 편으로 끄는' 매력의 힘(power of attraction)'이며, 그 힘을 끌어내는 관련성 높은 것으로 제도, 가치관, 문화, 정책 등을 들고 있다. 『SOFT POWER』5~11頁
 6) Martin Show는, "개개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에 대한 고집과 같이 개개의 관념과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집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보편적인 문화의 성장은 현저하다"고 하면서, "q다 중요한 것은 경제, 정치의 글로벌리제이션과 맞물리면서 이들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공통의 기대와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을 보게 되고 있다. 이들 문화적 규범에는 생활수준, 생활양식, 복지 권리, 시민권, 민주주의, 민족적, 언어적 권리, 독립국가로서의 지위, 성의 평등, 환경수준 등의 관념이 포함된다."고 한다.그리고, 이들 관념의 대부분은 서구에 기원을 두나,각각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큰 해석의 차이를 동반하면서도 세계속에서 더욱 생활양식과 정치이론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글로벌한 문화, 특히 글로벌한 정치문화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グローバル社会と国際政治』高屋定国・松尾眞訳、ミネルヴァ書房、1997、29~30頁

2. 문화 외교에 있어서의 ‘일본 문화’의 이해와 ‘문화 외교’의 개념

근대 이후 일본의 지식인 사회는, ‘문화’를 독일어의 문화 개념을 차용하여 ‘고도의 정신적인 소산’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다. 영어 용법이 섞인 독일어 용법에 있어서의 ‘문화’의 개념은 ‘품위가 있는 용어, 중량감이 있는’ 용어로서의 ‘Kultur’이며, 이것은 ‘18세기 이래 게르만 국민의 언어와 본질의 모든 차원에 있어서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⁷⁾

당시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문화’는, 지식인들의 전유물과 같이 인식되어 있었고, 그 의미에서 18세기의 학문, 예술 등 정신 분야에 있어서의 게르만 민족의 활약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시대 목표 인식이, 그대로 ‘문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단지, 이 경우 ‘문화’는, 정신적·도덕적 향상을 도모하는 교양과 일체화되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도 높은 수량을 갖춘 엘리트 계급에 한정되어 버려, 대중은 배제된다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서양의 문화 발달 과정을 특징지은 이 귀족주의적 개념이, 근대 일본의 지식인 사회를 그대로 지배했다. 메이지 초기 문명개화를 주도한 계몽적 지식인들의 우민관에 그 실체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었으며⁸⁾, 전제 정부에 대항한 자유민권운동가들의 사유 양식에도, 민중들의 의식 세계와는 떨어진 차원에서 ‘문화’가 주창되고 있었다⁹⁾.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지식인에 의한 비판적 고찰도 있지만¹⁰⁾, 어쨌든 문화에 대한 협의적 이해와 문화 형태를 엘리트층의 독점적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발상에 변함은 없었다.

하지만, 제국 일본의 본격적인 대외 침략과 그것과 맞물려 일본 문화의 대외 ‘선양’ 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문화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탄력적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즘 제국 일본의 대외 문화 사업을 주도한 三枝茂智였다. 三枝는, 문화와 문명을 동일 개념으로서 파악하고, ‘경제적 생활, 예술 활동, 정치생활, 종교 생활, 지적 생활의 진보 발달’로서, 즉, ‘사회 생활의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¹¹⁾한다고 정의했다.

이것을 문화의 ‘가장 광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는, 좀 더 ‘협의’적으로 해석하면 ‘순수의 가치장 또한 정신적 문명이라고 하는 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물론 그 외에도, 가치라고 하는 방면을 주로 그 존재의 방면으로서 있는 사물 즉 주로 가치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물도 우리의 목적 주관을 가미해서, 이들 모두를 문화라고 하는 문자, 문화재라고 하는 문자 안에 넣을’ 수가 있으며, 문화 사업 담당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¹²⁾

近藤春雄도 뒤를 이었다. 近藤는, 문화와 문명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 서있지만, 문화라고 하는 개념의 다양성은 문화 활동의 다각성을 낳으므로, 문화 외교의 내용도 학술, 예술 등의 정신적 노작(勞作)에서 기술적 축적의 교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近藤가 말하는 ‘기술적 축적’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지만, 현실 생활에 있어서의 일본의 선진적 문화재 일반까지, 예를 들어 ‘종래 직공의 생업으로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않았던 정원술이라든지 염색방법까지 하나의 큰 일본 문화의 한 분야로서 다루어져 새로운 가치’¹⁴⁾를 부여하려고 하는 생각이다.

7) Mare Fumaroli 『文化國家—近代の宗教』(天野恒雄訳)、山陽社、1993、188頁

8) 拙論『啓蒙思想に関する少考』『日本学報』第71編(2007.5.30)参照

9) 拙論『自由民権運動の‘在地化’過程に関する研究』『日本学報』第61編(2004.11.30)参照

10) 田中耕太郎는 明治이래 일본의 문화는 항상 지배계급과 엘리트층이 지배해왔다고 하면서, 문화향유의 주체는 말할 필요없이 국가가 아니라 민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國際文化運動の理念』『改造』1937年1月号、8~9頁

11) 三枝茂智 『極東外交論策』斯文書院、1933、627頁

12) 三枝茂智 『對外文化政策に就て』『支那』(1931年、8月号)、17頁

13) 近藤春雄 『文化外交の思想的背景』『外交時報』76号、1934、参照

14) 宮城望 『文化宣揚と文化宣伝』『國際文化』第5号、國際文化振興會、1939、5頁

이것은, 일본의 ‘문화 선양’을 위한 일본 문화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에 따라 ‘문화 사업’의 대상까지도 정신적 문명과 학문의 대상이 되는 개념에서, 상품과 같은 문화 가치를 표현하는 문화적 재화까지 확대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문화적 재화에 둘러싸인 생활 문화의 중시라고 하는 발상, 즉, 문화를 일상적인 관점에서 다시 읽으려고 하는 의지 아래에서, 일본 문화의 발신 능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시도이다.

이 경위에 입각해서 정의해 보면, 우선 일본의 이데오로그측이 생각하고 있는 ‘일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미와 정신이 녹아 있는 문화재적 유산으로부터, 일본인의 규범 의식이나 제가치가 반영되고 있는 유·무형의 사회적·지적 자산, 그리고 현대의 생활 양식을 둘러싸는 다양한 문화적 재화까지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문화 외교’란, 이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일본 문화의 매력’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외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고유의 정신적·물질적·기술적 소산으로서 폭넓은 범위에서 계승·창조되고 있는 제문화 가치를, 교류·교섭·정책의 일환으로 대외적으로 활용하여,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일본의 이미지 개선, 지위 향상, 국제 협력 등을 도모해 가는 전략적, 목적 지향적 외교 활동의 총체가 ‘문화 외교’이다.

3. 제국 일본의 ‘문화 외교’의 인식과 체제 구축

1) 제국 일본의 대외 문화 사업 구상

근대 일본이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반영한 외교 원칙이라고 한 것을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러일 전쟁 직후이다. 근대 이후 일본의 국제 문제는, 조약 개정, 군비의 충실, 한반도에 있어서의 지배권의 확립 있어서의 지렛에 집중되고 있었지만, 러일 전쟁 후 지나라의 독립과 사명이란 무엇인가, 일본이 세계의 일국으로서 해낼 수 있는 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은 무엇인가, 국제 문제란 어떤지인가, 세계의 동향은 어떻게 변해가려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일본은 어떻게 나아가것인할지인가, 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 국제¹⁵⁾

제1차 대전 후 일본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여, 당시 국제 문화 교류 사상 특기해야 할 사건으로서 주목을 받은 ‘지적 협력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Cooperation)’에 적극적으로 협력함과 동시에, 국책으로서의 문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22년 외무성에 ‘대지문화 사업 특별 회계’를 설치(이듬해 ‘문화 사업부’가 됨)하여, 예산 300만엔 규모로 대 ‘支那’ 문화 사업을 시작했다.¹⁶⁾

이 즈음부터 일본의 식자층은, 국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 처럼 해외와의 문화 교류 사업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須磨彌吉郎과 柳澤健이다. 스페인 특명 전권 공사를 역임한 須磨는 ‘동양 문화 외교 시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 일본의 국제적 지위 변화와 맞물려, 문화를 외교의 핵심 영역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했다.¹⁷⁾ 柳澤健은 ‘국제 문화 사업’을 ‘학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내지는 스포츠라든지 하는 소위 문화적 방면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 활동’으로서 평가하여 ‘문화 외교’를 정치·경제 외교와 함께 외교의 3대축의 하나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화 외교는, ‘단순히 일국의 정치·경제적 방면의 활동 도상에 있어서 분쟁 방지라고 하는

15) 入江昭 『日本の外交』中公新書、1966、6~7頁

16) 外務省文化事業部 『国際文化交流の現状と展望』大蔵省印刷局、1973、8頁

17) 須磨彌吉郎 『東洋文化外交試論』『外交時報』490号、1925、

소극적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일국의 정치·경제 활동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경제·문화라고 하는 ‘삼면의 외교 활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한 근본적인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며, 그 의미에서 대외 문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하는 유럽 제국의 논자들의 주장은 올바르다고 역설했다.¹⁸⁾

그 후, 체계적인 대외 문화 정책 구상이 연달아 제기되었다. 三枝茂智는, 유럽 제국이 대외 문화 사업을 통해서, 1) 자국의 국수주의 유지, 2) 자국 언어를 여러 나라에 소개, 3) 자국 문화를 여러 나라에 옮기게 하는, 4) 자국 가치의 세계적 인식을 촉진, 5) 외국인의 인심을 수렴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였다.¹⁹⁾ 유럽 열강이 ‘자기 나라의 영역을 외국인의 관념계에 넓혀’ 감으로써 ‘자국 민족의 존립 발전에 유리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전략을, 문화 사업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三枝에 의하면, 일본은 지역적 기반으로서 ‘왜냐하면 국수문화 선전전에 있어서, 우리는 절호의 전략 지점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문명적 관점으로부터도 ‘일본주의, 인도 철학, 유교 정신 등을 집대성하고’ 있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세계 문화의 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 좋든싫든 ‘가치의 세계’의 왕좌에 군림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世界 一全의 최고 문화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²⁰⁾

대외 문화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 정신’을 세계에 발신하려고 하는 의도는, 우선 ‘대동아’로 향해졌다. 그 중에서도 주요한 공략 대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었다. 당시 일본은, ‘滿州國을 育成하고 同國과의 特殊不可分한 關係를 더욱 鞏固하게 하고, 世界的 見地에서 蘇支兩國과의 關係를 自主적으로 調整함과 동시에, 南方方面에 平和的發展進出을 꾀하고’ 그럼으로써 東亞에 있어서의 ‘安定勢力’을 확보하고, 그리고 ‘제국의 존립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제국 외교의 중추 방침’으로 정하고 있었다.²¹⁾

제국 일본의 ‘大支那’ 문화 정책의 중시를, 芝崎厚史는 ‘대 중국 문화 사업을 통해 동방 문화의 선양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열강에 이해시키는 행위’²²⁾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대륙 제국’의 지위를 확보한 일본이, 그 다음 ‘지도 정신’의 실천을 통해 ‘문화제국주의’의 실현에 나선 것을 의미한다.

제국주의 정책으로 가장 교묘한 것으로 말해지고 있는 ‘문화제국주의’는, 영토의 정복이나 경제 생활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목적은 ‘양국간의 힘 관계를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고 제어하는’ 일에 있다.²³⁾ 특히, 문화제국주의의 실현은 계량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매력에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식자층은, 일본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근대 문명의 선구자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제국 일본의 문화적 리더쉽의 발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그 역할을 강하게 주장한 인물이 杉村陽太郎였다.

그는 ‘극동의 평화를 생각하여, 만주인, 조선인의 행복을 생각해서 독립 혹은 병합을 원조하여, 또는 감행할 경우, 그 행동은 義人の 행위이며 仁者の 행위이다’²⁴⁾라고 하면서, 아시아의 평화를 어지럽혀, 아시아인을 멸시하고, 노예시 하는 것은 모두 ‘일본의 적’이라고 인식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국 일본의 팽창주의가 아시아에 있어서의 문명 대국으로서의 사명을 다

18) 柳澤健 「國際文化事業とは何ぞや」 『外交時報』 第704号、1934、71~74頁

19) 三枝茂智 「對外文化政策に就て」 (前掲論文)22~23頁

20) 三枝茂智 「對外文化政策に就て」 (前掲論文)25頁

21) 山田明編 『外交資料・近代日本の膨張と侵略』 新日本出版社、1997、253頁

22) 芝崎厚史 『近代日本と國際文化交流』 有信堂高文社、1999、65頁

23)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前掲書)、64頁

24) 杉村陽太郎 『國際外交録』 (前掲書)、380頁

하는 것에 살짝 변경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극동 평화의 옹호자’로서의 제국 일본의 존재감이 작다. 杉村는, 이미 고대 로마, 근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역사가, 일본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 이듯이, ‘문화적 노력’ 이 수반하지 않으면 진정한 국권의 신장은 없다고 단언했다. 杉村는 ‘문화 정책 없이는 ‘국세의 신장’ 은 바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²⁵⁾

‘우리 우수한 문명을 널리 세계에 이해하게 하여 국제상에 있어서 우리 품위를 높여 우리 국민성에 대한 각국민의 존경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국교의 기초를 단순한 권력 또는 재력에서 뿐만 아니라, 한층 고상한 상호 이해 및 존신의 관념 위에서 쌓는 것이, 국세의 발전에 빠뜨릴 수 없는 요건이며, 정치적으로 본 국권의 신장도, 경제적 견지에서 보는 상권의 신장도, 문화적 노력이 수반하지 않을 때, 그 바탕은 지극히 약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문명 대국인 일본의 문화를 널리 세계에 보급하며, 그 과정에서 제국 일본이 ‘동아의 지도자’ 임을 세계에 각인시켜, 그 존경심에 근거하여 아시아의 ‘문명화’ 를 선도해 나가는, 그 것을 위해 무엇보다도 문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경우, 문화 정책이란, 말할 필요도 없이 종교, 과학, 예술 등의 형태로 행해지지만, 한편에서는 ‘정치 도덕, 상업 도덕, 특히 국민 외교에 의한 국민 도덕에 준거해 지극히 유효’ 하게 기능하므로, 그 중요성을 결코 놓쳐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적극적인 대외 문화 정책을 통해서, 제국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한 것으로 하려고 한 杉村는, 그 체제에 대해서도 외무성 뿐만 아니라 ‘국민 일치 국민적 기초 위에서 행해지는 시대가 왔다’ ²⁶⁾ 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문화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재촉했다. 제국 일본의 문화 제국화에의 움직임이 ‘국민적 기초’ 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 정비에 들어갔던 것도 이 즈음부터이다. 이것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일본의 정치적 발언력의 강화와 거기에 걸맞는 경제적 존재의 확대²⁷⁾에 이어, 제국 일본이 추구해야 할 마지막 과제이기도 했다.

2) ‘제국 문화’ 의 ‘해외 선양’ 체제의 구축

국세의 발전에 정치·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그것을 활용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외무성 관료들의 일본 문화에 대한 프라이드는 매우 높았다. 그 만큼, 그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훌륭한 일본 문화를 지금부터 어떤 형태로 세계에 알릴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들의 다음 스텝은 자연스럽게 체제 정비에 집중되었다.

대외 문화 사업에 대한 지배층의 공감대 형성은, 외무성의 내국으로서의 ‘국제 문화 사업국’ 설립 구상을 시작으로, 학예 협력 국내 위원회(1933년 1월 설립)에서의 ‘국제 문화 사업’ 을 둘러싼 조직 만들기의 구체적인 논의, 등의 형태로 현실화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 등의 ‘반관반민’ 의 시스템도 차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재단법인 국제 문화 진흥회’ 이다.

1934년 4월에 창단된 ‘진흥회’ 는, 초년도는 약 40만엔의 예산으로 출발했지만, 그 다음은 민간(재계)의 지원 하에 규모를 늘려 ‘제국 문화를 해외에 선양’ 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갔다. 운영은 국제파 화족과 국제연맹 관계자, 그리고 외무성의 관료가 주축이 되었다. 오늘의 ‘을·재팬’ 체제의 개념과 같은 형태로 ‘대외 문화 공작’ 을 추진하는 조직 기반을 확립했던 것이

25) 杉村陽太郎 『國際外交録』(前掲書), 361頁

26) 杉村陽太郎 『國際外交録』(前掲書), 367頁

27) 衛藤藩吉 『近代東アジア國際關係史』東京大学出版会、2004、206頁

다.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本會는 國際間文化의 交換 특히 日本 및 東方文化의 海外宣揚을 도모하고 世界文化의 伸展 및 人類福祉의 增進에 貢獻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일본 문화의 해외 선양을 통해서, 세계 문화와 인류 복지의 증진에 공헌한다고 하는 등식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설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념에 대해서는 ‘설립 취의서’ 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現代世界ノ國際關係ガ複雑ヲ加フルニ從ッテ難問重疊スルト共ニ其ノ間ニ微妙ニ動キアルコトハ國際事情ヲ知ル者ノ容易ニ看取シ得ル所ナリ 即チ政治的折衝又ハ經濟的交渉ノ外ニ國民相互ノ感情學問 藝術上ノ連絡乃至映画’ 스포츠의 交驛等カ……國際關係ヲ左右スルヲ見ル サレハ一國家カ其國際的地位ヲ確保シ伸張スルハ富強ノ實力ト相並ヒテ自國文化ノ品位價值ヲ發揮シ他國民ヲシテ尊敬ト共ニ親愛同情ノ念ヲ催サシムルヲ要スルコト亦多言ヲ要セス 文化ノ發揚ハ一國ノ品位ヲ世界ニ宣布スル為ニ必要ナルノミナラス又國民ノ自覺ヲ喚起シテ自信自重ヲ加フル所以ノカトモナルヘシ 世界ノ文明諸國カアラユル方面ニ亘リテ自國ノ文化ヲ内外ニ顯揚シ宣布スル為ニ廣大ノ施設ヲ整ヘ文化活動ニ努力シテ互ニ後レサラントスルコト是レ亦叙說ヲ要セサル顯著ノ事實ナリ ……

…… 且ツ現時世界文化ノ危機ニ際シ西洋諸國ニ於テモ識者カ眼ヲ東方ニ注キ人類ノ將來ニ對シテ東方文化ノ貢獻ヲ望ミ其ノ為メニ一層深ク東方特ニ日本ヲ研究セントスルノ機運顯著ナルモノナリ 此機ニ乘シ此傾向ヲ促進シテ我國並ニ東方文化ノ真義價值ヲ世界ニ顯揚スルハ嘗ニ我國ノ為メノミナラス實ニ世界ノ為メニ遂行スヘキ日本國民ノ重要任務タルヘシ此事業タルヤ多方面ニ亘リ困難ナルヘキハ勿論ノ次第ニシテ此カ為メニハ鞏固ナル機關ヲ組織シ官民力ヲ協セテ事ニ當ルヲ要ス我等カ茲ニ財団法人國際文化振興會ヲ組織セントスハ即チ此目的ニ出ツルモノトシテ本會自ラ必要ノ事業ヲ遂行スルト共ニ汎ク内外ノ団体個人ト連絡ヲ保チ又適當ノ援助ナシ以テ文化ノ國際的進運ニ資シ特ニ我カ國民及ヒ東方文化ノ顯揚ニ力ヲ致サンコトヲ期ス

일본 문화에 대한 자각 요구는, 서양 문화에 필적할 수 있는 일본의 문화를 ‘당당하게 선양’ 하고, ‘세계 인류의 문화 복지에 공헌’ 한다고 하는 목적이지만, 그 뒤에는 국민에 대한 ‘사상적 배경의 전선적(全線的) 음미와 통제’ 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1) 메이지 이래 서양 문화 섭취에 분주해 온 결과, 자국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반성의 뜻과 2) 일본의 국제적 지위 변화에 걸맞는 문화 가치를 발신하는 것에 의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제국 일본’ 의 새로운 평가를 받고, 3) 국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국민 일체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상적 지도 원리를 국민에게 피로하는 전략으로 문화 정책·외교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논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 전선의 국내적 통일(관민 일체²⁹⁾)로 국민의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여, 그에 따라 국제 문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핵심적 기관으로 창설된 것이 ‘진흥회’ 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흥회’ 가 실시해야 하는 ‘국제 문화 사업’ 도, 처음부터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세계에 ‘선양’ 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었다. ‘진흥회’ 의 사업 내용(표 1, 참조)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28) 『財団法人國際文化振興會設立經過及昭和九年度事業報告書』(前掲書), 11~12頁

29) 『振興會』의 주요구성멤버를 보면, 우선 고문에는 총리를 비롯, 宮内·外務·文部大臣의 이름이 이어져 있고, 회장은 총리를 역임한 近衛文麿가 취임했다. 그리고, 주요 이사와 평의원에는 대학 총장, 교수를 비롯 제계, 관료, 정치가 등 소위 政·官·財·學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마치 근대에 있어서의 서구와 동아시아의 관계를 상징한 ‘서방동점’의 흐름을, 지금 부터는 일본이 선두에 서서 ‘동방 서점’의 흐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제국 일본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진흥회’의 사업 내용이, ‘동방 문명 유일한 대표 내지 집적국’으로서의 일본의 ‘빛’을 세계에 알리려고 한 柳澤建과 三枝茂智 등의 문화 사업 구상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⁰⁾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모두 서구 제국의 문화 사업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나온 것으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진흥회’의 핵심적인 문화 사업으로 통합된 것이다.

*** 柳澤建의 문화 사업 구상 내용**

- 1) 외국의 여러 대학에 일본 문화 강좌를 설치할 것,
- 2) 일본어 학교 혹은 일본어 학과를 설치할 것,
- 3) 학자 그 외의 파견·초빙 및 교환을 할 것,
- 4) 학생의 교환 등을 할 것,
- 5) 출판물, 그 외 것으로 일본 문화를 해외에 소개할 것,
- 6) 미술품, 그 외 각종의 문화 자료의 기증·교환을 할 것,
- 7) 내외에 있는 국제 문화 단체에 대해 보조·조성을 할 것,
- 8) 전람회·음악회 등을 해외에서 개최할 것,
- 9) 연극·영화 등을 해외에 진출시킬 것,
- 10) 국제적 스포츠 및 국기의 해외 진출에 대해 장려할 것.

表 1. ‘振興會’의 事業內容(事業綱要)

<p>1) 著述, 編纂, 翻譯 및 出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化活動의 각 방면에 걸쳐 日本語 또는 外國語의 著述을 創作, 編纂, 刊行한다 · 日本人에 의한 東方文化에 관한 學術論文 등을 外國語로 翻譯, 刊行한다 · 日本文化에 대한 外國語의 良書를 翻譯한다
<p>2) 講座 設置, 講師 派遣 및 交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國의 주요대학에 日本文化에 관한 講座設置 · 外國 學校에 日本語講座 혹은 日本語學校設置 · 外國과의 講師 派遣 및 交換을 推進
<p>3) 講演會, 展覽會 및 演奏會 開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名士의 派遣, 招請 · 外國에서 日本文化에 관한 展覽會開催 · 藝術文化 紹介 및 演奏會開催
<p>4) 文化資料寄贈 및 交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과 東方文化에 관한 資料를 外國 大學圖書館 등에 寄贈 · 文化資料를 海外 博物館 등에 寄贈, 交換한다.
<p>5) 知名外國人 招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各分野의 著名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日本의 眞價를 認識시킨다

30) 柳澤健 「國際文化事業とは何ぞや(続)」 (前掲論文)、44~49頁

<p>6) 外国人의 東方文化研究에 대한 便宜提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来日하는 日本文化研究者 등에게 研究上 便宜를 供与한다 · 外国의 日本文化研究者 등에게 研究上 便宜를 供与한다
<p>7) 學生 派遣 및 交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将来國際文化活動에 従事할 수 있는 優秀한 學生을 外国에 留学시킨다 · 優秀한 外国 學生을 초청하여 日本에서 留学시킨다 · 内外大学間에서 學生交換을 한다
<p>8) 文化活動에 關係하는 団体 혹은 個人과의 聯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国의 日本文化・東方文化団体 등과 密接한 關係를 맺는다 · 国内의 文化事業団体 등에 원조를 한다
<p>9) 映画 作成 및 그 指導援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国에 宣揚해야할 日本文化關連映畫를 制作한다 · 이 종류의 映畫를 制作하는 団体・個人 등에게는 指導援助한다 · 外国에 輸出하는 日本映畫에는 統制, 檢閲에 協力한다
<p>10) 會館, 函書室, 研究室 設置經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以上の 事業을 達成할 수 있는 施設을 日本과 主要外国에 설치하거나, 設置에 원조한다. · 本事業의 중심지인 東京에 가능한 빨리 中央會館을 設置한다

資料出：『財団法人國際文化振興會設立經過及昭和九年度事業報告書』(前掲書)、13~16頁

4. 전후로의 계승-맺으며

내외외환의 위기적인 상태에서 근대국가로 다시 태어난 일본은, 비서구 사회에서는 유일하게 근대화 성공한 나라이다. 그리고, 불과 수십년간에 ‘5대강국의 1인 지위’를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지배계급은, 민족 문화에 대한 의식 고취와 민족정신의 함양을 계속 주장했다. 세계로부터의 관심과 민족 의식의 고양을 배경으로, 일본은 우수한 자국 문화를 ‘발양’해, 세계로부터의 ‘일본 발견’이라고 일본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세계 대중에게 야기시키는’ 것을 당면의 국가적 과제로 이해하고 실천했다.

그 목적은 명쾌했다. ‘민족 문화의 정신적 기초를 기본으로’ 하여 ‘그 자신의 민족적 이상이, 동시에 세계 각국의 적어도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는, 리딩·파워가 되는 이상’³¹⁾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대외 문화 진흥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의 식자 중에는 비판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진흥회’의 활동을 ‘일본 문화의 침략성’의 관점에서 파악한 清澤淵은 ‘비상시가 되고 나서, 일본은 세계 제일이든지, 세계 제일이 가지는 예술과 문화는 역시 세계 제일이며, 고로 이 세계 제일의 예술을 감탄하지 않을 리가 없다, 라고 하는 논리가 유행하게 되면서, 일본 문화는 국가적 원조 하에 힘차게 유출되고 있다’³²⁾라고 논하면서, 이것은 나치스의 문화도 같다고 지적했다.

清澤의 문제 제기는, 일본의 국제 지위 변화에 수반한 논리의 왜곡 현상의 확산과 거기에 뒤틀리고 따른 국가 정책의 무모함에 대한 비판이었다. 하지만, 시대적 인식은 일본 문화의 대외 침략에 대한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유럽 주의, 세계를 백인적 견지에서만 생각하는 사상을 타파해 진정한 세계 통일을 실현해야 할’³³⁾사상으로서 주장된 ‘동아 협동

31) 姉崎正治 「國際文化事業の真意義」 『財団法人國際文化振興會設立經過及昭和九年度事業報告書』(前掲書)所収、190頁

32) 清澤淵 「日本文化の侵略性」 『改造』1935年12月号、292頁

33) 三木清 「東亞思想の根柢」(前掲論文)、12頁. 三木는 이 논문에서 ‘支那’의 근대화와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支那’의 근대화야말로 동양 통일의 전제라는 인식을 밝히고 있다.그런 의미에서는 「東亞協同體論의 支配的인 地政學의 概念을 歷史哲學的인 概念으로 再定義하고=意味轉換하고, 多様な 個性者가 対等하게 民族을 構成하고, 多様な 民族이 対等

체의 사상' 이 각광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세계사적인 사상으로서 논해져 온 '동아 사상'의 허구는, '東亞에 있어서의 安定勢力임을 실적을 올리는 것을 帝国外交의 中樞方針으로 함'³⁴⁾이라고 하는 '제국 외교 방침' (1936.8. 7)에, 또한 '拳國一致堅忍不拔의 精神으로 現下의 時局에 対処'³⁵⁾하는 것을 명한 '국민 정신 총동원 실시 요강' (1937.8. 24)의 선포 등의 과정을 거치고, 한층 더 전체주의를 강화하는 자극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대동아 신질서의 건설'을 실현한다고 하는 태평양전쟁의 이데올로기로 귀결되어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신의 대외 침략성은, 우수한 일본 문화의 대외 선양으로 체식되거나 미국과 영국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정당방위로 바뀌거나 나치스의 '유럽 신질서'에 대응하는 '대동아 신질서'의 사상으로서 왜곡되거나 끊임없이 그 본질을 숨긴 채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갔다. 그 허구성이, 또한 일본 정신의 고취와 문화 정책·외교의 강화를 주창하는 식자층의 담론을 양산하면서³⁶⁾, 제국 일본의 문화 팽창주의를 더욱 자극했으며, 한편 전후의 문화 외교의 역사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후 일본은 유럽의 복지국가나 미국의 군사 국가의 길과는 다른, 이른바 산업국가로서의 길을 걸어 '초강대국'에 오른 후, 한층 더 문화국가로서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전후 일본의 국가 발전 모델은, 여러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흥미가 깊어질 때마다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에 떠돌고 있는 대일관에는, 일본 경제의 국제적 존재의 확대를 솔직하게 환영할 수 없는, 말하자면 초조함에 자극받은 대일 '비판'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과 일본 문화에 대한 심적 동의와 경제 발전을 지지하고 있는 일본식 가치의 재고 혹은 흡수라고 하는 측면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문화 외교는, 한편에서는 전자의 해소와 후자의 확대라고 하는 이념적 성향을 받으며 전개되어 왔다. 국제사회에 놓인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일관이 점차 후자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 입각하여 일본의 문화 외교도 더욱 더 일본식 가치의 확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방향성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지 하는 것과는 별도로, 일본의 정책 노선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국제사회의 요망과 일치하는 데가 있다. 이 기묘한 '일치'가, 이제까지의 아시아의 제국 일본에 의한 트라우마와 구미의 문명 우월 의식을 넘어 향후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한층 더 높여 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된다.

하게 하나의 『世界』를 構成한다고 하는 비전아래 東亞協同체를 構想」했다고 하는 内田弘의 평가는 일리가 있는지도 모른다. 「三木清の東亞協同體論」 『専修大学社会科学研究所月報』(No.508, 2005.10.20)2頁. 그러나, 일본의 '支那'에 대한 행동을 기본적으로는 「白人帝國主義으로부터 解放하는」 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의식은 변편을 통해 일관되고 있다. 특히, 당시의 시대적 사상 상황을 생각하면, 三木의 논리가 日本帝國主義를 변호하는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34) 山田明編 『外交資料・近代日本の膨張と侵略』(前掲書), 253頁

35) 山田明編 『外交資料・近代日本の膨張と侵略』(前掲書), 257頁

36) 예를 들어, 田中耕太郎 「國際文化運動の理念」(『改造』1937年1月号), 「文化協定と文化工作」(『改造』1939年6月号), 三木清 「文化の力」(『改造』1940年1月号), 矢野仁一 「日支文化の交流」(『文芸春秋』1939年6月号), 高田正治 「日支文化政策の將來」(『文芸春秋』1941年1月号), 등이 있다.

帝国日本の「文化外交」に関する少考

金彌東（世明大学日本語学科教授）

はじめに

人類史において文化を媒介にした交流の歴史を「文化交流」と理解する場合、交流の形は異文化同士の自然発生的な接触による交流と、国とか集団が自分達の意図する何かの目的を持って政策的に行う交流とに大きく分けられる。近代以後の国際社会における「文化交流」といえば、主に後者の形がいわれがちだが、日本の場合も戦前から後者に重点をおいて、それを「文化事業」「文化工作」「文化外交」の観点から交流政策を推進した。要するに、文化交流の一つの属性でもある自然発生的な側面を国が積極的に関与し、体系的に「指導管理」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文化の目的指向的海外伝播と日本の国際的地位向上を追求する政策を絶えず追求した。

筆者は、日本社会の「日本文化」をめぐる統合的価値の形成と、それを活用した「外交」的活動の歴史を、近現代の「日本的価値」の特徴を表す一つの有力な事例として考えている。日本の文化政策と文化交流の外交的効果の極大化を狙う文化外交の実態を分析してみると自ずと確認できる。従って本稿では、まず日本の「文化外交」を分析する研究史的意味を、筆者の従来の日本文化研究方法論と関連づけてとらえる視点を提示すると共に、文化外交における帝国日本の「日本文化」の理解、「文化外交」の概念、そして文化外交の認識背景と体制構築過程等を分析した。

1. 文化外交研究の視点と背景

1) 本研究の視座

筆者は、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研究の深化を図るための方向性として、まず日本・日本人・日本社会が体現する一般的情緒や心理及び伝統的な思惟様式が反映された文化様態を、通史的観点ないしは社会構造的な側面で包括的に分析する研究を「日本文化研究」としてとらえた後、それを充足させるためにも二つの前提条件(問題意識と研究方法論)が必要だということを指摘したことがある¹⁾。

一つは、日本人の意識構造と行動様式、伝統思想や慣行、法や制度(或はキー・コンセプトとして考えられる他の論点)などに基づいた一貫した論理で、日本の社会文化の諸現象を規定する

1) 拙論「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論』展開に関する一考察」『日本学報』第58輯、2004.3参照

内面的特性を分析する問題意識、例えば、意識構造や行動様式の分析→それを孕む社会構造の分析→日本文化の特徴解明→他文化との比較視点の確保である。これは、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研究の生育基盤の強化のためにも強く求められるべき条件である。

二つは、問題意識を客観的な結果に導き出すための幅広い資料の収集と科学的研究方法論の鍛練が必要である。特に、方法論においては例えば、現実生活における日本人の思惟様式の独自性の分析、思惟様式とその集合体である文化様態の相関関係分析、その結果として規定された制度や慣行などが、また日本人の意識世界を束縛する形態を、連続・循環的に分析する方法論の鍛練である。

したがって、帝国日本の「文化外交」の全体像を分析するさい、筆者が注目したいのは、既存の国際政治構造との関連性の中で把握する方法論ではなく、1) 日本人の思惟様式と支配階級のイデオロギー等が歴史を通じて形作ってきた認識論的・実践論的思惟様式の特徴、2) それが日本の国際的地位変化を反映した「外交」政策と結び付いて行く過程、3) その結果としての日本的価値の拡大再生産→新たな国家イメージ創出→世界の「暮らし文化」の日本化促進メカニズム解明等である。要するに、日本の「文化」とその「文化」が発する諸価値を重視する「日」²⁾の思惟様式が、「外交」を媒介にして追求しようとした目的指向的価値及びその結果と意味を実証具体的に分析することである。

2) 本研究の時代史的背景—思想・文化的観点からの歴史性

国際社会における力の源泉の変化(The changing sources of power)を唱えたジョセフ・S・ナイは、日本は1930年代の大東亜共栄圏(Greater East Asian Co-Prosperty Sphere)を創設しようとした軍事戦略よりも、1945年以後の通商国家(trading state)として生きる戦略が日本にとって遙かによかったと評価している。しかしながら、相手を従わせる力(command power)の面では、日本は天然資源に乏しく、軍事力も相対的には弱いし、特に、相手を引き寄せる(co-optive)重要な力である文化の面においては、日本は極めて孤立しているという³⁾。一言でいえば、経済成長戦略は今後も有効であろうが、文化的に孤立(insular)しては国際社会での影響力拡大は難しいという論理である。

文化力が発する政治的影響力を含め、総合的に世界的な支持力という観点からみると、アメリカの文化力は日本に勝っ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だが、日本文化が孤立しているがため、影響力の拡大に限界があるという論理は偏狭的で、オリエンタリズムの発想である。ポスト冷戦時代における文化的パワーは、その政治的影響力よりは暮らしの文化に及ぼす影響力がより注目されている。

特に、経済大国の地位に便乗して国際的に広がっている日本のサブ・カルチャーの影響力をジョセフは見逃しているし、彼の認識をあざ笑うかのように「クール・ジャパン」の世界化は強まっている。その支持が今は日本の文化外交の発想まで変えられる基盤になっており、究極的には21世紀における日本の文化大国化の野望を可能にせしめる大事な「資源」として脚光を浴びている。

今「文化外交」の持っている意味とその影響力は、国際社会を支配した20世紀価値の崩壊と共に益々高まっている。日本の「GNC」が世界から注目を浴びているように、もはや日本社会は

2) ここでいう「日」は、日本・日本人・日本社会の総称である。

3) Joseph・S.Nye, Jr: *BOUND TO READ: the chandind nature of American power*, Basic Books, 1990、29～33頁

近代の富国強兵論や戦後の富国(=経済力)論理を越え、また、アジアに対する文化優越意識や西欧コンプレックスを越え、日本文化の再評価と広がりを通じた文化大国日本の具現に拍車をかけている。この流れは「文化強国」を夢見ている韓国社会に多くのことを考えさせており、また本研究を促す一つの要因でもあるが、より具体的には思想・文化的に見逃せない歴史性がいくつかある。

一つ目は、日本の文化外交の生育基盤として、日本の国際文化交流と日本文化形成の歴史的基盤(「国際交流」を通じた「受容」と「発信」の歴史)を重視すべきであり、そこから日本文化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形成されたという歴史性である。つまり、絶えず国の文明・文化進化の原動力として当該の先進文明を積極的に吸収しながら、それを「日本化」する「創造的受容」を実践してきた。

二つ目は、逆発想による日本的価値の対外指向性である。文化的・地理的な観点からみると、日本は確かに世界の周縁部に位置しているがため、文化的に日本は一度も世界の中心に立つようなことはなかった。それを外からは日本文化の「孤立」の視点からみたがっているが、日本はその限界を逆に民族繁栄と対外「膨張」のための活路として前向きに変えてきたし、その過程で「日本的価値」の対外拡散が対外政策の一環として広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歴史性である。

三つ目は、「文化」による外交という発想が、すでに帝国日本の対外膨脹過程で構想され、実践されたという歴史性の重視である。文化外交に関する認識は、1920年代を過ぎると具体性を浴びて現れてくる。杉村陽太郎の経済立国と文化政策構想、越智元治や柳沢健の国際文化事業構想、三枝茂智の文化立国策構想、松本学の文化国際連盟構想などが代表的である⁴⁾。これらの構想のなかで、日本文化の海外紹介、学術・文化交流の拡充、日本的価値の伝播、日本文化の学問的研究基盤構築と対外文化政策との連携、文化外交や国民外交論の提唱などが唱えられ、今日までその理念と方向性が受け継がれている。

四つ目は、「文化外交」は21世紀の日本外交が指向する国家戦略の要諦だという点である。ジョセフ・ナイが対外政策における目に見えない力(その国が内面から醸し出す魅力)としてソフト・パワーを唱えているように⁵⁾、今日の国力と外交力における文化の影響力は益々強くなっており、政治・経済の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かみ合った「グローバルな文化システム」⁶⁾の成熟も著しい。そのため日本は、21世紀の国力として文化力(伝統文化+現代文化)の重要性を汎国家的に再認識し、その価値を極大化するための全国的なエネルギーを結集している。

五つ目は、日本の国際的地位変化と文化外交との深い関連性である。例えば、敗戦国→戦後復興→国際社会復帰→平和国家→高度経済成長→経済先進国→経済大国→国際国家→文化大国

4) 芝崎厚土『近代日本と国際文化交流』(有信堂高文社、1999)、「第三章 誕生、1 対外文化政策の構想」参照

5) Joseph S. Nye, Jr 『SOFT POWER-The Means Success in World Politics』Perseus Books Group, 2004参照。Josephによると、「ソフト・パワー」とは、行動原理からみれば味方に引き付ける「魅力の力(power of attraction)」であり、その力を引き出す関連性の高い厳選として、制度、価値観、文化、政策などをとりあげている。『SOFT POWER』5~11頁

6) Martin Showは、「個々の経済的政治的利害への固執と同様に個々の観念やアイデンティティへの固執もあるが、それでもやはり普遍的な文化の成長は著しい」と指摘しながら、「より重要なことは経済、政治の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かみ合いながら、これらの過程を通して、人々が共通の期待と価値観と目標をもって自分達の生活を見るようになりつつある。これらの文化的規範には、生活水準、生活様式、福祉の権利、市民権、民主主義、民族的・言語的権利、独立国家としての地位、性の平等、環境水準などの観念が含まれる」という。そして、これらの観念の多くは西欧に起源をもつが、それぞれの社会的文脈の中で大きな解釈の違いを伴いながらも、世界中で益々生活様式と政治理論の一部となりつつあるという。ここでグローバルな文化、とりわけグローバルな政治文化が姿を現してくると指摘している。『グローバル社会と国際政治』高屋定国・松尾眞訳、ミネルヴァ書房、1997、29~30頁

という、いわば国際社会の情勢変化やその中での日本の役割（国家イメージの「変化」を適切に反映）をうまく見極めながら、より国家化・戦略化された形で「日本文化」の戦略的発信が行われてきた。

2. 文化外交における「日本文化」の理解と「文化外交」の概念

近代以後日本の知識人社会は、「文化」をドイツ語の文化概念を借用し「高度な精神的な所産」としてとらえる傾向が強かった。英語用法が混じったドイツ語用法における「文化」の概念は「品位のある用語、重みのある」用語としての「Kultur」であり、これは「18世紀以来ゲルマン国民の言語と本質のあらゆる次元における表れを示すもの」であった⁷⁾。

当時西欧社会における「文化」は、知識人達の専有物のように認識されていたし、その意味では18世紀の学問、芸術などの精神分野におけるゲルマン民族の活躍ぶりを高く評価していた時代的認識が、そのまま「文化」の概念として定着されたとしてもおかしいことではなかった。ただ、この場合「文化」は、精神的・道徳的向上を図る教養と一体化され、それを享有できる主体も高い修養を備えたエリート階級に限られてしまい、大衆は排除されるという限界を持っていた。

西洋の文化発達過程を特徴づけたこの貴族主義的概念が、近代日本の知識人社会をそのまま支配した。明治初期文明開化を主導した啓蒙的知識人達の愚民観にその実体が象徴的に表れていた⁸⁾、専制政府に対抗した自由民権運動家達の思惟様式においても、民衆達の意識世界とは離れた次元で「文化」が唱えられていた⁹⁾。このような現実に対しては知識人による批判的考察もあるが¹⁰⁾、いずれにせよ文化に対する狭義的理解と、文化形態をエリート層の独占的専有物のように思う発想に変わりはなかった。

だが、帝国日本の本格的な対外侵略と、それと相俟って日本文化の対外「宣揚」意識が高まるにつれて、文化に対する認識も徐々に弾力的に理解されるようになった。代表的な人物が、この頃帝国日本の対外文化事業を主導した三枝茂智であった。三枝は、文化と文明を同一概念としてとらえた上、それは「経済的生活、芸術活動、政治生活、宗教生活、知的生活の進歩発達」として、いわば「社会生活の最高水準とせらるるものを意味」¹¹⁾すると定義した。

これを文化の「最広義」的解釈であるといった彼は、もう少し「狭義」的に解釈すれば「純粹の価値將又精神的文明と云ふ範圍に属する事項は勿論夫れ以外に於きましても、価値と云ふ方面を主として其存在の方面として居る事物即ち主として価値的存在を持って居る事物をも我々の目的主観を加味いたしまして、此等一切を文化と云ふ文字、文化財と云ふ文字の中に入れて」ることができるし、文化事業の担当者はこのような考え方を持つべく必要があると主張した¹²⁾。

近藤春雄も後を次いだ。近藤は、文化と文明は区別されるべきものだという前提に立っているものの、文化という概念の多様性は文化活動の多角性を産み出すので、文化外交の内容も学

7) Mare Fumaroli 『文化国家—近代の宗教』(天野恒雄訳)、山陽社、1993、188頁

8) 拙論「啓蒙思想に関する少考」『日本学報』第71輯(2007. 5. 30)参照

9) 拙論「自由民権運動の‘在地化’過程に関する研究」『日本学報』第61輯(2004. 11. 30)参照

10) 田中耕太郎は、明治以来日本の文化は常に支配階級やエリート層が支配してきたといいながら、文化享有の主体はいうまでもなく国家ではなく民衆だということを主張している。「国際文化運動の理念」『改造』1937年1月号、8~9頁

11) 三枝茂智『極東外交論策』斯文書院、1933、627頁

12) 三枝茂智「対外文化政策に就て」『支那』(1931年、8月号)、17頁

術、芸術などの精神的労作から技術的蓄積の交換に至るまで、幅広い範囲でとらえるべきだと主張した¹³⁾。近藤がいう「技術的蓄積」の内容は明らかではないが、現実生活における日本の先進的文化財一般まで、たとえば「従来「職人」の生業としてさほど高く評価されなかった庭園術とか染色術まで一つの大きい「日本文化」の一分野として取り上げられ新しい価値¹⁴⁾を付与しようとする考え方である。

これは、日本の「文化宣揚」のための日本文化の「再構成」を意味するものであり、それによって「文化事業」の対象をも精神的文明や学問の対象になるような概念から、商品のような文化価値を表現する文化的財貨まで拡大して解釈できる余地が生まれる。文化的財貨に取り囲まれた生活文化の重視という発想、つまり、文化を日常的な観点から読み直そうとする意志のもとで、日本文化の発信能力を強化するという試みである。

この経緯を踏まえて定義してみると、まず日本のイデオログ側が考えている「日本文化」というものは、日本の伝統的な美や精神が溶かされている文化財的遺産から、日本人の規範意識や諸価値が反映されている有・無形の社会的・知的資産、そして現代の生活様式を取り巻く多様な文化的財貨までを総称する概念である。そして「文化外交」とは、この有・無形の文化的所産を「日本文化の魅力」として看做し、それを「外交」という手段を通じて世界に拡散させることである。要するに、固有の精神的・物質的・技術的所産として幅広い範囲で継承・創造されている諸文化価値を、交流・交渉・政策の一環として対外的に活用し、外交的効果を極大化することによって、国際社会における日本のイメージ改善、地位向上、国際協力等を図っていく戦略的、目的指向的外交活動の総体が「文化外交」である。

3. 帝国日本の「文化外交」の認識と体制構築

1) 帝国日本の対外文化事業構想

近代日本が日本の国際的地位を反映した外交原則といったものを探求し始めたのは日露戦争直後である。近代以後日本の国際問題は、条約改正、軍備の充実、朝鮮半島における支配権の確立ということに集中されていたが、日露戦争後は国の独立や使命とは何か、日本が世界の一国としてなまじること、なさねばならぬことは何か、そもそも国際問題とはどうあるべきものなのか、世界の動向はどのように変っていかうとしているのか、その中であって日本はどう進むべきか、等について真剣に考えるようになった¹⁵⁾。

第一次大戦後日本は、国際連盟に加入し、当時国際文化交流史上特記すべき出来事として注目を浴びた「知的協力委員会(Inter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Cooperation)」に積極的に協力すると共に、国策としての文化事業推進の必要性を認識し始めた。そして、1922年外務省に「対支文化事業特別会計」を設置(翌年「文化事業部」となる)し、予算300万円の規模で対「支那」文化事業をスタートした¹⁶⁾。

この頃から日本の識者層は、国の政策を後押しするかのようによく海外との文化交流事業の重要性を唱え始める。その代表的な人物が須磨彌吉郎と柳澤健である。スペイン特命全権公使

13) 近藤春雄「文化外交の思想的背景」『外交時報』76号、1934、参照

14) 宮城望「文化宣揚と文化宣伝」『国際文化』第5号、国際文化振興会、1939、5頁

15) 入江昭『日本の外交』中公新書、1966、6～7頁

16) 外務省文化事業部『国際文化交流の現状と展望』大蔵省印刷局、1973、8頁

를歴任した須磨は「東洋文化外交試論」という論文を通じて、日本の国際的地位変化と相俟つて、文化を外交の核心領域としてとらえるべき認識を表明した¹⁷⁾。柳澤健は「国際文化事業」を「学術とか教育とか宗教とか芸術とか乃至はスポーツとかの所謂文化的方面をば中心とする対外活動」として位置づけ、「文化外交」を政治・経済外交と共に外交の三大軸の一つとしてとらえるべきだといった。

特に文化外交は、「単に一国の政治・経済的方面の活動途上に於ける紛争防止というが如き消極的の役割を果たすものである許りでなく、進んで一国の政治・経済の活動を助長し強化する多大の力」を持っているがため、政治・経済・文化といった「三面の外交活動」の中でも「最も重要且つ根本的なもの」として見なすべきであり、その意味から対外文化事業の必要性と効果を強調する欧州諸国の論者たちの主張は正しいと力説した¹⁸⁾。

その後、体系的な対外文化政策構想が相次いで提起された。三枝茂智は、ヨーロッパの諸国が対外文化事業を通じて、1) 自国の国粹主義維持、2) 自国言語の諸外国へ紹介、3) 自国文化を諸外国へ移させる、4) 自国の価値の世界的認識を促進、5) 外国人の人心を収攬する、等の目的を達成しているという事実を冷静に受け止めた¹⁹⁾。ヨーロッパの列強が「自分の国の領域を外国人の観念界に広げ」ることによって「自国民族の存立発展に有利になる環境」を作っていく戦略を、文化事業を通じて実現していると判断したのである。

三枝によると、日本は地域的基盤として「何となれば国粹文化宣伝戦に於て、吾人は絶好の戦略地点を占めて」いたし、文明的観点からも「日本主義、印度哲学、儒教精神等を集大成して」いた。見方によっては「世界文化の半分を所有」しているがため、日本人が否応なしに「価値の世界」の王座に君臨しようとする意志さえあれば「世界一全の最高文化を産出」できる能力は備えていたわけである²⁰⁾。

対外文化事業を通じて新しい「指導精神」を世界に発信しようとする意図は、まず「大東亜」に向けられた。その中でも主要な攻略対象はいうまでもなく中国であった。当時日本は、「満州国ヲ育成シ同国トノ特殊不可分關係ヲ益々鞏固ナラシメ、世界的見地ニ於テ蘇支兩國トノ關係ヲ自主的ニ調整スルと共に、南方方面ニ平和的発展進出ヲ計リ、依テ東亜ニ於ケル安定勢力」を確保し、それから「帝国ノ存立発展」を図ることを、「帝国外交の中樞方針」として決めていた²¹⁾。

帝国日本の「対支那」文化政策の重視を、芝崎厚史は「対支文化事業を通して東方文化の宣揚に努力していることを列強に理解させる行為」²²⁾の一環としてとらえているが、冷静に考えると「大陸帝国」の地位を確保した日本が、次なる「指導精神」の実践を通して「文化帝国主義」の実現に乗り出したことを意味する。

帝国主義政策として最も巧妙なものとしていわれている「文化帝国主義」は、領土の征服や経済生活の統制を目的としない。その目的は「二国間の力関係を変えるための手段として、人間の心を征服し制御する」ことにある²³⁾。特に、文化帝国主義の実現は計量的には計り知れない大きな魅力があるがため、この頃多くの識者層は、日本のアジアにおける近代文明の先駆者としての地位を活用し、帝国日本の文化的リーダーシップの発揮を強く求めていた。その役割

17) 須磨彌吉郎「東洋文化外交試論」『外交時報』490号、1925、
 18) 柳澤健「国際文化事業とは何ぞや」『外交時報』第704号、1934、71~74頁
 19) 三枝茂智「対外文化政策に就て」(前掲論文)22~23頁
 20) 三枝茂智「対外文化政策に就て」(前掲論文)25頁
 21) 山田明編『外交資料・近代日本の膨張と侵略』新日本出版社、1997、253頁
 22) 芝崎厚史『近代日本と国際文化交流』有信堂高文社、1999、65頁
 23) Hans J. Morgenthau『POLITICS AMONG NATIONS』(前掲書)、64頁

を強く主張した人物が杉村陽太郎であった。

彼は「極東の平和を思い、満人、鮮人の幸福を念とし独立若しくは併合を援助し、又は敢行したる場合、その行動は義人の行為であり仁者の行為である」²⁴⁾といいながら、アジアの平和を乱し、アジア人を蔑視し、奴隷視するものはすべて「日本の敵」と見なし、断固たる処置をとるべきであると主張した。帝国日本の膨張主義がアジアにおける文明大国としての使命をはたすことにすり替えられている。

しかし、これだけでは「極東平和の擁護者」としての帝国日本の存在感は薄い。杉村は、すでに古代のローマ、近代のイギリス、フランス、アメリカ等の歴史が、日本にとって「善き手本」であるように、「文化的努力」が伴わなければ真の国権の伸張はないと断言した。杉浦は「文化政策」なしには「国勢の伸展」は望めないといいながら、その当為性を次のように強調した²⁵⁾。

「我優秀なる文明を普く世界に理解せしめ、国際上に於ける我品位を高め、我國民性に対する各國民の尊敬を確保し、斯くして彼我国交の基礎を単なる権力又は財力の上のみならず、一層高尚なる相互理解及び尊信の觀念の上に築くことが、国勢の発展に缺くべからざる要件であり、政治的に見た国権の伸展も、経済的見地よりする商権の伸展も、文化的努力の伴わざるとき、その根底は極めてよわきものとなるべきを知らねばならぬ。」

文明大国である日本の文化を広く世界に普及し、その過程で帝国日本が「東亜の指導者」であることを世界に刻印させ、その尊敬心に基づいてアジアの「文明化」を先導していく、そのために何よりも文化政策が大事であるという。この場合、文化政策とは、いうまでもなく宗教、科学、芸術等の形で行われるが、一方では「政治道徳、商業道徳、殊に国民外交による国民道徳に遵拠して極めて有効」に機能するので、その重要性を決して見逃してはいけないと力説した。

積極的な対外文化政策を通じて、帝国日本の国際的地位を確固たるものにしようとした杉村は、その体制についても外務省のみならず「官民一致国民的基礎の上に行はれる時代が来た」²⁶⁾と主張しながら、既存の文化政策の全面的な変化を促した。帝国日本の文化帝国化への動きが「国民的基礎」の上、本格的に推進できる体制整備に入ったのもこの頃からである。これは、第一次世界大戦の後、国際社会における日本の政治的発言力の強化とそれに見合った経済的プレゼンスの拡大²⁷⁾に続き、帝国日本が追求すべき最後の課題でもあった。

2) 「帝国文化」の「海外宣揚」体制の構築

国勢の発展に政治・経済だけではなく、文化とそれを活用する政策の重要性を力説した外務省官僚達の日本文化に対するプライドはとても高かった。その分、彼等にとって残された課題は、立派な日本文化をこれからどういう形で世界に知らしめるかであった。そのため、彼等の次なるステップは自然に体制の整備に集中した。

24) 杉村陽太郎『国際外交録』(前掲書)、380頁

25) 杉村陽太郎『国際外交録』(前掲書)、361頁

26) 杉村陽太郎『国際外交録』(前掲書)、367頁

27) 衛藤藩吉『近代東アジア国際関係史』東京大学出版会、2004、206頁

對外文化事業に対する支配層の共感帯形成は、外務省の内局としての「國際文化事業局」設立構想をはじめ、学芸協力国内委員会(1933年1月設立)での「國際文化事業」をめぐる組織づくりの具体的な論議、等の形で現実化されていった。この過程で、イギリスやアメリカ等の「半官半民」のシステムも借用された。こうして生まれたのが「財団法人國際文化振興会」である。

1934年4月に旗をあげた「振興会」は、初年度は約40万円の予算で出発したが、その後は民間(財界)の支援のもとで規模を膨らませ「帝国ノ文化ヲ海外ニ宣揚」する中枢的な機関としての役割を担っていった。運営は國際派華族と國際連盟関係者、そして外務省の官僚が主軸になった。今日の「オール・ジャパン」体制の概念と同じ形で「對外文化工作」を推進する組織基盤を確立したのである。

設立の目的については「本会ハ國際間文化ノ交換殊ニ日本及東方文化ノ海外宣揚ヲ図リ世界文化ノ伸展及人類福祉ノ増進ニ貢献スルヲ以テ目的ト」すると記している。日本文化の海外宣揚を通じて、世界文化と人類福祉の増進に貢献するという等式を明確に提示しているが、設立にあたる具体的な理念については「設立趣意書」の中で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²⁸⁾。

「現代世界ノ國際關係ガ複雑ヲ加フルニ從ッテ難問重疊スルト共ニ其ノ間ニ微妙ニ動キアルコトハ國際事情ヲ知ル者ノ容易ニ看取シ得ル所ナリ 即チ政治的折衝又ハ經濟的交渉ノ外ニ國民相互ノ感情、学問、芸術上ノ連絡乃至映画、スポーツノ交驩等カ……國際關係ヲ左右スルヲ見ル サレハ一国家カ其國際的地位ヲ確保シ伸張スルハ富強ノ実カト相並ヒテ自国文化ノ品位価値ヲ發揮シ他國民ヲシテ尊敬ト共ニ親愛同情ノ念ヲ催サシムルヲ要スルコト亦多言ヲ要セス 文化ノ發揚ハ一國ノ品位ヲ世界ニ宣布スル為ニ必要ナルノミナラス又國民ノ自覺ヲ喚起シテ自信自重ヲ加フル所以ノカトモナルヘシ 世界ノ文明諸國カアラユル方面ニ亘リテ自國ノ文化ヲ内外ニ顯揚シ宣布スル為ニ広大ノ施設ヲ整ヘ文化活動ニ努力シテ互ニ後レサランコト是レ亦叙説ヲ要セサル顯著ノ事實ナリ ……」

…… 且ツ現時世界文化ノ危機ニ際シ西洋諸國ニ於テモ識者カ眼ヲ東方ニ注キ人類ノ将来ニ對シテ東方文化ノ貢獻ヲ望ミ其ノ為メニ一層深く東方特ニ日本ヲ研究セントスルノ機運顯著ナルモノナリ 此機ニ乘シ此傾向ヲ促進シテ我國並ニ東方文化ノ真義価値ヲ世界ニ顯揚スルハ實ニ我國ノ為メノミナラス實ニ世界ノ為メニ遂行スヘキ日本國民ノ重要任務タルヘシ此事業タルヤ多方面ニ亘リ困難ナルヘキハ勿論ノ次第ニシテ此カ為メニハ鞏固ナル機關ヲ組織シ官民力ヲ協セテ事ニ當ルヲ要ス我等カ茲ニ財団法人國際文化振興会ヲ組織セントスハ即チ此目的ニ出ツルモノトシテ本会自ラ必要ノ事業ヲ遂行スルト共ニ汎ク内外ノ団体個人ト連絡ヲ保チ又適當ノ援助ナシ以テ文化ノ國際的進運ニ資シ特ニ我カ國民及ヒ東方文化ノ顯揚ニカヲ致サンコトヲ期ス」

日本文化に対する自覚要求は、西洋文化に匹敵できる日本の文化を「堂々宣揚」し、「世界人類ノ文化福祉ニ貢献」するという狙いであるが、その裏には国民に対する「思想的背景の全線的吟味と統制」の目的が隠されていた。具体的には、1) 明治以来西洋文化摂取に奔走してきた結果、自国文化の優秀性に対する自覚が乏しかったことに対する反省の念と、2) 日本の國際的地位變化に相應しい文化価値を発信することによって、國際社会における「帝国日本」の新

28) 『財団法人國際文化振興会設立經過及昭和九年度事業報告書』(前掲書)、11~12頁

たな位置づけ、3) 国民の世論を集約し、官民一体の真価を發揮できる思想的指導原理を国民に披露する戦略として文化政策・外交が重視せざるをえないという論理である。

一言で云えば、文化戦線の国内的統一(官民一体²⁹⁾)で国民の思想的統合をはかり、それによって国際文化事業を体系的に行う中核的機関として創設されたのが「振興会」だということである。従って、「振興会」が行うべき「国際文化事業」も、最初から日本文化の優秀性を一方的に世界に「宣揚」することに集中していた。「振興会」の事業内容(表1、参照)がそれを物語っている。

これを見ると、まるで近代における西欧と東アジアの関係を象徴した「西方東漸」の流れを、これからは日本が先頭に立って「東方西漸」の流れに変えようとする帝国日本の意志が込められているかに見える。それは「振興会」の事業内容が、「東方文明唯一の代表乃至集積国」としての日本の「光り」を世界に知らしめようとした柳澤建や三枝茂智等の文化事業構想内容とほぼ一致していることから確認できる³⁰⁾。そして、これらの内容は、いずれも西欧諸国の文化事業の内容を綿密に検討してから出されたもので、それが最終的に「振興会」の核心的な文化事業として纏まったわけである。

*柳澤建の文化事業構想内容

- 1) 外国の諸大学に日本文化の講座を設置すること、
- 2) 日本語学校若しくは日本語学科を設置すること、
- 3) 学者その他の派遣・招聘及び交換を為すこと、
- 4) 学生の交換等を為すこと、
- 5) 出版物その他に依り日本文化を海外に紹介すること、
- 6) 美術品その他各種の文化資料の寄贈・交換をなすこと、
- 7) 内外にある国際文化団体に対し補助・助成をなすこと、
- 8) 展覧会・音楽会等を海外にて開催すること、
- 9) 演劇・映画などを海外に進出せしむること、
- 10) 国際的スポーツ並びに国技の海外進出に対し奨励の途を與ふること、

29) 「振興会」の主要構成メンバーをみると、まず顧問には総理大臣を始め、宮内・外務・文部大臣が名を連ねており、会長は総理大臣を歴任した近衛文麿が就任した。そして、主要理事と評議員には、大学の総長や教授を始め、財界の親と官僚、政治家等、いわゆる政・官・財・学を総網羅している。

30) 柳澤健「国際文化事業とは何ぞや(続)」(前掲論文)、44~49頁

表 1. 「振興会」の事業内容(事業綱要)

<p>1) 著述、編纂、翻訳及ヒ出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文化活動の各方面に亘って日本語又は外国語の著述を創作、編纂、刊行する ・日本人による東方文化に関する学術論文などを外国語で翻訳、刊行する ・日本文化に対する外国語の良書を翻訳する
<p>2) 講座ノ設置、講師ノ派遣及ヒ交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外国の主要大学に日本文化に関する講座設置 ・外国の学校に日本語講座或は日本語学校設置 ・外国との講師の派遣及び交換を推進
<p>3) 講演会、展覧会及ヒ演奏会ノ開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名士の派遣、招請 ・外国における日本文化に関する展覧会開催 ・芸術文化の紹介及び演奏会開催
<p>4) 文化資料ノ寄贈及ヒ交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日本と東方文化の関する資料を外国の大学図書館などに寄贈 ・文化資料を海外の博物館などに寄贈、交換する
<p>5) 知名外国人ノ招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各分野の著名な人々を招いて、日本の真価を認識せしめる
<p>6) 外国人ノ東方文化研究ニ対スル便宜提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来日する日本文化研究者などに研究上の便宜を供与する ・外国の日本文化研究者等に研究上の便宜を供与する
<p>7) 學生ノ派遣及ヒ交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将来国際文化活動に従事できる優秀な学生を外国に留学させる ・優秀な外国の学生を招いて日本で留学させる ・内外大学の間で学生の交換を行う
<p>8) 文化活動ニ関係アル団体若クハ個人トノ聯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外国の日本文化・東方文化団体等と密接な関係を結ぶ ・国内の文化事業団体等に援助を図る
<p>9) 映画ノ作成及ヒ其ノ指導援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外国に宣揚すべき日本文化関連映画を制作する ・この種の映画を制作する団体・個人などには指導援助をする ・外国に輸出する日本映画には統制、検閲に協力する
<p>10) 会館、図書室、研究室ノ設置経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以上の事業を達成できる施設を日本と主要外国に設置するか、設置に援助をする ・本事業の中心値である東京になるべく早く中央会館を設置する

資料出：『財団法人国際文化振興会設立経過及昭和九年度事業報告書』（前掲書）、13～16頁

4. 戦後への継承—結びに変えて

内憂外患の危機的な状態で近代国家に生まれ変わった日本は、非西欧社会では唯一に近代化に成功した国である。そして、僅か数十年の間に「五大強国の一たる地位」を獲得した。この過程で日本の支配階級は、民族文化への意識鼓吹と民族精神の涵養を叫び続けた。世界からの

関心と民族意識の高揚を背景に、日本は優れた自国の文化を「発揚」し、世界からの「日本発見」と日本に対する「真の尊敬と愛とを世界大衆に惹起せしめ」ることを当面の国家的課題として受け止め実践に踏みきった。

その目的は明快だった。「民族文化の精神的基礎を基に」して「その自分の民族的理想が、同時に世界各国の少なくとも標本になる、示しになる、リーディング・パワーになるような理想」³¹⁾を具現することであった。日本の対外文化振興政策については、一部の識者の中では批判的な動きもあった。「振興会」の活動を「日本文化の侵略性」の観点からとらえた清澤淵は「非常時になってから、日本は世界一なり、世界一の持つ芸術と文化は亦世界一なり、故にこの世界一の芸術を感嘆せざる筈なし、といふやうな論理が流行するやうになってから、日本の文化は国家的援助の下に勢いよく流出している」³²⁾と論じながら、これはナチスの文化も同じであると指摘した。

清澤の問題提起は、日本の国際地位変化に伴った論理の歪曲現象の拡散とそれに乘せられた国家政策の無謀さに対する批判であった。だが、時代的認識は日本文化の対外侵略に対する警告の声に耳を傾けるような状況ではなかった。それよりは、「ヨーロッパ主義、世界を白人的見地からのみ考へる思想を打破して真の世界の統一を実現すべき」³³⁾思想として叫ばれた「東亜協同体の思想」が脚光を浴びる方向へ進んでいた。

世界史的思想として論じられた「東亜思想」の虚構は、「東亜ニ於ケル安定勢力タルノ実ヲ挙クルヲ帝国外交ノ中枢方針ト為ス」³⁴⁾という「帝国外交方針」(1936. 8. 7)に、また「挙国一致堅忍不拔ノ精神ヲ以テ現下ノ時局ニ対処」³⁵⁾することを命じた「国民精神総動員実施要綱」(1937. 8. 24)の宣布等の過程をへて、さらに全体主義を強化する刺激となったし、最終的には「大東亜新秩序の建設」を実現するという太平洋戦争のイデオロギーとして帰結され、その歴史的使命をつくすことになる。

この過程で日本精神の対外侵略性は、優れた日本文化の対外宣揚として彩飾されたり、米英帝国主義侵略に対する正当防衛として変えられたり、ナチスの「ヨーロッパ新秩序」に対応する「大東亜新秩序」の思想として歪曲されたり、絶えずその本質を隠したまま日本人の精神世界を支配していった。その虚構性が、また日本精神の鼓吹と文化政策・外交の強化を唱える識者層の談論を量産しながら³⁶⁾、帝国日本の文化膨張主義を更に刺激したし、且つ戦後の文化外交の歴史的基盤にもなった。

そして、戦後日本はヨーロッパの福祉国家やアメリカの軍事国家の道とは異なった、いわゆる産業国家としての道を歩んで「超大国」にのし上がった後、さらに文化国家としての道を模索し始めた。戦後日本の国家発展モデルは、様々な非難にも関わらず世界の混迷が深まる度に

31) 姉崎正治「国際文化事業の真意義」『財団法人国際文化振興会設立経過及昭和九年度事業報告書』(前掲書)所収、190頁

32) 清澤淵「日本文化の侵略性」『改造』1935年12月号、292頁

33) 三木清「東亜思想の根拠」(前掲論文)、12頁。三木は、この論文で「支那」の近代化と民族主義を肯定的にとらえており、「支那」の近代化こそ東洋の統一の前提であるという認識を明らかにしている。そういう意味では「東亜協同体論」の支配的な地政学的概念を歴史哲学的概念に再定義し=意味転換し、多様な個性者が対等に民族を構成し、多様な民族が対等に一つの『世界』を構成するというヴィジョンのもとに東亜協同体を構想したという内田弘の評価は一理があるかもしれない。「三木清の東亜協同体論」『専修大学社会科学研究所月報』(No. 508, 2005. 10. 20)2頁。しかし、日本の対「支那」に対する行動を基本的には「白人帝国主義からの解放する」こととしてとらえているし、この意識は前編を通して一貫している。特に、当時の時代的思想状況を考えると、三木の論理が日本帝国主義を弁護する役割を果たしたのは否めない。

34) 山田明編『外交資料・近代日本の膨張と侵略』(前掲書)、253頁

35) 山田明編『外交資料・近代日本の膨張と侵略』(前掲書)、257頁

36) 例えば、田中耕太郎「国際文化運動の理念」(『改造』1937年1月号)、「文化協定と文化工作」(『改造』1939年6月号)、三木清「文化の力」(『改造』1940年1月号)、矢野仁一「日支文化の交流」(『文芸春秋』1939年6月号)、高田正治「日支文化政策の将来」(『文芸春秋』1941年1月号)、等がある。

注目を浴びている。国際社会に漂っている対日観には、日本経済の国際的プレゼンスの拡大を素直に歓迎できない、いわば焦りに刺激された対日「批判」の強化という側面と、日本文化に対する心情的同意と経済発展を支えている日本的価値の再考或は吸収という側面が常に共存している。

戦後日本の文化外交は、一方では前者の解消と後者の拡大という理念的性向を浴びて展開されてきた。国際社会におかれた日本の立場を反映した結果でもある。だが、国際社会の対日観が次第に後者の方へ移動している現実を踏まえ、日本の文化外交も益々日本的価値の拡散に重点をおく方向へと動いている。その方向性がいかなる結果を生み出すかは別として、日本の政策路線がアイロニカルにも国際社会の要望と一致するところがある。この奇妙な「一致」が、今までのアジアの帝国日本によるトラウマや欧米の文明優越意識をこえ、今後の日本の国際的地位をさらに高めていくバネになると思われる。

김선생님 발표 내용의 의의

김선생님 발표는 첫째, 제국일본의 문화외교의 인식과 체제구축의 전모를 알기쉽게 설명해 주셨고, 그 이념과 방향성이 전후에도 계승 혹은 연속하고 있다는 귀중한 지적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위와 같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발표의 도입부분이 독창적이고 독특하다는 점입니다. 즉 김선생님 일본문화연구방법론으로부터 본 발표의 연구사적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질문

1. 제국일본에서는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제까지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알리고자 했던 (우수한)일본문화, 그 자체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는 점.
국제문화진흥회 설립목적에 ‘일본 및 동방문화의 해외선양’ 의 의미.
2. 제국일본의 문화외교이기에 누구를 향한 일본문화 선전인가에 따라 일본문화 자체에 대한 설명에 차이는 없었는가 하는 점.
서양제국에 향한 일본문화 선전, 대립하고 있는 중국, 식민지 한국, 장차 끌어들어야 할 대동아공영권의 국가 등
3. 제국일본 문화외교의 전후의 계승과 관련하여 무엇이 전후에 계승되고 있다는 것인지.
‘일본문화의 침략성’ 말함인가.
4. 김선생님의 발표와 김선생님의 일본문화연구관과 관련하여

金先生の発表内容の意義

金先生の発表は、第一に帝国日本の文化外交の認識と体制構築についてその全容をわかりやすく説明し、また文化外交の理念と方向性が戦後にも継承あるいは連続しているという貴重な指摘にその意義がある。

第二に、上記のような内容を分析するための発表の導入部分が独創的であり、独特である。すなわち、金先生の日本文化研究方法論から本発表の研究史的意味を位置付けているところである。

知りたいところ (質問)

1. 帝国日本では時期によって、文化外交の重要性を認識し、体制を構築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が、それによって知らせようとした日本文化、その自体についてはどのように説明なされたのかについて。

関連して、国際文化振興会の設立の目的に、「日本及東方文化ノ海外宣揚」となっている意味について

2. 帝国日本の文化外交であったために、文化外交の相手によって日本文化その自体に対する説明には差がなかったのか

西洋諸国に向かって日本文化の宣伝、対立している中国、植民地の韓国など、将来「大東亜共栄圏」に含めるべき地域、日本国内用

3. 帝国日本の文化外交の戦後の継承と関連して、何が戦後に継承されると教えるのか。「日本文化の侵略性」?

4. 金先生の発表と、金先生の日本文化研究方法論との関連について。

제국일본의 대외선전활동과 식민지조선
- 「Carnegie재단주최동양시찰미국기자단」을 중심으로

- 小林聰明 (大阪市立大 研究員)
指定討論 - 李利範 (강릉대 교수)

프 로 필

小林聰明(Kobayashi Somei)

大阪市立大 研究員 동아시아 미디어사

■ 주요저서 및 논문

『재일 조선인의 미디어 공간: GHQ점령기에 있어서의 신문 발행과 그ダイナ미즘』 2007

『문화냉전의 시대: 미국과 아시아』 공저, 2009

『자료로 본 세계의 8월15일』 공저, 2008

『동아시아의 종전기념일: 패배와 승리의 사이』 공저, 2007

『전쟁, 라디오, 기억』 공저, 2006

외 다수

제국일본의 대외선전활동과 식민지조선

- 카네기재단 주최 동양시찰 미국기자단을 중심으로 -

小林 聡明

고바야시 소메이

1. 들어가는 말

현재 문화외교 (Cultural Diplomacy), 홍보외교(Public Diplomacy)‘ 소프트 파워(Soft Power)라는 말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용어들은 외교에 있어 군사력뿐만 비군사적 수단을 강조하는 것으로 외교상에 있어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군사적 외교수단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19세기말 이후, 구미와 아시아지역에 있어 신문조종이라고 불리는 정보 통제를 통해 대외선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일본은 19세기말 이후, 구미와 아시아지역에 대한 ‘신문조종’이라고 말해지는 정보 통제를 통해 대외선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돌입한 20세기 전반기에 세계각지에서 자국을 홍보하는 선전활동이 본격화 되었으며, 그 결과 선전전과 사상전이 전개되었다.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문화외교와 홍보외교는 국가에 의한 선전활동은 장기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제국일본의 대외선전활동에 대해 1929년 실시된 ‘카네기재단 주최 동양시찰미국기자단’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려고 한다. 제국일본에 의한 대외선전에 관한 연구는 중일전쟁 이후 전쟁시기와 메스미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¹⁾ 본고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기자단 동양시찰은 중일전쟁 이전 시기에 추진된 일본의 인물교류에 의한 대외선전활동이다. 따라서 본고는 제국일본이 추진한 대외선전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일본의 홍보외교와 관련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 공개한

1) 주요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조성운 「1920년대 초 日本視察團의과견과 성격(1920~1922)」 『韓日關係史研究』 25集, 2007年. 김영숙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대외 선전-대외 선전 집지와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日本歴史研究』 第24集, 2007年. 朴順愛 「戰前日本の対米宣伝政策と写真報道」 『日本学報』 第60号, 2004年, 박순애 「일본의 대소 진과전과 조선의 라디오」 『日本研究論叢』 第26号, 2008年. 朴順愛 「朝鮮總督府の情報宣伝政策」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第49号, 1996年, 朴仁植 「日本の植民地朝鮮における情報・宣伝政策」 『政治經濟史学』 2007年. 大谷正 『近代日本の対外宣伝』 研文出版, 1994年 등.

약860페이지에 달하는 외교문서 ‘카네기재단 주최 동양시찰미국기자단’ (제1권-3권)을 주요자료로 활용한다.

2. 동양시찰 실시를 위해

(1)가와카미 키요시(河上清)와 카네기 재단

1929년 겨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외무차관과 야마모토 쇼타로(山本条太郎) 만주철도(만철) 총재는 미국에서 기사를 초청하는 ‘극동관광’ 모색했다. 이러한 생각은 동경에 머물고 있던 미국주재 저널리스트 가와카미에게 전달되었다. 가와카미는 콜롬비아대학총장으로 카네기재단 사무국장인 버틀러(Nicholas Murray Butler)²⁾ 와 쇼트웰(James Thomson Shotwell)과 만나 일본측이 미국기자로 구성되는 시찰단을 일본에 초청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버틀러는 만철 등이 추진하는 일본시찰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보였고, 일본측은 카네기재단 주최 시찰이라는 형식이라도 상관없다는 점을 가와카미에게 전달했다.

버틀러와 가와카미의 만남에서 버틀러측은 시찰단의 규모와 경비부담에 관해 언급이 있었다. 카네기재단은 이미 4-50명으로 구성되는 구주시찰단을 조직하는 등, 해외시찰단 파견에 관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시찰단의 단원의 규모가 15명정도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기자단 초빙에 소요되는 경비 중 10%정도를 재단 측이 부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가와카미는 버틀러측으로부터 필요경비에 관해서는 만철총재와 협의 후에 회답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 점은 가와카미와 버틀러측이 이번 시찰이 만철이 사실상의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가와카미와 버틀러와의 회담내용은 1929년 1월 23일 테부치 가즈지(出淵勝次)주미대사를 통해서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외무대신에서 보고되었다.³⁾ 28일, 외무성은 버틀러가 제안한 대로 미국기자단의 동양시찰을 카네기재단이 주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소요경비 지출 승인을 테부치에게 전달했다.⁴⁾ 테부치를 통해서 외무성의 승인내용을 접한 가와카미는 버틀러와 쇼트웰을 접견, 카네기재단이 주최하는 것으로 미국기자단의 동양시찰을 실시에 승낙을 얻어냈다.

2월 15일, 가와카미는 카네기재단으로부터의 승낙을 요시다에게 보고했다.⁵⁾ 가와카미는 외무성 핵심라인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기자단의 동양시찰 실시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그렇지만 가와카미는 버틀러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비밀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기자단의 동양시찰에 가와카미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쇼트웰, 테부치, 만철 뉴욕지점장 만이 알고 있었다.⁶⁾ 여기에는 동양시찰이 카네기재단 주최라는 형식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은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2) 1931년 노벨평화상 수상.

3) 電報22号 : 1929년1월23日, 「カーネギー財団主催東洋視察米國記者団」 (以下、省略) 第1卷 No.003

4) 電報43号 : 1929년1월28日、第1卷 No.004-005 田中外務大臣→出淵大使

5) 書簡 : 1929년2월15日、第1卷 No.0006-0008

6) 書簡 : 1929년2월24日、第1卷 No.0013-0014

(2)민관협력과 ‘리버럴 내셔널리스트’ 지식인

1929년2월말, 일본측과 카네기재단측과의 협의결과, 동양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1인당 8백 달러(총12,800 달러), 파견자수는 재단측 인원을 포함해 16명으로 결정되었다. 경비는 기본적으로 만철, 일본 및 조선의 철도성, 일본유선(日本郵船), 다이렌기선(大連汽船) 등 일본측이 부담한다는 것이 재단측과 합의 되었다. 필요경비 12,800달러는 만철로부터 뉴욕정금은행(紐育正金銀行)으로 송금한 후, 카네기재단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취했다.⁷⁾ 재단 측에 경비를 송금한 것은 미국기자단의 동양시찰이 어디까지나 카네기재단의 계획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는 것을 가장하기 위함이었다.

가와카미는 뉴욕의 일본교통공사(Japan Travel Bureau: JTB)로부터 자료를 받아, 재차 필요경비의 계산을 산출한 결과, 당초 예산의 3배인 1인당 2500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데부치(出淵)를 통해 도쿄 외무성에 보고되었다.

3월 13일, 데부치는 가와카미의 계산대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도쿄로부터 전문(電文)이 전달되었다. 전문에는 초청 기자단수를 줄이는 방법, 기자단에게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방법, 중국방문 일정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가와카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⁸⁾

도쿄의 지시에 대해 데부치는 17일 교통비 할인, 혹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경비 삭감이 가능하다는 답신을 보냈다. 또한 데부치는 이미 카네기재단은 주최자로서 초청장을 발송한 상태이므로 시찰 중지가 불가능 하고, 중국방문을 중지한다면 동양시찰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던 외무성에 재고를 요구했다.⁹⁾

데부치의 답신을 받은 외무성은 만철측과 협의에 들어가 동양척식(東洋拓殖), 도쿄전등(東京電燈), 후루가와전기(古河電氣), 미쓰비기전기(三菱電機), 시바루제작소(芝浦製作所), 일본전기(日本電氣), 도쿄전기(東京電氣) 등으로부터 협력을 얻어 기부를 받게 되었다. 외무성은 데부치에게 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으며,¹⁰⁾ 4월4일 필요한 경비가 만철로부터 뉴욕정금은행에 송금되었다.¹¹⁾ 각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은 5월말에서 7월초까지 입금되었다.¹²⁾

미국기자단의 동양시찰은 산업계로부터 협력을 얻음으로써 실현가능하게 되었다. 미국기자단이 일본에 도착해 시찰이 시작된 후에도 외무성은 산업계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¹³⁾ 산업계는 미국신문기자단의 동양시찰이 궁극적으로 대미관계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 확보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시찰단의 경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기자단의 동양시찰에 일본정부는 산업계를 필요로 했으며, 산업계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의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신문사¹⁴⁾와 대학, 각종단체 등도 동양시찰 실현에 협력을 했

7) 電報69-2号 : 1929年2月28日、第1卷 No.0009-1

8) 電報91号 : 1929年3月13日、第1卷 No.23-25

9) 電報92-1号 : 1929年3月17日、第1卷 No.26-27

10) 電報92-2号 : 1929年3月17日、第1卷 No.28-29

11) 電報122号 : 1929年4月4日、第1卷 No.52

12) 第2卷 No.0406-0409

13) 5月27日 : 電報、第3卷232-235

14) ジャパン・タイムス社。新聞連合社。日本電報通信社、東京朝日新聞社、東京日日新聞社、時事新報社、報知新

다. 도쿄제국대교수와 태평양문제조사회(日本 IPR), 미일협회, 미일관계위원회 관계자 등 다수의 지식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太平洋問題調査会(日本IPR)	井上準之助
東京帝国大学	姉崎正治
日米協会	樺山愛輔
日米協会	武田亦治
日米關係委員会	阪谷芳郎
日米關係委員会	小畑久五郎
日米關係委員会	宮岡恒次郎
日米關係委員会	頭本元貞
日米關係委員会	鶴見祐輔

1920년대 중반, 일본계 이민자 배척문제와 중국과의 불평등조약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의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1925년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학술·문화교

류를 통해 태평양지역 민족간 우호관계 촉진을 목적으로 태평양문제조사회(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PR)가 발족했다. IPR은 윌슨의 국제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비당파적연구단체’라는 점을 조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1926년에는 1915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본계 배척운동이 고양되는 것을 우려해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미일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IPR 일본지부인 일본태평양문제조사회(日本IPR)가 발족했다. 평의회 회장에 시부사와가, 이사장에 이노우에 준노스케(井上準之助, 후에 니도베 이나조우 新渡戸稲造)가 취임했다. 일본IPR은 미일관계 안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업가와 지식인을 지도층으로 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를 지지하고, 기독교적 인격주의와 윌슨의 국제주의에 공조하는 전전의 대표적 자유주의파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사연구가인 유이 다이사부로(油井大三郎)는 그들이 중국침략 등 제국일본의 확대에 반대하지 않고, 미일전쟁 만을 회피하려는 ‘자유주의적 내셔널리스트’라는 점을 지적한다.¹⁵⁾ 미국기자단의 동양시찰 실시에는 ‘리버럴 내셔널리스트’라고 불러야 할 다수의 지식인이 협력하고 있었다.

(3)카네기재단의 파견기자 선정

일본측과의 동양시찰 실시를 위해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 카네기재단측은 파견기자 구체적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1929년 2월 하순, 버틀러와 쿠퍼(Kent Cooper) AP통신사장 (General Manager), 하워드(Roy W. Howard) 등에 시찰단 참가를 타진했다. 그리고 전미 신문사와 통신사 앞으로 초대장이 발송되었다.¹⁶⁾ 신문사·통신사 선정은 버틀러를 중심으로 카네기재단측이 담당했으며, 일본측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¹⁷⁾ 그러나 ‘볼티모어 선’ (The Baltimore Sun) 등 6개 신문사가 동양시찰에 참가를 사퇴했다. 시찰단 구성은 기자 15명과 재단 담당자 1명 등 총16명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사퇴자로 인해 동양시찰은 미국각지 신문사에

聞社、国民新聞社、やまと新聞社、中外商業新報社、万朝報、読売新聞社、都新聞社、中央新聞社が協力していた。

15) 油井大三郎 『未完の占領改革—アメリカ知識人と捨てられた日本民主化構想』 東京大学出版会、1989年、5-6、12-14頁

16) 書簡：1929年2月23日、第1巻No.0021-0022。電報69-1号：1929年2月28日 第1巻No.0009
招待状は、次の通信社、新聞社に発送された。Associated Press、Atlanta

Constitution, Baltimore Sun, Boston Transcript, Chicago Daily News, Cincinnati Times-Star, Detroit News, Houston Post, New York Herald-Tribune, New York Times, Omaha World-Herald, Portland Oregonian, St. Louis Post Dispatch, St.PaulPioneerPress,UnitedandScrippeHoward.

17) 電報69-2号：1929年2月28日、第1巻No.0009-1

서 선발된 11명의 기자와 재단 담당자 1명, 총 12명이 참가하게 되었다.¹⁸⁾ (참가자 이하 표참조)

米国記者団の構成	
George S. Johns	Editor in Chief, St. Louis Post Dispatch
Gideon A. Lyon	Associated Editor and Part Owner, The Washington Star
Francis W. Clarke	Managing Editor, The Atlanta Constitution
William Philp Simms	Washington Correspondent, Scripps-Howard Newspapers
Harry B. Wakefield	Editorial Writer, The Minneapolis Journal
Wilbur Forrest	Washington Correspondent, The New York Herald Tribune
Herbert L. Matthews	The New York Times
Francis E. Rega	The Springfield Republican, Massachusetts
Fred Hogue	Reporter, The Los Angeles Times.
Paul W. Wright	Staff Correspondent, The Chicago Daily News
Judd M. Lewis	The Houston Post, Texas
George A. Finch	Washington representative of the Endowment

일본 외교사료관의 문서를 통해서 참가 연령이 48세부터 71세까지로 유력 신문사 간부를 역임하고 화려한 경력을 지닌 기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동양시

찰에 선발된 기자들은 모두 언론에서 일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실제로 테부치가 다나카 외무대신 앞으로 보낸 전보에는 카네기재단 측이 방문기자들이 ‘각지방의 영향력 있는 인사로 유력한 기자’ 라는 점을 알려왔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²⁰⁾

또한 카네기재단측 담당자로 워싱턴주재 대표 피치(George A. Finch)가 시찰단에 수행했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유력한 인사였으며, 미국국제법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Law) 이사와 미국국제법잡지(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편집위원을 맡고 있었다.

(4) 합의된 ‘전략’ 과 도달점으로서 미일우호

미국기자단 동양시찰 목적이 일본측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3월 경이었다. 1929년 3월 10일 테부치가 외무성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이번 시찰 목적이 ‘동양의 실황과 시찰연구에 중점을 둔다’ 고 밝히고 있으며, 연회와 연설은 시간을 줄이고, 경제적, 문화적 발전과 일본 가정을 소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테부치는 시찰 목적이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인상을 주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²¹⁾.

동양시찰 실치를 향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시찰을 위해 일본측뿐만 아니라 가와카미와 베틀러가 주축이 되어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이점은 카네기재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베틀러 개인 입장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어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4월 6일, 베틀러는 카네기재단 실행위원회에서 동양시찰 실시에 대한 승인을 요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위원

18) 『東京日日新聞』 1929年4月10日付 (夕刊)

19) 第1卷No.285-288

20) 第1卷No.0046

21) 機密電報187号 : 1929年3月10日、第1卷No.0010-0012

중에는 카네기재단 주최 시찰에 일본 측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미일우호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일본인 실업가의 선견지명이 있다는 점을 들어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다.²²⁾ 이 점은 이미 카네기재단 측이 일본 산업계의 목적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4월 8일, 버틀러는 뉴욕에서 카네기재단이 주최한 자리에서 일본 철도성, 일본우선(日本郵船), 오사카상선(大阪商船), 만철(滿鐵)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미국유수의 신문기자 11명이 일본, 조선, 만주, 지나 시찰여행을 위해 4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평양호로 출발한다’ 고 발표했다. 버틀러는 시찰의 목적이 ‘동양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환기시키는 것’ 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찰 지역은 일본만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일본, 중국, 만주, 조선을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일본의 요구는 두 가지로 첫째, 중국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국정의 차이점을 미국 측에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중국과 ‘우호관계’ 를 구축할 필수불가결하다는 일본 측의 생각을 미국에 전달하고자 하는 요망이 있었다. 이러한 일본 측의 요망을 재단 측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본시찰은 ‘동양시찰’ 로 확대되었다.

버틀러가 발표한 동양시찰 내용은 ‘도쿄일일신문’ (東京日日新聞) 외,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와 허럴드 트리뷴(The Herald Tribune)등 미일 양국 미디어로 보도되었다.²³⁾ 신문들은 동양시찰이 일본 측 요망을 받아들였지만, 어디까지나 카네기재단이 주최하는 것이라는 원칙이 견지되고 있었다. 이 점은 동양시찰은 미국이 주체적으로 ‘동양에 대해 이해’ 하는 시도이고, 단순히 일본의 대미선전활동이라고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일본 측과 카네기재단 측이 합의한 ‘전략’ 에 따른 것이었다. 그것은 외무차관 이었던 요시다 시게루의 발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4월 30일 동양시찰실시를 위해 자금협력 기업의 관계자가 참석한 ‘차관다과회’ 가 열렸다. 요시다는 인사말에서 동양시찰의 실시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²⁴⁾ 동양시찰은 표면상 카네기재단이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측이 미국 신문을 통해 미국 국민에게 일본사정과 일본과 경제적,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극동사정을 정확히 이해시키려는 열망으로부터 카네기재단에 의뢰하고, 재단 측이 주최자가 되었다. 요시다는 카네기재단도 미일우호의 관점에서 일본 측 의뢰를 승낙 했다고 언급, ‘내부사정을 절대로 누설하지 말 것’ 을 출석자에게 요청했다.

미국신문기자의 동양시찰은 기사를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일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그것이 미·일 우호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일본 측의 기대와 그에 대한 재단 측의 동의를 기반으로 기획되었다. 미국인들이 동양시찰을 대미선전활동으로 모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자단에 의한 동양 시찰이 일본 측의 요청인 것을 숨기고, 어디까지나 미국 측이 ‘자주적’ 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위장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형식’ 자체가 일본과 재단 측이 합의돼 미·일 우호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전략’ 임에 다름없었다.

3. 동양시찰 실시

22) 電報110号 : 1929年4月9日、第1卷No.46-47

23) "U.S. Newspaper Men to Tour Orient On Peace Mission", The Herald Tribune, April 9, 1929. "Newspaper Men to Go on Good-Will Tour", New York Times, April 9, 1929. 『東京日日新聞』 1929年4月10日付夕刊

24) 第3卷No.488-490

(1)일본에서 조선, 만주, 중국으로

1929년 2월 24일 가와카미로부터 버틀러에게 시찰 일정이 전달되었다.²⁵⁾ 계획에는 4월 24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 5월 10일에 요코하마에 도착. 8월 1일에 요코하마 출발, 16일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4개월에 걸쳐, 일본, 조선, 만주, 중국을 일주하는 여행이었다. 일본 체재는 26일 간으로, 도쿄, 교토, 나라, 오사카, 미야지마 등을 방문하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5일간, 만주는 20일간, 중국은 20일간 체재가 계획되었다. 만주에서는 심양, 장춘, 길림, 대련 등, 중국에서는 북경, 남경, 상해, 청도가 방문지로 결정되었다. 일본, 만주, 중국이 시찰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은 계획을 세운 일본 측이 미국기자단에 대해 이들 지역 상황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었다. 반면에 조선 체재는 아주 짧았으며 대만 방문은 계획에서 빠져있었다. 이 점은 일본 측 입장에서 식민지 상황이 미국기자단에게 선전 대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929년 5월 10일, 12명의 기자단이 요코하마에 도착, 이후 시찰일정을 바탕으로 방문지 추가와 일정을 조정 하면서 약 4개월간의 동양시찰이 실시되었다.

(2)미국기자의 눈빛 : 일본, 만주, 중국, 대만

미국기자들은 방문지에 대해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을까? 여기에서는 조선을 제외하고 일본, 만주, 중국에 대한 기자의 인식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대화’ 를 이룩한 일본에 대해 ‘친근감’ , 만주에 대해 ‘혼란’ 과 ‘정체’ 의 이미지,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여과 없이 나타나고 있다.

① 「근대」 국가로서 일본 - 문명, 부흥, 미일우호

문명	「오늘의 일본은 서양 문명이 가지는 문명과 대부분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5월 27일 : 연설회)
부흥	「부흥사업 결과, 도쿄시는 확실히 이전보다 한층 청결, 건강, 번영의 도시가 되었다. 재해는 일본국민의 불굴의 정신을 증명해 보이고, 대규모 사업에 있어 조직적의 능력을 보인다」 (5월 12일 : 라이언) ²⁶⁾
미일우호	「미일친선의 일본 측의 성의 . . . 고도의 문명을 가지는 근대국가인 현재의 일본에 우리는 존경과 호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6월 7일 : 클라크) ²⁷⁾

25) 第1卷No.0017
 26) 第3卷No.0228
 27) 第3卷No.0343

② 시장으로서 만주 - 개발, 정체, 혼란

개발 도시건설의 빠름, 근본적인 변화는 만주가 극동의 미국화 되고 있다 (6월 13일 : 심스)²⁸⁾ 都市建設の敏速且つ根本的なるは米国の其れを思はせるか此の点よりして満洲が極東の米国と化しつつあると云ひ得る」 (

일본에 호의와 개발 미국기자단은 만주에 대해 좋은 인상을 품고, 만주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했다. 그러나 기자단은 1928년 장작림 폭파 사건에 대해 일본 및 중국 측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새로운 의문점이 생겼다. 그들은 봉천에서 철도를 이용, 이동했을 때 한층 더 만철을 정비할 필요를 느꼈다.

7월2일 : 보고전보 : 만철본사→동경지사→사이토·외무성정보국장)²⁹⁾

정체와 혼란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전보장에 있다. 정부가 무능하고 불안정하고 재판소가 부패하고 불공평의 소굴, 약탈이 정직한 노동보다 유리한 지역에서는 영구의 투자, 발전, 진보는 있을 수 없다. 만주의 대부분은 불리한 상태에 있고, 일본이 만주에서 철수X일본것은 평화보장 및 정의의 최후 보루가 파괴되일본것이다. 최근 수 주간 만주 지역의 철도를 타고 주요도시에 체재, 통치와 산업 설비를 연구해야 한다. 일본의 권력을 확립시켜 남만주에 있어 진보와 평화 보장 및 정의를 위해 손을 끊고 전신함을 알아차려야 한다. (8월 7일 : 호그)³⁰⁾

「政府か無能且不安定’ 裁判所か腐敗と不公平の巢窟’ 略奪か正直なる労働より有利なる所には永久の投資’ 永久の発展及永久の進歩はあり得へからず° 満洲の大部分は斯る不利なる状態に在り／若し日本か満洲より撤退するとせば平和保証及正義の最後の堡か破壊せらるるに等に余は最近数週間満洲の多くの鉄道に乗車し主要都市に滞在し統治及産業の諸設備を研究せり° 日本の権力の確立せる南満に於ては進歩か平和保証及正義と手をたつさえて前身しつつあるを看取せり」

③ 항의하는 중국 - 협약과 반감

嫌惡 북경에 있을 때 중국 측은 미국기자단의 대우가 통일되지 않

28) 第2卷No.021-0022

29) 第2卷No.002-004

30) 第2卷No.0246

왔고 일행들의 불만이 컸으며 연극 관람 중에도 심한 더위로 졸도자가 나오는 등 인상이 나쁘다. 이에 반해 그들은 만주에 있어서 일본의 대우를 칭찬하고 또한 일본의 투자와 사업 경영을 보고 일본정부의 동북삼성 치안유지와 관련한 성명은 일본의 이익방호를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에 반해, 그들은 만주에 있어서 일본의 대우 모습을 칭찬해, 차일본의 투자와 사업의 경영 모습을 보고, 일본 정부의 동쪽 삼성 치안 유지에 관한 성명은, 일본의 이익 방호 처치로 해 지를 내정 간섭과 하고는 당등 여간내기와 이야 기주거지.(7월3일: 보고전문: 북경→만철동경지사→사이트 외무성 정보국장)³¹⁾

「北京に於ける支那側の米記者団待遇不統一にして余りに自己本位なるため一行は何れも不平を漏し居り数名の病者を出し居る外一日夜觀劇中も苦熱の爲卒倒者を出さんとせる等にて印象悪し。之れに反し彼等は滿洲に於ける日本の待遇振りを賞賛し且日本の投資と事業の経営振りを見て日本政府の東三省治安維持に関する声明は日本の利益防護処置にして之を内政干渉と為すは当らざるものと語り居れり。」(7月3日: 報告電報: 北京→滿鉄東京支社→齋藤外務省情報局長)

**반감
反感**

「제남에 있어 노골적인 선전으로 미국인 기자단은 반감하고 기분을 헤친다」

「꼼꼼하게 준비된 기념품을 증정 받은 일행은 열어보지도 않고 포레스트 등 3명은 무거워서 어쩔 수 없다고 결국 기차에 방치했다.」(7월6일: 보고전문: 후지다 총령사 청도→시데하라 외무대신)³²⁾

「濟南において露骨な宣伝に米国人記者団反感を抱き機嫌を損ねる。」

「入念に準備された「スーベニア」(濟南事件当時の慘狀を表はし英文の説明を附せる大型写真「アルバム」一冊英文「パンフレット」一冊自著せる陳調元の大型写真一葉及びツウジン画帳一冊にて一組)の贈呈を受けた一行は・・・開こうともせずフォレストら三名は重くて仕方ないとして遂に之を汽車に遺棄した。」(7月6日: 報告電報: 藤田總領事@青島→幣原外務大臣)

**항의
抗議**

「기자단의 비용을 일본이 지출하고 있어 단원의 기사

31) 第2卷No.0017-0019

32) 第2卷No.0032

들은 모두 일본에 유리하다」이 단체는 국제친선을 목적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이와 반해 중국인에게 의혹을 야기시킨다. 화평단체의 기자단이 중국을 악평하고 일본을 단아하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8월 7일: 국민일보 및 중앙일보)³³⁾

「訪日米國記者團は日本の宣伝計画なるかと題し、大毎英文版の満鉄か米國に於て大借款を起こさんとしつつあり」

「記者團の費用は日本の支弁する所にして団員の言論皆日本に有利なり。この団体は國際親善を目的となすと称するも結果は之に反し支那人方面に鮮からず疑惑を惹起せり。和平団体の發起せる記者團か支那を惡評して日本に阿欠せるは不可解なりと結へり」(8月7日: 『民国日報』および『中央日報』)

미국기자들은 동아시아에서 ‘근대화’를 가장 먼저 성취한 일본에 대해서는 매우 친화적이었다. 반면에 그 외 동아시아 지역은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냉담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혐오감마저 숨기지 않았다.

일본과 만주, 중국에 대한 미국 기자의 눈에는 ‘근대’의 도달점을 하나의 심급(審級)으로서 동아시아인들과 실상을 분리하려고 하는 권력이 구조화 되었다. 그러나 동양시찰 미국기자들의 이야기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지속·고착화 시키려는 제국주의적인 언설의 생산과 불가분인 것으로 보는 것은 관란하다. 다음 장에 이 점에 대해서 미국 기자들의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4. 식민지조선에서의 ‘경험’

(1)시찰일정

조선방문은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었지만, 일정은 막연했다. 일정이 구체화된 것은 5월 중순이 지나서 였다. 5월 21일, 조선 총독부 총무과장은 도쿄의 총독부 출장 사무소를 통해 외무성 정보부에 다음의 장소를 미국 기자단 시찰지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³⁴⁾

6월 10일 : 부산, 온양온천

6월 11일 : 대하저수지, 군산 후지이 농장

6월 12, 13일 : 경성,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복궁, 은사화학관, 수송동공립보통학교

33) 第2卷No.0253、025

34) 1929年5月21日: 電報、第2卷No.195-196

조선신궁, 미국인경영학교, 조선가정, 조선총독부경학원,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예과, 임업시험소, 창덕궁.

게다가 24일에는 도쿄의 총독부 사무소에서 외무성 정보부 앞으로 상세한 계획인 ‘미국 신문기자단 조선 시찰 일정안’ 이 통지되었다.³⁵⁾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 시찰은 일정안대로는 진행되지 않았다. 미국 기자단이 조선에 도착한 것은 예정보다 하루 빠른 6월 9일이었다. 또, ‘경성일보’ (1929년 6월 11 일자)에 공표된 시찰 일정을 보면, 방문지도 크게 줄어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자단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온양온천이나 대하저수지 시찰을 실시하지 않은 채 부산에서 직접 경성으로 향했다. 도착 후, 조선 체제가 1일 연장되었지만,³⁶⁾ 식민지 조선의 내정을 알기 위해서는 너무도 시간이 짧고, 충분하지 않은 일정이었다.

(2) 『경성일보』 보도

① 대미선전과 ‘미일우호’

9일 오전 8시 10분 , 미국 기자단의 일행을 실은 부관연락선 쇼케이마루(昌慶丸)가 부산항에 도착했다. 부두에는 타케우치 내무부장, 후지와라 고등 과장, 호시노 철도국 촉탁, 신문 간담회를 대표해 경성 일보사 사장의 마쓰오카 요스케, 부산 거주 외국인 단체 등 100여명이 환영을 위해 모여 있었다. 일행은 쇼케이마루호로 마중나간 오가와 농무 과장, 오다 통역관과 함께 하선해 시찰단의 안내자인 츠츠이 외무성 사무관과 악수를 주고 받았다. 그들은 자동차로 나누어 타고 용두산에 오르는 등 시내를 관광한 후, 휴식을 위해 호텔로 향했다.

호텔에는 일행을 환영하는 메시지가 게재된 ‘경성일보’ (1929년 6월 9 일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호텔 휴식중 경성 일보를 읽으며 회의에 감사를 표했다.’³⁷⁾

광고에는 미쓰이물산(三井物産) 이외, 미국총영사관의 환영광고도 실려있었다. 주목되는 것은 ‘경성일보’ 에 게재된 메시지 ("Welcome Ambassadors of Good-Will") 라는 문구였다. 이 문구는 우선, 일본인과 미국인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더할 수 없는 기회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 일·미 우호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그 중요성이 옮겨지고 있으며,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의 이웃으로서 일본은 미국과 손을 잡아 세계평화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양 시찰을 실시하는 미국 기자단에게 이와 같이 평화를 희구하는 일본의 모습을 미국인들에게 전달 할 역할이 기대 되었다. 더불어 메시지는 이번 조선 방문이 조선에 대한 기자들의 흥미를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instructive)’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일본 측의 요망이 명시되고 있었다. 즉, 조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미국 기자에게 이해시킨다는 의미는 그것이 「교육적」이며, 미국 기자단에 의한 조선 시찰이 일본의 대외 선전 활동의 일환이었다.

10일, 일행은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미국기자단 환영만찬회’ 에 참석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를 방문했다. 마쓰테라(松寺)법무국장이 조선총독부 대리로 환영사를 낭독했다. 당시 만찬장의 모습

35) 5月24日 : 第1卷No.204

36) 『京城日報』 1929年6月13日付

37) 『京城日報』 1929年6月10日付

을 ‘경성일보’ (1929년 6월 11일자)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환영사는 전남산 종이에 영어와 일어로 인쇄해 기자단에게 건네졌으며, 기자단 측에서도 성심성을 다하는 총독부의 환영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종이에 일본어와 영어로 기록된 환영사가 인쇄된 것이다. 그것은 미국 기자단에 대해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이름의 ‘동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었다. ‘경성일보’가 굳이 ‘전남산’인 것을 언급한 것은 미국 기자단 뿐만 아니라 식민지 주민에 대해서도 ‘동화’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려는 선전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성일보’는 미국 기자단이 조선의 종이에 일본어와 영어로 기록된 환영사를 ‘기뻐하며’ 받았다고 전했다. 이미 일본에 의한 조선 식민지 지배가 미국에 의해서 인정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미국 기자단 환영에는 제국일본의 대외 선전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강하게 나타나 있었다. 미국 기자단에 의한 조선 시찰은 그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조선의 상황을 전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식민지 조선의 주민에 대한 선전으로서 그 자체가 활용되었다.

②대식민지선전과 「근대국가」 일본

미국 기자단의 조선방문에 맞춰 ‘경성일보’는 6월 11일부터 4일간 연속으로 ‘미국 기자단 미국 기자단이 조선을 방문하는데 아울러, 「경성일보」는 6월 11일부터 4일간 연속으로, 「米国記者の見たる日本」이라는 제목의 연재 기사를 게재했다. 미국 기자들이 일본의 훌륭함을 칭찬하는 말을 게재한 기사는 명확히 식민지 주민에 대한 선전이었다.

‘일본인에 대해 감탄과 존경의 마음을 받으며 . . . 용감한 일본인의 국민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도쿄, 요코하마의 부흥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우리는 깜짝 놀랄 따름이다’ 폴·W·라이트 ‘경성일보’ 1929년 6월 11 일자

‘활동과 진보로 충족된 이 대국가는 장래에 더욱더 위대하고 강대하게 될 것이다. 생각건대 이것이 일본을 방문해 얻은 처음의 인상이다. 일본과 미국은 무수한 공통점이 있다. 자발적이며, 활동적인 것은 그 일례일 것이다.’ 월버 포레스트 ‘경성일보’ 1929년 6월 12 일자

‘과학 공업에, 근대국가에, 모든 문명의 정체를 발하는 장족의 진보를 이룬 일본을 본 우리의 일본 여행은 실로 흥미롭고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죠지 존즈 ‘경성일보’ 1929년 6월 12 일자

‘일본 어디에 가도 그곳에는 근면과 절약, 그리고 따뜻한 우정이 있는 밤이되면 단란한 자족의 짐등이 밝게 빛나 보인다’ 쥘트 루이즈 ‘경성일보’ 1929년 6월 13 일자

‘일본국민이 과거 50년간 구축한 눈부신 진보의 자취는 외부인들에게 깊은 인상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상하를 불문하고 거국적으로 진보를 계속하고 있다. 자연에 축복을 받고, 진취

적인 국가가 장래에 세계에 있어 가장 진보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프랜시스·W·클릭 「경성 일보」 1929년 6월 13 일자

‘경성 일보’는 미국인 기자의 ‘입’을 통해 일본의 ‘우수함’, ‘근면함’ 등을 강조함으로써 식민지 주민에게 일본이 ‘근대국가’이며, ‘문명국가’인 것을 인상지었다. 거기에는 ‘근대화’를 완수해 높은 ‘문명’을 가진 일본이 ‘뒤쳐진’ 조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미국 기자단은 이러한 일본측의 목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언설을 하고 있었다.

(3)미국기자에 의한 언설생산과 식민지지배 정당화

아틀랜타 컨스티튜션지 편집장 클릭은 경성에서의 인상을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다. 그는 우선 조선이 얼마나 ‘뒤쳐져 있나’를 지적하고 일본이 ‘뒤쳐진’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점에서 칭찬하고 있다.³⁸⁾

‘1910년, 한일 양국 정부의 완전한 합의 양국의 병합 성립. 병합 당시 조선인은 과거 수백년간의 불안정의 결과, 국민 대부분이 빈곤에 빠져 있었으며, 문명의 정도도 저급한 수준에 있었다. 철도 없고, 관개 시설 없고, 도로 같은 것 없었다. 지금의 경성은 근대도시로 새롭게 건설되어 확대되고 있다. 학교도 있고 적어도 천만엔 정도가 들었을 총독부건물도 있고..... 수백년 뒤떨어짐을 일본은 불과 19년 만에 근대화 시켰다. 일본국민의 불굴요 정신이 유감없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또한 클릭은 일본에 의한 조선의 ‘근대화’가 조선인의 독립에 대한 염원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강경수단 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인이 정치적 발언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의 일본화를 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백년간 외국의 억압에 의한 빈약한 조선이 영구 평화와 밝은 미래가 열려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독립을 상실했다고 분개하고 있지만 일본의 지도하에 빈곤과 고뇌를 구함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크다는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

「日本は強硬手段を執るの已む無きことありたり。朝鮮人が政治上の發言權を殆んど有せず。他方 日本は朝鮮の日本化を図りつつあるは事實と認めらるるも数百年間の外国の威圧に依り貧弱となれる朝鮮が 今や永久の平和と光輝ある未來とを樂しむに至れるも亦事實なり。教養ある朝鮮人士にして獨立の失はれたるを嘆くものあるも 時と共に日本の指導下に其貧窮と苦惱とより救はるるに従ひ 朝鮮人は彼等の失へる處は大なるも獲たる處は之よりも遙かに大なりしを悟るに至るへし。」

38) 第3卷No.0356

일본과 조선을 ‘진보’와 ‘정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논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클락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심스는 ‘잘 수 있는 조선, 눈을 뜨다: 일본인의 자극 아래에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집필했다.³⁹⁾ 기사에는 우선 긴 세월을 걸쳐 변화가 없었던 조선(chageless Korea)이 일본의 강한 자극 아래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이 많은 면에 있어 근대화 시키고 있으며 그것은 노동과 교육 현장에서 표면화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사는 조선에서의 일본의 입장에 대한 도덕성(morality)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지만, 일본의 조선병합이 조선인의 생활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존즈도 같은 논조의 기사를 쓰고 있다. 일본은 조선의 독립에 대해 융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고 조선의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발전시키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⁴⁰⁾ 조선인 중에는 조선 독립을 강하게 바라고 일본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건설적인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no constructive plans or ideas)고 지적한다. 그리고 일본이 ‘뒤쳐진’ 조선을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미국 기자들은 일본에 의한 조선 지배를 정당화 시키는 언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언설의 생산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은 공범 관계에 있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염원인 ‘미일 우호’가 식민지 지배의 시인(是認)을 중요한 요소로서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4)조선인의 호소

조선 체재 중 미국기자들은 조선인이 품고 있는 독립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지 느끼고 있었다. 만주철도의 미국인 고문이며 경성에서 기자단과 동행한 키니 (Henry W. Kinney)는 미국 기자단의 모습을 쓴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다. 비밀 보고서에는 조선인이 미국 기자단에게 식민지 지배의 가혹함을 호소하려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다.⁴¹⁾ 대부분의 미국 기자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긍정적으로 파악해 조선인의 독립 염원에 대해서 냉담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조선인 및 중국인은 본 단체에 대해 일본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고, 일행이 경성에 다달했을 때 조선인은 일본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탈당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실이 실린 신문용 기차에 배포했으며, 일행이 경성에 체재 중일 때 집요하게 비밀회견을 강요했다. 시찰단원들이 있는 방에 들어오는 등 온갖 수단을 통해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강압사정을 호소하는 행동도 있었지만 일행의 대부분은 일본 측의 시정을 시인, 조선인 만으로는 도저히 오늘과 같은 발전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본정부는 조선의 발전을 위해 필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朝鮮人及支那人側は該団に対し排日中傷を吹き込まんとして’先つ同一行[が]京城

39) 7月5日付新聞記事 (Simms) 第3卷No.0034 Dormant KoreaAwakes:Under Spur of Japanese

40) "Korea and Manchuria: A Close-Up" 「セントルイス・ポスト・ディスパッチ」 8月7日付、第3卷No.0061

41) 7月13日: 機密電報645号、第2卷No.0090および"Security Confidential: Vist of Party of American Journalist in Chosen and Manchuria, Dairen, July 1st, 1929"、第2卷No.0095

に近づくや、鮮人は日本当局のため[に]言論の自由を束縛せられ居る旨を暗示せる社説を掲ぐる新聞を汽車内に於て配布し、或は同一行京城滞在中執拗に付口ひて秘密会見を迫り、甚しき至りては、屋根伝ひに団員の居室に入るむと企つる等、種々なる手段に依り日本の鮮人圧迫事情を誇大に訴へむと策動せるものありたるも一行の大部分は、何れも日本側の施政を是認し、鮮人のみにては到底、今日の如き向上発展を見ること不可能なりしならむとて将来共日本側権政は鮮人発展のため必然的に継続せらるべきものなりとの観察を下し、

미국 기자단에게 조선의 현상을 직접 알려려는 조선인의 움직임에 대해 키니는 기자단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조선인이 기자단에게 접촉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없었으며 접촉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이 접촉을 강행하려고 한 것은 그들이 ‘억압’ (suppression)이 얼마나 과장된 이야기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는 증거이다. 이 설명에 대해 미국 기자단은 납득했다고 한다. 또한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미국 기자가 억압을 호소하는 조선인의 주장에 전혀 감명을 받지 않았으며, 조선인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米国記者団に朝鮮の現状を直談判しようとする朝鮮人の動きについて、キニーは記者団に、こう説明した。日本政府は朝鮮人が記者団に接触しようとするのを妨げたことは一切無く、そうしようとすれば、十分に容易に可能となつたはずである。にも関わらず、朝鮮人は、接触を強行しようとした。そこまでしようとするのは、朝鮮人に対する「抑圧」(suppression)が、いかにひどいものかを示す、彼らのパフォーマンスであると説明した。これに対して、米国記者団は完全に納得したという。さらに報告書には、大部分の米国記者が抑圧を訴える朝鮮人の主張にまったく感銘を受けていない。そして朝鮮人は社会を發展させる能力に欠けていると記されていた。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보고서에 언급된 ‘동아일보’의 사설이다. 사설에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 정부당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자료가 아니라 기자단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으면 한다는 호소가 주요 내용이었다. 한층 더 사설의 내용은 일본의 조선 정책이 조선인의 소원과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판이었다.

라이언도 동아일보 사설에 주목해 ‘경성에서’라는 제목의 6월 13일자 통신에서 당시 상황을 언급하였다.⁴²⁾ 라이언은 이 사설이 조선의 신문이 독립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일본의 조선 통치는 착취를 목적으로 조선인의 정치참가를 금지하고 그들의 ‘국민적 정신’을 크고 퇴조 시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언은 조선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를 통해 ‘국민적 정신’이 지혜 있는 사람과 무지한 사람을 불문하고 일본민중에 뿌리 깊게 박힌 것이며 지금까지 여행자들에게 간과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이언의 개인적인 감상이 기록되고 있다.

42) 第3卷No.0239

‘나는 솔직히 조선의 경제 사정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좋은지 모겠다. 과연 일본이 조선의 나라와 인민을 착취하고 있다면 무고의 백성에 대해서 슬퍼해야 할 것이다’

라이언의 조선에 대한 눈빛은 ‘뒤쳐진’ 조선이 ‘발전한’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이 없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다른 미국 기자들과는 달랐다. 그것은 ‘경성일보’에 게재된 라이언의 코멘트에서 잘 나타나 있다.

‘조선에 와서 내지와는 어딘지 모르게 상당히 다르다고 느꼈지만, 비가 적고 경작이 약간 곤란하다는 점이 먼저 느껴졌다. 조선인의 생활은 완전히 일본 내지와는 달라 근면한 백성이다. 일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여기에 머물러 충분히 조선의 문제를 연구해 보고 싶다. 이리하여 경제문제나 시정방침 등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바란다’ ‘경성일보’ 1929년 6월 14 일자

라이언 이외에도 조선인들에게 동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기자도 있었다. ‘동아일보’ (6월 11 일자)는 ‘미국 기자단 입경-조선에 대한 감상의 담화를 멀리하고-3일간 체재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인트루이스 디스패치지의 주필인 조지 존 기자가 부산에 마중나간 기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보도했다.

‘모든 면에서 부자유스러운 조선에 있어 자신이 느끼는 것을 여실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귀국인의 부자유스러운 현실 생활에 대해서 동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기사의 취급에 식민지 당국은 고민을 했다. 식민지 당국은 기사가 조선인을 자극하는 것으로 차압 처분을 내리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발언한 기자의 배려 차원에서 강경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⁴³⁾ 키니의 보고서에 부각된 것처럼 ‘너그러운 조치’는 조선인의 ‘무능함’을 강조하고, 제국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시키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즉, 피지배자의 저항적인 언설이 결과적으로는 지배자에 의해서 변용되어 지배 정당화의 논리로 이용된 것이다.

(5)시찰 종료 후 대미선전활동

1929년 8월 1일, 3개월에 걸쳐 일본, 조선, 만주, 중국을 방문한 미국 기자단 일행은 요코하마로에서 귀로에 올랐다. 그들의 미국 도착에 맞춰 외무성을 중심으로 동양 시찰에 참가한 미국 기자의 인상기를 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부상했다. 가와카미를 중심으로 팜플렛 형식의 인상기 발행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효과를 생각해 삼가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팜플렛 배포는 취소가 되었다.⁴⁴⁾ 다른 방법으로서 검토된 것이 인상기를 카네기재단의 출판물로서 발행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카네기재단은 중국 측에 불이익한 기술을 이유로 인상기를 재단 출판물로 하는 것을 거부했다⁴⁵⁾ 가와카미 등은 ‘재팬타임즈’ (The Japan Times)에 인상기

43) 1929년6월17日付報告(慶尚南道庁高等外事係の大平から筒井事務官宛)、第1卷No.392-396

44) 1929년11月7日、第2卷No.0341

45) 1929년11月8日、第2卷No.0343

게재 가부를 타진했다.⁴⁶⁾

결국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재팬타임즈’에 인상기가 게재되게 되었다.⁴⁷⁾ 10월30일에는, "The American Journalists in Japan", 31일에는 "The American Journalists in China", 11월13일에는 "The American Journalists in Korea", 14일에는 "The American Journalists in Manchuria"를 제목으로 하는 인상기가 사토르 카도우의 이름으로 ‘Japan Advertiser’에 발표되었다. 사도우 카도우는 가명으로 사실은 가와카미가 집필한 것이었다. 선전이라는 색채를 지우기 위해 가명이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Japan Advertiser’에 연재된 인상기는 12월에 들어 "The American Journalist in Far East"로 이름 붙여진 76 페이지 분량의 팜플렛으로 정리되어 발행 되었다. 외무대신 이하 외무차관, 아시아 국장 등 외무성 본성 내에 24부가 배포 되었다. 또한 미국 및 중국에 있는 22개 일본 재외 공관에 58부가 송부 되었다. 이 점은 일본의 대외 홍보 활동이 얼마나 미국과 중국을 중시하고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팜플렛에는 미국인 기자들이 ‘동아일보’에 게재된 일본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기사를 통해 조선인이 일본 지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국 기자들은 조선인에게는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선에 있어 일본의 정책은 조선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조선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팜플렛에서는 ‘발전하고 있는’ 일본이 교육이나 농업 등 모든 면에 있어 ‘뒤쳐진’을 ‘근대화’ 시키고 있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언급, 강조 하고 있다. 소수의 미국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인에 대한 동정적인 눈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제국 일본의 대외 선전 활동으로서의 동양 시찰은 ‘뒤쳐진’ 조선에 ‘근대화’를 가져오는 일본의 정책이 얼마나 ‘바람직 한’ 것인지를 선전하고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승인을 얻어 내려고 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근대화’가 월슨의 국제주의와 연결되는 민족자결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미국과 일본 간에 공유되어 식민지 지배를 시인 하는 언설이 생산되어 유통되었다.

5. 맺음말

미국 기자에 의한 동양 시찰은 명목상 카네기재단 주최였지만, 실제로는 일본 주도에 의해 행해진 대외 선전 활동의 일환이었다. 본고의 목적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식 생산, 보급과 관련된 것이다. 일본은 동양 시찰에 참가하는 미국 기자를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제국의 실정을 전하려고 했다. 일본 자신이 만들어 낸 ‘동양’에 대한 지식을 미국 기자에게 각인시켜 미국인들에게 확산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 점이 일본 측이 동양 시찰의 가장 큰 목적이다. ‘동양’에 대한 지식의 생산과 보급이란 일본 측이 ‘동양’의 인식을 미국

46) 1929年11月8日、第2卷0348

47) 「재팬 어드버타이저(ジャパン・アドバタイザー)」は、1890년에 미국인에 의해 요코하마에서 창간되었다. 그후 1940년에 1897년 창간된 「재팬타임즈」(The Japan Times)에 흡수되었다. 「재팬타임즈」는 전전기부터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일본 유일의 영자지이다.

측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움직임의 의미하고 있다. 대외선전 활동이란 선전자가 가지는 견해-인식의 틀-을 피선전자에게 동의 혹은 공유를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측으로부터 동의나 공유의 대상이 되었던 미국 기자들은 어떻게 반응한 것일까.

둘째, 미국기자의 반응과, 동의·공유된 것의 실체와 관련해서 이다. 미국기자는 일본측의 움직임을 승낙하고, 일본 측의 인식 틀을 답습하는 형태로 ‘동양’ 을 파악했다. 그것은 미국 측이 일본은 다른 동양의 국가와는 달리, 근대적이라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인과 다른 아시아인의 우열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사실, 미국기자는 일본인에 대해 친근한 태도를 보인 반면,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해서는 극히 냉담했다. 미국기자는 제국일본의 침략 행위에 고통 받는 그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근대화’ 를 성취한 ‘문명’ 국가 일본이 ‘뒤쳐진’ 아시아를 발전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미국인에게 전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동의·공유된 ‘동양’ 인식은 국가와 민족의 우열을 유지·고정화시킴으로써 지배를 확립하려는 제국주의적 힘의 원천이 되었다.⁴⁸⁾ 제국일본의 대외선전활동은 명백히 제국에 의한 지배 메카니즘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더욱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양시찰의 도달점으로서 설정된 ‘미일우호’ 에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패권을 나누어 가지려는 미·일간 공통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다. ‘미일우호’ 가 민족적 우열을 인정하고 제국 일본에 의한 아시아전략을 ‘근대화’ 라는 이름 하에 서양으로부터 승인받음으로써 완수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카네기재단 주최 미국기자 동양시찰’ 은 단지 일본의 대외선전활동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공범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국일본에 의한 대외선전 연구를 둘러싼 이후의 과제와 관련해서 이다. 지금까지 대외선전과 관련한 연구는 무엇이 말해졌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선전의 목적으로서 설정된 ‘미일우호’ 의 구축에는 아시아 침략과 민족적 우열의 인정이 선행되었다. 제국일본에 의한 대외선전에는 무엇이 행해져왔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이 은폐되었으며, 그것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혹은 지속되고 있지 않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점은 20 세기 전반의 제국주의의 시대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현대 사회의 구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부터 파악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8) 츠지야(土屋由香:愛媛大学教授) 교수는 ‘인종적 우애(Fraternity)’라는 개념을 통해 전시기 맺어진 ‘미일우호’ 에 인종주의적인 측면이 묻혀 있으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近刊『親米日本の構築—米国の対日情報・教育政策』ミネルヴァ書房)。本稿の議論は、土屋の議論から大いに示唆を受けている。

帝国日本の対外宣伝活動と植民地朝鮮

－「カーネギー財団主催東洋視察米国記者団」をめぐって－

小林 聡明

1. はじめに

昨今、「文化外交」(Cultural Diplomacy)や「広報外交」(Public Diplomacy)、「ソフト・パワー」(Soft Power)といった言葉を頻繁に耳にするようになった。そこには、軍事力のみ頼るのではなく、外交上の「新たな」力の源泉としての期待がある。だが、こうした非軍事的な外交手段は、決して「新しい」ものではなく、極めて長い歴史を持っている。日本は、19世紀末以降、欧米やアジアにおいて「新聞操縦」とよばれる情報コントロールを行うなど対外宣伝を積極的に行ってきた。また、戦争の時代に突入した20世紀前半期には、世界各地でプロパガンダが実施され、激しい「宣伝戦」や「思想戦」が展開された。現在、注目をあびる「文化外交」や「広報外交」などは、国家による宣伝活動が有する長い歴史的スパンのなかで問われるべきである。

本稿は、帝国日本の対外宣伝活動について、1929年に実施された「カーネギー財団主催東洋視察米国記者団」に焦点をあてて、検討しようとする。帝国日本による対外宣伝に関する研究は、日中戦争以降の戦時期に焦点をあてたものか、あるいはマスメディアに主たる関心をおいて行われてきたと言える^{*1}。本稿が着目する米国記者による東洋視察は、日中戦争以前の時期に行われた人物交流による対外宣伝である。本稿は帝国日本による対外宣伝を、より多角的に検討するうえで重要な手がかりを与えるもの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

なお本稿は、日本の外務省外交史料館で公開された約860ページにのぼる外交文書「カーネギー財団主催東洋視察米国記者団」(第1巻～第3巻)を分析資料として活用する。

2. 東洋視察の実施に向けて

(1) 河上清とカーネギー財団

1929年初冬、吉田茂・外務次官と山本条太郎・南満州鉄道(満鉄)総裁は、米国から記者を招請し、「極東観光」させようと考えた。その考えは、東京滞在中であった米国在住のジャーナリスト・河上清に伝えられた。河上は、ただちにコロンビア大学総長でカーネギー財団事務長であるバトラー(Nicholas Murray Butler)^{*2}とショットウェル(James Thomson Shotwell)に会い、日本側は米国記者で組織された視察団を日本に招待したいとの考えを持っていることを伝えた。

これに対し、バトラーは、満鉄などの招待による日本視察は好ましくないと指摘した。そのうえで、カーネギー財団主催の視察であるとの形式をとっても構わないとの考えが、河上に伝えられた。

ここでは、さらにバトラー側から、視察団の規模と経費負担についても言及された。カーネギー財団は、すでに4, 50人からなる欧州視察団を組織するなど、海外視察団の派遣に関する経験を有していた。その経験をもとに、視察団の団員は、効果の面から15人ぐらいが最適であるとの意見が示され、記者団の招聘にかかる経費のうち、10%程度は財団で負担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と伝えられた。そして、河上は、バトラー側から必要経費については満鉄総裁との打合せのうえ、回答するよう求められた。このことは、彼らが、今回の視察実施において、満鉄が事実上のパトロンであると見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

河上とバトラーらとの会談内容は、1929年1月23日出淵勝次・駐米大使を通じて、田中義一・外務大臣に報告された^{*3}。28日、東京の外務省は、バトラーが提案した通り、米国記者団の東洋視察はカーネギー財団が主催者となること、そしてそれにかかる経費の支出について承認するとの二点が出淵に伝えられた^{*4}。出淵を通じて、外務省の承認内容を聞いた河上は、再びバトラーとショットウェルを訪問し、カーネギー財団が主催者となる米国記者団の東洋視察を実施することへの承諾を取り付けた。

2月15日、河上はカーネギー財団から承諾を得たことを、吉田宛の信書で報告していた^{*5}。河上は、外務省中枢に直接アクセスすることのできるパイプを持っており、米国記者団による東洋視察の実施において、中心的な役割を担う人物であった。だが、河上はバトラーに対して、自らの役割を絶対に秘匿しておくよう要請していた。米国記者団の東洋視察に河上が関与していることは、ショットウェル、出淵、満鉄ニューヨーク支社長だけが知っているに過ぎなかった^{*6}。そこには、東洋視察が、カーネギー財団の主催という形式をとっていながら、実際には日本側の主導で進められていること秘匿しようとする狙いがたまたみ込まれていた。

(2)官民協力と「リベラル・ナショナリスト」知識人

1929年2月末、日本側とカーネギー財団側との打合せの結果、東洋視察に必要な経費は、一人あたり800ドル、派遣人数は財団側人員も含めて16人とし、必要経費は総額12800ドルと試算された。経費は基本的に満鉄、日本および朝鮮の鉄道省、日本郵船、大連汽船などの日本側が負担することが、日本側と財団側との間で「合意」された。必要経費12800ドルは、満鉄から紐育正金銀行に送金され、その後、カーネギー財団側に入金する手筈が整えられた^{*7}。日本側から財団側への経費の送金は、米国記者団による東洋視察が、あくまでカーネギー財団の計画であることを装う目的から行われた。

河上は、ニューヨークのジャパン・ツーリスト・ビューロー(JTB)から資料を受け、あらためて必要経費の計算を行った。その結果、一人あたり2500ドルとなり、当初見積の3倍に膨れ上がった。このことは出淵を通じて、東京の外務省に報告された。

3月13日、出淵は河上が試算した多額の経費を支出することは、非常に困難であると指摘する、東京からの電文を受け取った。そこでは、出淵が、記者団の人数を削減するか、あるいは各自に負担を求めるか、さらには旅程から中国訪問をはずすかの、いずれかの選

択を行わねばならないことを河上に伝えるよう指示されていた*8。

東京からの指示に対して、出淵は17日付の返信で、こう指摘した。交通費を割引あるいは無料とすることで経費の削減は可能である。すでにカーネギー財団は主催者として招待状を発送しており、現段階でもはや中止にはできず、また中国訪問を中止すれば、東洋視察全体の効果が低減する。以上の理由をあげ、出淵は、米国記者団による東洋視察の実施に難色を示していた東京の外務省に再考を求めた*9。

出淵からの進言を受け、東京の外務省は満鉄側と協議に入った。その結果、東洋拓殖、東京電燈、古河電気、三菱電機、芝浦製作所、日本電気、東京電気などから協力を取り付け、寄付を受けることとなった。それにより、ようやく経費を調達できる見通しがたったことが、出淵に伝えられた*10。4月4日、東洋視察を実施するための必要経費が、満鉄から紐育正金銀行に送金された*11。各企業からの寄付金は、5月末から7月初めにかけて入金された*12。

米国記者団による東洋視察は、産業界から協力を得ることで、実現可能になった。米国記者団が日本に到着し、実際に視察が開始されたのちも、外務省はしばしば産業界に経済的援助を要請した*13。経済界は、米国新聞記者団の東洋視察が、究極的には日本の対米関係の安定に資するものであり、それは経済的利益の確保につながるものと考えていた。産業界による東洋視察の実施に対する経済的な協力は、こうした冷徹な計算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

米国記者による東洋視察を実施するにあたり、政府は産業界を必要とし、産業界もまた、自らの利益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としていた。さらに新聞社*14や大学、各種団体なども東洋視察の実現に協力した。そこには、東京帝大教授や太平洋問題調査会（日本 IPR）、日米協会、日米関係委員会の関係者など、多くの知識人の名前を見ることができる。

太平洋問題調査会(日本IPR)	井上準之助
東京帝国大学	姉崎正治
日米協会	樺山愛輔
日米協会	武田亦治
日米関係委員会	阪谷芳郎
日米関係委員会	小畑久五郎
日米関係委員会	宮岡恒次郎
日米関係委員会	頭本元貞
日米関係委員会	鶴見祐輔

1920年代半ば、日系移民排斥問題や中国の不平等条約問題などをめぐって、日米間で対立が表面化し始めていた。1925年、民間団体による学術・文化交流を通じて、太平洋地域に関係する諸民族間の友好関係を促進する目的から、太平洋問題調査会（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PR）が発足した。IPRは、ウィルソンの国際主義にも通じる理念を有しており、「非党派的研究団体」であることを基本的組織原則としていた。

1926年、IPRの日本支部となる日本太平洋問題調査会（日本 IPR）が発足した。1915年にカリフォルニア州での日系移民排斥運動の高まりを憂慮して、渋沢栄一らを中心に設立された日米委員会が、その基盤となっていた。評議会会長に渋沢が、理事長に井上準之助（のちに新渡戸稲造）が就任した。日本 IPRは、日米関係の安定に第一の関心を持つ実業家や知識人を指導層としていた。現在の研究史上、彼らは、大正デモクラシーを支持し、キリスト教的人格主義やウィルソン流の国際主義に共鳴した戦前の代表的リベラル派知識人としてみなされている。アメリカ史研究者の油井大三郎は、彼らが中国侵略など帝国日本の拡大に反対せず、日米戦争だけを回避しようとする「リベラル・ナショナリスト」であったと指摘する*15。米国記者団による東洋視察の実施には、これら「リベラル・ナショ

ナリスト」とよぶべき多数の知識人が協力していた。

(3) カーネギー財団による派遣記者の選定

日本側との間に東洋視察の実施に向けた「合意」が成立したころ、カーネギー財団側は、さっそく派遣記者の具体的な選定作業に入った。1929年2月下旬、バトラーはクーパー(Kent Cooper) AP通信社長(General Manager)、ハワード(Roy W. Howard)らに視察団への参加を打診した。さらに全米の新聞社や通信社に宛て招待状が発送された^{*16}。新聞社・通信社の選定は、バトラーを中心にカーネギー財団側が行い、日本側は関与しなかった^{*17}。このうち、「ボルチモア・サン」(The Baltimore Sun)など6紙が、東洋視察への参加を辞退した。視察団の構成は、当初15人の記者とカーネギー財団側担当者1人のあわせて16人からなるものと計画されていた。辞退者が出たために、結局、全米各地の新聞社から選ばれた11人の記者とカーネギー財団担当者1人の12人が東洋視察に赴くこととなった^{*18}。(下表参照)

米国記者団の構成	
George S. Johns	Editor in Chief, St. Louis Post Dispatch
Gideon A. Lyon	Associated Editor and Part Owner, The Washington Star
Francis W. Clarke	Managing Editor, The Atlanta Constitution
William Philp Simms	Washington Correspondent, Scripps-Howard Newspapers
Harry B. Wakefield	Editorial Writer, The Minneapolis Journal
Wilbur Forrest	Washington Correspondent, The New York Herald Tribune
Herbert L. Matthews	The New York Times
Francis E. Rega	The Springfield Republican, Massachusetts
Fred Hogue	Reporter, The Los Angeles Times.
Paul W. Wright	Staff Correspondent, The Chicago Daily News
Judd M. Lewis	The Houston Post, Texas
George A. Finch	Washington representative of the Endowment

上記の記者のうち、外交史料館にはジョーンズ、ライアン、シムス、ルイスの経歴を記した文書が残されている。彼らの年齢は48才から71才までであり、様々な有力新聞社で幹部を歴任し、華々しいキャリアを積んできたことがわかる^{*19}。東洋視察に選抜された記者らは、いずれもジャーナリズムにおいて一定の影響力を行使しうる人物であった。実際、出淵から田中外務大臣宛の電報では、カーネギー財団側から、今回訪問する記者らが、「各地方の有力なる新聞紙の幹部にして孰れも有力なる記者なり」と伝えられたことが報告されている^{*20}。

また、カーネギー財団側の担当者として、ワシントン駐在代表のフィンチが視察団に随行した。彼は、アカデミズムにおける有力人士であった。アメリカ国際法協会理事(Americ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Law)とアメリカ国際法誌(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編集委員を務めていた。

(4) 合意された「戦略」と到達点としての日米友好

米国新聞記者による東洋視察の目的が、日本側で具体的に言及されはじめたのは、1929年3月ごろであった。1929年3月10日付で出淵から東京の外務省に宛てた電文のなかで、

出淵はこう述べている。今回の視察は、「東洋の実況を視察研究せしむるに重きを置く」とし、宴会や演説は短時間にして、経済的、文化的な発展と日本の家庭を紹介することなどが有益である。出淵は視察の目的が、日本に対する好印象を与えることに置かれるべきと指摘した^{*21}。

東洋視察の実施に向けた準備は着々と進んでいた。日本側だけでなく。河上とバトラーのラインを軸に日米間でも実施に向けた協議が重ねられてきた。だが、それはカーネギー財団としてではなく、あくまでもバトラー個人の立場から秘密裡に行われてきたものに過ぎなかった。4月6日、バトラーは、カーネギー財団実行委員会にて、東洋視察の実施に対する承認を求めたところ、満場一致で可決された。委員のなかには、カーネギー財団が主催する視察に日本側が協力することに対して、今後、日米友好がいかに重要になってくるのかを理解している日本の実業家が、いかに先見の明をもっているかを賞賛する者もいた^{*22}。それは、すでにカーネギー財団側が、先述した日本の産業界の狙いを見抜いていたことを示唆している。

4月8日、バトラーはニューヨークにて、カーネギー財団が主催し、日本の鉄道省、日本郵船、大阪商船、満鉄などから後援を受け、「米国有数の新聞記者11名が日本、朝鮮、満洲、支那視察旅行のため、4月24日、サンフランシスコから太平洋丸で出発する」と発表した。続けて、視察の概要が次のように説明された。まず、視察の目的は、「米国の東洋に対する理解を喚起せしめる」ことにある。当初、視察先は日本だけを予定していた。だが、日本側から二つの要望が出されたことで、日本のほか、中国、満洲、朝鮮を訪問することになった。第一の要望は、米国側に対して、日本だけでなく、中国方面も視察することで、国情の相違を伝えたいというものであった。第二に、日本の経済発展のためには、中国と「友好関係」を構築することが必要不可欠であるとの日本側の考えを米国に伝えたいという要望であった。これら日本側の要望を財団側が受け入れることで、日本視察は「東洋視察」へと変貌した。

バトラーから発表された東洋視察の内容は、『東京日日新聞』のほか、『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The New York Times)や『ヘラルド・トリビューン』(The Herald Tribune)など日米双方のメディアで報じられた^{*23}。いずれの報道でも、東洋視察が日本側の要望を受け入れてはいるが、あくまでカーネギー財団が主催するものであるとの原則は堅持されていた。それは、東洋視察は米国が主体的に「東洋に対する理解」する試みであり、単なる日本の対米宣伝活動と見なされないようにする、日本側とカーネギー財団側が合意した「戦略」に沿ったものであった。それは、外務次官であった吉田茂の発言のなかから浮き彫りになる。

4月30日、「次官茶会」が東洋視察実施のために資金協力を行った企業関係者を集めて、開かれた。挨拶にたった吉田は、東洋視察がどのような背景から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か、そしてそれがどのような目的をもっているかについて、こう説明した^{*24}。東洋視察は表面上、カーネギー財団の主催となっている。だが、実際には日本側が米国の新聞を通して、米国民に日本事情や日本と経済的・政治的に密接な関係にある極東事情を正しく理解させることが望ましいとの考えから、カーネギー財団に依頼して主催者になってもらった。吉田は、カーネギー財団も日米友好の観点から、日本側の依頼に承諾したと述べ、「この内輪の事情は、絶対に表面にださないこと」を出席者に要請した。

米国新聞記者による東洋視察は、記者を通じて、米国の人びとに日本に関する「正しい」知識を与え、それが日米友好に資するようという日本側の期待と、それに対する財団側の賛同を基盤にして企画された。米国の人びとが、東洋視察を対米宣伝活動と見なせば、日本側が期待する効果が大きく低下させられるのは明らかであった。それを避けるためには、米国記者団による東洋視察が、日本側の要請であることを隠し、あくまで米国側が「自主的」に行うものとしてカモフラージュする必要があった。この「形式」こそが、日本側と財団側とで合意された日米友好の構築を到達点とした「戦略」にほかならなかった。

3. 東洋視察の実施

(1) 日本から朝鮮、満洲、中国へ

1929年2月24日、河上清からバトラーに視察日程案が伝えられた^{*25}。計画では、4月24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を出発し、5月10日に横浜に到着。8月1日に横浜を出発し、16日に到着するものとされた。4ヶ月近くをかけて、日本・朝鮮・満洲・中国を周遊する大旅行であった。日本滞在は26日間で、東京や京都、奈良、大阪、宮島などを訪問するものとされた。朝鮮には5日間、満洲は20日間、中国は25日間の滞在が計画された。満洲では瀋陽(Mukden)、長春、吉林、哈爾濱、齊齊哈爾、洮南、大連、鞍山、撫順などが、また、中国では、北京や南京、上海、青島が訪問先として設定された。日本や満洲、中国の三地域の訪問が、ほぼ全日程を占めていた。計画を策定した日本側が、米国記者団に対して、これらの地域の状況を宣伝しようとしていた。一方で、朝鮮滞在はきわめて短期間であり、台湾訪問は計画にあがっていなかった。それは、日本側にとって植民地の状況が、米国記者団への宣伝対象として、あまり重要性を有していなかったことを示唆している。

1929年5月10日、12名からなる米国記者団が横浜に到着した。以降、視察日程案をベースに、随時訪問先の追加や日程調整が行われながら、約4ヶ月におよぶ長期間の東洋視察が実施された。

(2) 米国記者のまなざし：日本・満洲・中国・台湾

米国記者らは、視察に訪れた地域に対して、どのようなまなざしを向けていたのだろうか。ここでは、朝鮮を除く日本、満洲、中国に対する記者の認識に考えてみたい。結論を先取りするならば、「近代化」を成し遂げた日本への「親近感」、満洲に向けられた「混乱」や「停滞」のイメージ、中国への嫌悪感が、如実に示されていた。

① 「近代」国家としての日本—文明・復興・日米友好

文明

「今日の日本は西洋文明の持つ文明と殆ど変りがないのを見て」(5月27日：演説会) 276

復興

「復興事業の結果東京市は必ずや以前より一層清潔、健康、繁栄の都市となるへし。震災は日本国民の不撓不屈の精神を証明し、大事業に対する組織の

能力を示せり」(5月12日:ライアン)^{*26}

日米友好

「日米親善の日本側の誠意・・・高度の文明を有する近代国家たる現在の日本に接して吾等は尊敬と好意とを感じざるを得ず」(6月7日:クラーク)

^{*27}

②市場としての満洲—開発・停滞・混乱

開発

「都市建設の敏速且つ根本的なるは米国の其れを思はせるか此の点よりして満洲か極東の米国と化しつつあると云ひ得る」(6月13日:シムス)^{*28}

日本への好意と開発

米国記者団は、総じて満洲に対して好印象を抱き、満洲における日本の立場もよく理解した。しかし、記者団は1928年の張作霖爆殺事件について、日本および中国側からも満足のいく説明を受けたため、同事件に対してさらなる疑いが生じた。彼らは、奉天から鉄道を利用して移動したところ、いっそう満鉄を整備する必要があると感じた。(7月2日:報告電報:満鉄本社→東京支社→斎藤・外務省情報局長)^{*29}

停滞と混乱

「投資に付最も肝要なる条件は安全保障に在り」

「政府か無能且不安定、裁判所か腐敗と不公平の巢窟、略奪か正直なる労働より有利なる所には永久の投資、永久の発展及永久の進歩はあり得へからず。満洲の大部分は斯る不利なる状態に在り/若し日本か満洲より撤退するとせば平和保証及正義の最後の堡か破壊せらるるに等に余は最近数週間満洲の多くの鉄道に乗車し主要都市に滞在し統治及産業の諸設備を研究せり。日本の権力の確立せる南満に於ては進歩か平和保証及正義と手をたつさえて前身しつつあるを看取せり」(8月7日:ホーグ)^{*30}

③抗議する中国—嫌悪と反感

嫌悪

「北京に於ける支那側の米記者団待遇不統一にして余りに自己本位なるため一行は何れも不平を漏し居り数名の病者を出し居る外一日夜観劇中も苦熱の為卒倒者を出さんとせる等にて印象悪し。之れに反し、彼等は満洲に於ける日本の待遇振りを賞賛し、且日本の投資と事業の経営振りを見て、日本政府の東三省治安維持に関する声明は、日本の利益防護処置にして之を内政干渉と為すは当らざるものと語り居れり。」(7月3日:報告電報:北京→満鉄東京支社→斎藤外務省情報局長)^{*31}

反感

「済南において露骨な宣伝に米国人記者団、反感を抱き、機嫌を損ねる。」
「入念に準備された「スーベニア」(済南事件当時の惨状を表はし英文の説明を附せる大型写真「アルバム」一冊、英文「パンフレット」一冊、自著せる陳調元の大型写真一葉及びソウジン画帳一冊にて一組)の贈呈を受けた一

行は・・・開こうともせず、フォレストら三名は重くて仕方ないとして遂に之を汽車に遺棄した。」（7月6日：報告電報：藤田総領事@青島→幣原外務大臣）*32

抗議

「訪日米国記者団は日本の宣伝計画なるかと題し、大毎英文版の満鉄か米国に於て大借款を起こさんとしつつあり」

「記者団の費用は日本の支弁する所にして団員の言論皆日本に有利なり。この団体は国際親善を目的となすと称するも結果は之に反し支那人方面に鮮からず疑惑を惹起せり。和平団体の発起せる記者団か支那を悪評して日本に阿欠せるは不可解なりと結へり」（8月7日：『民国日報』および『中央日報』）

*33

米国記者らは、東アジアで「近代化」をいち早く成し遂げたと目する日本に対しては、きわめて親和的であった。その一方で、その他の東アジア地域は、以前として「近代化」を成し遂げられず、「劣ったもの」として見ており冷淡であった。特に中国に対しては、彼らの嫌悪感さえ包み隠さなかった。

日本と満洲・中国に向けられた米国記者のまなざしには、「西洋近代」への到達度を一つの審級として、東アジアの人びとの有り様を切り分けようとする権力が構造化されていた。東洋視察を行った米国記者らの語りは、支配と被支配の関係を維持・固定化しようとする帝国主義的な言説の生産と不可分なものとするにはきわめて困難であった。次章では、植民地朝鮮に対する米国記者らの「経験」から、さらに検討していくことにする。

3. 植民地朝鮮での「経験」

(1) 視察日程

朝鮮訪問は、当初から決まっていたが、日程は漠然としたものであった。それが具体化したのは、5月中旬を過ぎてのことであった。5月21日、朝鮮総督府総務課長は、東京の総督府出張員事務所を通じて、外務省情報部に次の箇所を米国記者団視察先とする計画であると伝えた*34。

6月10日：釜山、温陽温泉

6月11日：大鰾貯水池、平北・群山藤井農場

6月12, 13日：京城、朝鮮総督府博物館、景福宮、恩賜化学館、壽松洞公立普通学校、朝鮮神宮、米国人経営学校、朝鮮家庭、朝鮮総督府経学院、京城帝国大学、京城帝国大学予科、林業試験所、昌徳宮

さらに24日には同出張員事務所から外務省情報部に宛てて、さらに詳細な計画である「米国新聞記者団朝鮮視察日程案」が通知された*35。だが、実際には朝鮮視察は、これら日程案の通りには進まなかった。米国記者団が朝鮮に到着したのは、予定よりも1日早い

6月9日であった。また、『京城日報』（1929年6月11日付）に公表された視察日程を見ると、訪問先も大きく削減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記者団は、当初予定されていた温陽温泉や貯水池の視察を行わないまま、釜山から京城へと向かった。到着後、滞在が1日延長されたとはいえ^{*36}、植民地朝鮮の内情を知るためには、余りにも時間が短く、不十分な日程であった。

(2) 『京城日報』の報道

①対米宣伝と「日米友好」

9日午前8時10分、米国記者団の一行を乗せた昌慶丸が到着した釜山港に到着した。埠頭には、竹内内務部長、藤原高等課長、桑原釜山府尹、星野鉄道局囑託、新聞懇話会を代表して京城日報社長の松岡洋右、金甲柱、釜山在住の外国人団体など100余名が歓迎の意を表すために集まっていた。一行は、昌慶丸のデッキで出迎えた小河農務課長、小田通訳官とともに下船し、視察団の案内者となる筒井外務省事務官と握手を交わした。彼らは、自動車に分乗し、龍頭山に登るなど市内を一巡したのち、休憩のためホテルに入った。ホテルには、一行を歓迎する英文の名刺広告やメッセージを掲載した『京城日報』（1929年6月9日付）が準備されていた。記者らは「ホテル休憩中、本社（注：京城日報社）より寄贈の京日紙を喜んで読み本社の好意を感謝した。」^{*37}

広告には三井物産などの企業のほか、米国総領事の歓迎広告も見られた。注目すべきは、『京城日報』に掲載されたメッセージ（"Welcome Ambassadors of Good-Will"）であった。ここではまず、日本人と米国人が個人的なレベルで心を通わせることのできるまたとない機会であり、過去と現在、そして未来のいずれにおいても日米友好は重要であると訴えていた。そして、今や時代は大西洋から太平洋へと移り、太平洋を挟んだ米国の隣人として、日本は米国と手を携え、世界平和に貢献すべきと主張した。東洋視察を行う米国記者団には、こうした平和を希求する日本の姿を米国の人びとに伝える役割が期待された。さらにメッセージには、今回の朝鮮訪問が、朝鮮に対する記者の興味をかき立てるだけでなく、「教育的なもの（instructive）」にしたいとの日本側の希望が明示されていた。すなわち、朝鮮に対する日本の立場を米国記者に理解させるという意味において、それは「教育的」であり、米国記者団による朝鮮視察が、紛れもなく日本の対外宣伝活動の一環となっていた。

10日、一行は朝鮮総督主催の「米国記者団歓迎晩餐会」に出席するため、朝鮮総督府を訪れた。松寺法務局長が朝鮮総督の代理として歓迎の辞を述べた。この時の模様について、『京城日報』（1929年6月11日付）は次のように報じた。

「この歓迎の辞は、全南産の紙に日英両文で印刷し、記者団に手交し、記者団側でも熱心なる総督府の歓迎に対し、哀心から感謝の辞を述べる所があった。」

ここで注目すべきは、朝鮮の紙に日本語と英語で記された歓迎辞が印刷されたことである。それは、米国記者団に対して、植民地支配という名の「同化」が着々と進んでいることをアピールするものとなった。『京城日報』が、あえて「全南産」であることを言及し

たことは、米国記者団だけでなく、植民地住民に対しても「同化」が強力に推進されていることを印象づける宣伝の効果を期待してのものであったと言えよう。『京城日報』は、米国記者団が、朝鮮の紙に日本語と英語で記された歓迎の辞を「喜んで」受け取ったと報じた。もはや日本による朝鮮植民地支配が、米国によって是認されたことを示唆していた。

このように米国記者団を歓迎することは、帝国日本の対外宣伝活動の一環であったことを強く示していた。米国記者団による朝鮮視察は、彼らを通じて米国の人びとの朝鮮の状況を伝えるものであると同時に、植民地朝鮮の住民に対する宣伝として、それ自体が活用された。

②対植民地宣伝と「近代国家」日本

米国記者団が朝鮮を訪れるのにあわせて、『京城日報』は6月11日から4日間連続で、「米国記者の見たる日本」と題する連載記事を掲載した。米国記者らが、日本の素晴らしさを賞賛する言葉に溢れた記事は、あきらかに植民地住民に対する宣伝であった。

「日本の人びとに対し、感嘆と尊敬の念をいだきながら、日本を去らんとしている。・・・勇敢なる日本人の国民性は遺憾なく発揮され、東京、横浜の復興はすでに完成されておった。吾人の一驚を喫したところである。」ポール・W・ライト『京城日報』1929年6月11日付

「活動と進歩に充たされたこの大国家は将来なお層一層偉大かつ強大ならんとしている。蓋しこれが自分の日本を訪れて得た最初の印象である。日本とアメリカの間には幾多の共通点がある。即ち、自発的であり、活動的であることはその一例であろう。」ウィルバー・フォレスト『京城日報』1929年6月12日付

「科学工業に、近代国家に、はたあらゆる文明の精彩に、長足の進歩を遂げた新日本を見せてもらったわれわれの日本旅行は実に興味深く、又非常に有益なものであった。」ジョージ・S・ジョーンズ『京城日報』1929年6月12日付

「(日本の)どこに行ってもそこには勤勉と節儉、それから暖かい友情とがある夜になれば一家団欒の燈灯が輝いて見える。」ジュット・M・ルイズ『京城日報』1929年6月13日付

「日本国民によって過去50年間に築き上げられたこのいちじるしき進歩の跡は、観察眼の鋭い外来者に必ずや深い印象与えずにはおかないであろう。彼らは上下を問わず国を挙げてこの進歩を続けつつある。日本の如く自然に恵まれ、向上進取せる国が将来世界における最も進歩せる国となるであろうということは蓋しむべなるかなである。」フランシス・W・クラーク『京城日報』1929年6月13日付

『京城日報』は、米国人記者の「口」を借りて、日本の「優秀さ」や日本人の「勤勉さ」

などを強調することで、植民地住民に日本が「近代国家」であり、「文明国家」であることを印象づけた。そこには「近代化」を成し遂げ、高い「文明」を持つ日本が、「遅れた」朝鮮を「発展」させようとするのは当然であるとして、植民地支配を正統化しようとする目論見があった。米国記者団は、こうした日本側の狙いを批判するのではなく、むしろ手を貸すような言説を立ち上げていた。

(3) 米国記者による言説生産と植民地支配の正統化

アトランタ・コンスティテューション紙編集長のクラークは、京城での印象を次のように書き残している。彼は、まず朝鮮がいかにか「遅れているのか」を指摘し、日本が「遅れた」朝鮮を「近代化」させたとして賞賛している^{*38}。

「1910年、日韓両国政府の完全なる合意に依りて両国の併合成立せり。朝鮮人は其肉体も精神も極めて良く発達し居るも、併合当時は過去数百年間の不安定の結果、国民一般に貧弱に陥り、又、文明の程度も低かりき。鉄道なく、灌漑施設なく、道路らしきものなく市街見すほらしく、相当の公共建築さへもなかりき。然るに其後の変化目覚しく現在に於ては京城は近代都市として建直され拡大なる街路あり。宏壮なる学校あり。又、少くも一千万円を要する程の総督府庁舎あり。・・・1910年に於て、数百年の時代後れとなり居たる朝鮮を日本は僅か19年間に近代化したるなり。・・・朝鮮は日本施政の下に進歩を遂げ居れるか。茲にも有らゆる事物を改善せんとする日本国民の不屈不撓の精神は遺憾なく示され居れり。」

さらにクラークは、日本による朝鮮の「近代化」が、朝鮮人の独立の願いよりも重要な価値を持っていると主張していた。

「日本は強硬手段を執るの已む無きことありたり。朝鮮人が政治上の発言権を殆んど有せず。他方、日本は朝鮮の日本化を図りつつあるは事実と認めらるるも数百年間の外国の威圧に依り貧弱となれる朝鮮か、今や永久の平和と光輝ある未来とを楽しむに至れるも亦事実なり。教養ある朝鮮人士にして独立の失はれたるを嘆くものあるも、時と共に日本の指導下に其貧窮と苦悩とより救はるるに従ひ、朝鮮人は彼等の失へる処は大なるも獲たる処は之よりも遙かに大なりしを悟るに至るへし。」

日本と朝鮮を「進歩」と「停滞」という単純な二項対立的な枠組みで捉えていたのは、クラークに限ったことではなかった。シムスは、「眠れる朝鮮、目覚める一日本人の刺激のもとで」と題する記事を執筆した^{*39}。記事では、まず長きにわたって変化のなかった朝鮮(chageless Korea)が、日本の強い刺激のもとで変化し始めていると指摘された。そして、日本は朝鮮の多くの面において近代化させており、それは労働や教育の現場に顕在化していると述べられていた。記事は、朝鮮での日本の立場に対する道徳性(morality)につ

いて述べたものでないものの、日本の韓国併合が朝鮮人の生活を向上させたのは事実であると主張していた。

また、ジョーンズも同様の論調の記事を執筆していた。そこでは、日本が朝鮮の独立に関して融和的な政策をとっており、朝鮮の経済や教育、文化を発展させていると述べられていた^{*40}。朝鮮人のなかには朝鮮独立を強く願い、日本に対して不満を抱く者もいるが、彼ら・彼女らは「建設的な計画や考えをもっていない」(no constructive plans or ideas)と指摘した。日本が「遅れた」朝鮮を発展させるのに、いかに尽力しているのかを強調する記事となっていた。

米国記者らは、日本による朝鮮支配を正統化させる言説を生産しており、日米いずれの側にも見られた。こうした言説の生産をめぐって日米は共犯関係にあった。このことは、日米双方が到達点に設定していた「日米友好」が、植民地支配の是認を重要な一つの構成要素として抱え込んでいたことを示唆している。

(4) 朝鮮人の訴え

米国記者らは、朝鮮滞在中、朝鮮人が抱く独立への願いが、いかに強いものであったのかを身をもって感じていた。満鉄の米国人顧問であり、京城から記者団一行に同行したキニー(Henry W. Kinney)は、米国記者団の模様を克明に綴った秘密報告書を作成していた。そこには朝鮮人が米国記者団に植民地支配の過酷さを訴えようとしていた様子が生々しく記録されている^{*41}。大部分の米国記者が、日本の植民地支配を肯定的に捉え、朝鮮人の独立への願いに対して冷淡であったことを浮き彫りにしている。

「朝鮮人及支那人側は該団に対し排日中傷を吹き込まんとし、先づ同一行[が]京城に近づくや、鮮人は日本当局のため[に]言論の自由を束縛せられ居る旨を暗示せる社説を掲ぐる新聞を汽車内に於て配布し、或は同一行京城滞在中執拗に付口ひて秘密会見を迫り。甚しき至りては、屋根伝ひに団員の居室に入るむと企つる等、種々なる手段に依り日本の鮮人圧迫事情を誇大に訴へむと策動せるものありたるも一行の大部分は、何れも日本側の施政を是認し、鮮人のみにては到底、今日の如き向上発展を見ること不可能なりしならむとて将来共日本側権政は鮮人発展のため必然的に継続せらるべきものなりとの観察を下し」

米国記者団に朝鮮の現状を直談判しようとする朝鮮人の動きについて、キニーは記者団に、こう説明した。日本政府は朝鮮人が記者団に接触しようとするのを妨げたことは一切無く、そうしようすれば、十分に容易に可能となったはずである。にも関わらず、朝鮮人が、接触を強行しようとしたのは、彼らが口にする「抑圧」(suppression)が、いかに誇張された話であるのかを明確に示す証拠である。この説明に対して、米国記者団は完全に納得したという。さらに報告書には、大部分の米国記者が抑圧を訴える朝鮮人の主張にまったく感銘を受けていない。そして朝鮮人は社会を発展させる能力に欠けていると記されていた。

次に注目すべきは、報告書で言及された『東亜日報』の社説(6月??日付)であった。

ここでは、朝鮮の現状について、政府当局から提供される材料を通して観察するのではなく、その目で十分に見て欲しいとの訴えが、米国記者団に向けてなされていた。さらに社説では、日本が朝鮮(人)のために行った政策は、朝鮮人の願いとは一致していないとして、明らかに植民地支配者への批判が綴られていた。

ライアンも同社説に注目し、「京城にて」と題された6月13日付の通信のなかで言及していた^{*42}。ライアンは、この社説が、朝鮮土着の新聞が独立のための政治活動をし始めている。そして、日本の朝鮮統治は搾取を目的に国語としての朝鮮語を駆逐し、朝鮮人の政治参加を禁じ、彼ら・彼女らの「国民的精神」を大きく退潮させ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と指摘した。ライアンは、朝鮮で活動する宣教師を通して、「国民的精神」が知恵ある者と無知なる者とを問わず、民衆一般に根深く植え付けられたものであり、これまで旅行者には見落とされてきたと主張した。そして、最後にライアンの個人的な感想が記されている。

「私は正直なところ、朝鮮の経済事情に関して、何を信じていいのかわからない。果たして日本が朝鮮の国と人民を搾取しているのであれば、無辜の民に対して悲しむべきことである」

ライアンの朝鮮に対するまなざしは、「遅れた」朝鮮が「進んだ」日本によって「近代化」されるのは当然であり、そのためには朝鮮の独立が失われても仕方がないと見ていた他の米国記者らとは異なっていた。そのことは、『京城日報』に掲載されたライアンのコメントからも伺える。

「朝鮮に来て内地とはどこことなく大分違った所を見出したが、雨の少ないことや耕作のやや困難なことなどに先ず気がついた。朝鮮人の生活は全く日本内地とは違っており、こう見た処全く勤勉の民である。自分は日程が許すならば、もう少しここに留まって十分に朝鮮の問題を研究して見たいと思う。しかして、経済問題や施政方針などについて判断の正鵠を期したいと望むものである。」『京城日報』1929年6月14日付

ライアン以外にも、朝鮮の人びとに同情的な認識を持つ記者もいた。『東亜日報』(6月11日付)は、「米国記者団入京—朝鮮に対する感想談を避けて—3日間滞在する予定」と題する記事のなかで、セントルイス・ディスパッチ紙の主筆であるジョージ・S・ジョン記者が、釜山に出迎えた記者に対して、次のように述べたことを報じた。

「すべての方面に不自由な朝鮮において、自分の感じるところを如実に話すことができません。ただ、貴国人の不自然な現実生活に対して、同情に堪えません。」

この記事の扱いに植民地当局は頭を悩ました。本来ならば、朝鮮人に刺激を与えるものとして差押処分が下されるはずであった。だが、発言した記者に配慮したため、寛容な処置をとるべきとして差押えされなかった^{*43}。キニーの報告書で浮き彫りにされたように、

「寛容な処置」は、朝鮮人の「無能さ」を強調し、帝国日本の植民地支配を正統化させる「証拠」として活用された。すなわち、被支配者の抵抗的な言説が、支配者によって乗っ取られたのであった。

(5) 視察終了後の対米宣伝活動

1929年8月1日、3ヶ月にわたって日本、朝鮮、満洲、中国を訪問した米国記者団一行は、横浜から帰途についた。彼らの米国到着にあわせて、外務省を中心に東洋視察に参加した米国記者の印象記を発行しようとする動きが持ち上がった。パンフレットにして配布することが、河上を中心に検討された。だが、ばらまきのように見えるため、効果を考えると控えるべきとの意見が出され、パンフレットの配布は取りやめになった^{*44}。それにかわる方法として検討されたのが、印象記をカーネギー財団の出版物として発行することであった。この件について、河上がカーネギー財団側に要請したところ、財団は中国側に不利益な記述があることを理由に、印象記を財団出版物にすることを拒否した^{*45}。河上らは、『ジャパン・タイムズ』(The Japan Times)に印象記の掲載可否を打診した^{*46}。

だが、どのような理由かは不明であるが、『ジャパン・アドバタイザー』(The Japan Advertiser)に掲載されることになった^{*47}。10月30日には、"The American Journalists in Japan"、翌31日には"The American Journalists in China"、11月13日には"The American Journalists in Korea"、翌14日には"The American Journalists in Manchuria"と題した印象記が、サトル・カトウの名前で『ジャパン・アドバタイザー』に発表された。カトウ・サトルとは仮名であり、実際には河上が執筆したものであった。宣伝という色彩を消すために仮名が用いられたものと思われる。

『ジャパン・アドバタイザー』に連載された印象記は、12月に入って"The American Journalist in Far Eas"と名づけられた76ページからなるパンフレットにまとめられ、発行された。外務大臣以下、外務次官やアジア局長などに外務省本省内で24部が配布された。さらに米国および中国に22カ所ある日本の在外公館にあわせて58部が送付された。日本の対外広報活動が、いかに対米、対中を重視していたのかを物語っていた。

パンフレットには、米国人記者らが、『東亜日報』に掲載された日本への不満を示す記事を通じて、朝鮮人が日本の支配をどのように感じているのかを知ったと記されていた。だが、米国記者らは朝鮮人には申し訳なく思うとしながらも、朝鮮における日本の施政は、朝鮮人のそれよりも、朝鮮を発展させるという点において優れていると考えるようになった。パンフレットでは「進んでいる」日本が、教育や農業など、あらゆる面において「遅れている」朝鮮を「近代化」させている様子が、繰り返し言及され、強調された。何人かの米国人記者が有していたはずの朝鮮人への同情的なまなざしは、完全に失われていた。

帝国日本の対外宣伝活動としての東洋視察は、とかく朝鮮の文脈に沿って言えば、「遅れた」朝鮮に「近代化」をもたらす日本の政策が、いかに「正しい」ものであるのかを宣伝し、帝国の内外から植民地支配に対する承認を取り付けようとするものであった。結果として、「近代化」がウィルソンの国際主義に連なる民族自決よりも、より重要であるという認識が、日米間で共有され、植民地支配を是認する言説が生産され、流通していった。

4. おわりに

米国記者による東洋視察は、名目上はカーネギー財団の主催であったが、実際には日本側の主導によって行われた対外宣伝活動の一環であった。本稿で述べてきたことについて、次の3つの点からふり返っておきたい。それは、帝国日本による対外宣伝活動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か、その諸相を浮き彫りにするものとなる。

第一に、知識の生産と普及についてである。日本は東洋視察に参加する米国記者を通じて、米国の人びとに対して、帝国の実情を伝えようとした。日本自身がつくりだした「東洋」に関する知識を米国記者に獲得させ、米国の人びとに広めようとするものであった。ここに東洋視察の最も大きな日本側の狙いがあった。「東洋」に関する知識の生産と普及とは、日本側が自らの「東洋」認識を米国側に受け入れるよう、働きかけることを意味していた。対外宣伝活動とは、宣伝者が有する物の見方—認識枠組み—を被宣伝者に対して、同意あるいは共有を求めるものであったとみることができよう。それでは、日本側から同意や共有を働きかけられた米国記者らは、どのように反応したのだろうか。

第二に、米国記者の反応と、同意・共有されたものの実体についてである。米国記者は日本側の働きかけを受諾し、日本側の認識枠組みを踏襲するかたちで「東洋」を把握した。それは、米国側が日本は他のオリエンタルな国家と異なり、西洋近代的であることを承認し、日本人と他のアジア人との間に優劣を是認することを意味していた。事実、米国記者は、日本人に対して親和的な態度を見せていた一方、朝鮮人や中国人にはきわめて冷淡であった。米国記者は、帝国日本侵略的行為に苦しむ彼ら・彼女らの声に十分に耳を傾けることはなかった。むしろ、「近代化」を成し遂げた「文明」国家の日本(人)が、「遅れた」アジア(人)を発展させるのは当然であるとする認識を米国の人びとに伝えていった。日米で同意・共有された「東洋」認識は、国家と民族の優劣を維持・固定化させることで、支配を確立しようとする帝国主義的な力の源泉となっていた⁴⁸。帝国日本の対外宣伝活動は、明らかに帝国による支配のメカニズムの一端を担っていた。

さらに、ここで重要なことは、東洋視察の到達点として設定された「日米友好」には、太平洋を挟んで覇権を分け合おうとする、日米双方の共通の狙いがたまたみ込まれていたことである。「日米友好」が、民族的優劣を是認し、帝国日本によるアジア侵略を「近代化」の名の下に西洋から承認されることで、成し遂げられようとしていたことを看過すべきではない。このように「カーネギー財団主催米国記者東洋視察」は、単なる日本の対外宣伝活動としてではなく、日米の帝国主義的な共犯関係のなかで把握すべきものであることを強く示している。

最後に帝国日本による対外宣伝研究をめぐる今後の課題について述べておきたい。これまでの対外宣伝やプロパガンダに関する研究では、何が語られたのかに焦点があてられてきた。すでに見てきたように、対外宣伝の目的として設定された「日米友好」の構築には、アジア侵略と民族的優劣の是認が構造化されていた。帝国日本による対外宣伝では、何が行われてきたのかだけでなく、何が不可視化され、隠蔽されてきたのか、そしてそれが、現代社会において、どのように連続しているのか、あるいはしていないのかを解明していく必要がある。それは20世紀前半の帝国主義の時代が、いかなるものであったのかを理解すると同時に、現代社会の構造を歴史的な観点から捉えるうえで、きわめて重要な知的営為となる。

*1 主な研究として次のものがある。

조성운 「1920년대 초 日本視察團의파견과 성격(1920~1922)」 『韓日關係史研究』 25

集、2007年. 김영숙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대외 선전-대외 선전 집지와 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日本歴史研究』 第24集、2007年. 朴順愛 「戰前日本の對米宣傳政策と

寫真報道」 『日本學報』 第60号、2004年、박순애 「일본의 대소 전파전과 조선의 라디오」 『日本研究論叢』 第26号、2008年. 朴順愛 「朝鮮總督府의 情報宣傳政策」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第49号、1996年、朴仁植 「日本の植民地朝鮮における情報・宣傳政策」 『政治經濟史學』 2007年. 大谷正 『近代日本の對外宣傳』 研文出版、1994年などがある。

*2 1931年にノーベル平和賞を受賞した。

*3 電報 22号 : 1929年 1月 23日、「カーネギー財団主催東洋視察米國記者團」(以下、省略) 第1卷 No.003

*4 電報 43号 : 1929年 1月 28日、第1卷 No.004-005

田中外務大臣→出淵大使

*5 書簡 : 1929年 2月 15日、第1卷 No.0006-0008

*6 書簡 : 1929年 2月 24日、第1卷 No.0013-0014

*7 電報 69-2号 : 1929年 2月 28日、第1卷 No.0009-1

*8 電報 91号 : 1929年 3月 13日、第1卷 No.23-25

*9 電報 92-1号 : 1929年 3月 17日、第1卷 No.26-27

電報 92-2号 : 1929年 3月 17日、第1卷 No.28-29

*10 電報 98号 : 1929年 3月 19日、第1卷 No.30-31

*11 電報 122号 : 1929年 4月 4日、第1卷 No.52

*12 第2卷 No.0406-0409

*13 5月 27日 : 電報、第3卷 232-235

*14 ジャパン・タイムス社。新聞連合社。日本電報通信社、東京朝日新聞社、東京日日新聞社、時事新報社、報知新聞社、国民新聞社、やまと新聞社、中外商業新報社、万朝報、読売新聞社、都新聞社、中央新聞社が協力していた。

*15 油井大三郎 『未完の占領改革—アメリカ知識人と捨てられた日本民主化構想』 東京大学出版会、1989年、5-6、12-14頁

*16 書簡 : 1929年 2月 23日、第1卷 No.0021-0022. 電報 69-1号 : 1929年 2月 28日 第1卷 No.0009

招待状は、次の通信社、新聞社に發送された。Associated Press、Atlanta Constitution、Baltimore Sun、Boston Transcript、Chicago Daily News、Cincinnati Times-Star、Detroit News、Houston Post、New York Herald-Tribune、New York Times、Omaha World-Herald、Portland Oregonian、St. Louis Post Dispatch、St. Paul Pioneer Press、United and Scripps Howard.

*17 電報 69-2号 : 1929年 2月 28日、第1卷 No.0009-1

*18 『東京日日新聞』 1929年 4月 10日付(夕刊)

- *19第 1 卷 No.285-288
- *20第 1 卷 No.0046
- *21機密電報 187 号 : 1929 年 3 月 10 日、第 1 卷 No.0010-0012
- *22電報 110 号 : 1929 年 4 月 9 日、第 1 卷 No.46-47
- *23"U.S. Newspaper Men to Tour Orient On Peace Mission", The Herald Tribune, April 9, 1929.
"Newspaper Men to Go on Good-Will Tour", New York Times, April 9, 1929. 『東京日日新聞』
1929 年 4 月 10 日付夕刊
- *24第 3 卷 No.488-490
- *25第 1 卷 No.0017
- *26第 3 卷 No.0228
- *27第 3 卷 No.0343
- *28第 2 卷 No.021-0022
- *29第 2 卷 No.002-004
- *30第 2 卷 No.0246
- *31第 2 卷 No.0017-0019
- *32第 2 卷 No.0032
- *33第 2 卷 No.0253、0255
- *341929 年 5 月 21 日 : 電報、第 2 卷 No.195-196
- *35 月 24 日 : 第 1 卷 No.204
- *36 『京城日報』 1929 年 6 月 13 日付
- *37 『京城日報』 1929 年 6 月 10 日付
- *38第 3 卷 No.0356
- *397 月 5 日付新聞記事 (Simms) 第 3 卷 No.0034
Dormant Korea Awakes: Under Spur of Japanese
- *40"Korea and Manchuria: A Close-Up" 「セントルイス・ポスト・ディスパッチ」 8 月 7 日付、
第 3 卷 No.0061
- *417 月 13 日 : 機密電報 645 号、第 2 卷 No.0090 および"Security Confidential: Vist of Party
of American Journalist in Chosen and Manchuria, Dairen, July 1st, 1929"、第 2 卷 No.0095
- *42第 3 卷 No.0239
- *431929 年 6 月 17 日付報告 (慶尚南道庁高等外事係の大平から筒井事務官宛)、第 1 卷
No.392-396
- *441929 年 11 月 7 日、第 2 卷 No.0341
- *451929 年 11 月 8 日、第 2 卷 No.0343
- *461929 年 11 月 8 日、第 2 卷 0348
- *47 「ジャパン・アドバタイザー」は、1890 年に米国人によって横浜で創刊された。その
後、1940 年に 1897 年創刊の「ジャパン・タイムズ」(The Japan Times) に吸収された。
「ジャパン・タイムズ」は、戦前期から現在まで続く日本で唯一の英字紙である。
- *48土屋由香 (愛媛大学教授) は、「人種的フラタニティ」という説明概念を用いて、戦時
期に取り結ばれた「日米友好」の絆に人種主義的な側面が埋め込まれており、それが現在

も連続していることを指摘する。（近刊『親米日本の構築—米国の対日情報・教育政策』ミネルヴァ書房）。本稿の議論は、土屋の議論から大いに示唆を受けている。

李利範 (江陵原州大)

帝国日本の対外宣伝活動と植民地朝鮮

— 「カーネギー財団主催東洋視察団米国記者団」をめぐって—

討論文

1. 논문의 요점과 강조점

본 논문은 1929년 카네기재단 주최 「東洋視察美國記者團」의 활동 경위를 분석한 것으로, 일본제국이 우호적인 미일관계를 구축하고, 「동양」 지역에 대한 지배 내지 식민지 경영을 국내외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대외선전활동의 일환으로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했다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제국의 의도는 당시 「동양」에 대해 우월의식 내지 지식을 갖고 있던 미국기자들에게 동의·공유되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제국이 뒤쳐진 「조선」 내지 「중국」을 지배하고 식민지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일본의 민족적 우월을 시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된다.

즉 카네기재단이 주최한 미국기자단의 동양시찰단은, 결과적으로 미국에 친화적인 일본의 성공적인 근대화상을 국내외에 전달했고, 동시에 일본의 아시아침략과 민족적 우수성을 시인해주어, 미일은 제국주의적 공범관계에 있었다고 주장된다.

따라서 카네기재단의 동양시찰미국기자단 활동은 「미일우호」를 위해 제국일본의 대외선전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지만, 그 활동 내용에는 미일 양국의 아시아침략과 민족적 우월의식이 구조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2. 논문에 대한 코멘트

(1) 먼저, 카네기재단의 ‘동양시찰미국기자단’의 동양시찰 활동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대외선전 의도와 함께, 미국기자단의 서구 제국주의의 「동양」에 대한 우월적인 지식과 민족적인 우월의식이 공유되어 있었다는 연구자의 지적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조선과 중국의 뒤쳐진 사회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제국일본의 대외선전 의도가 미국기자단에게 쉽게 수용되었을 것이라고 이해된다.

(2) 그런데, ‘동양시찰미국기자단’의 동양시찰이 활동했던 1929년의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하고, 외교적으로는 시데하라(幣原)의 국제협조적인 외교노선의 끝무렵이었다. 제국일본의 대외선전정책은 이러한 1920년대와 그 이후 제국주의적인 팽창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1930년대 이후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3) 또한, 카네기 재단은 연구자의 지적대로라면, 일본 외무성이 대외선전 정책의 일환으로 ‘동양시찰미국기자단’의 동양시찰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동조해 추진했던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李利範 (江陵原州大)

帝国日本の対外宣伝活動と植民地朝鮮

－「カーネギー財団主催東洋視察団米国記者団」をめぐって－ 討論文

1. 論文の要点と強調する点

本稿は、1929年カーネギー財団主催の「東洋視察米国記者団」の活動の経緯を分析したもので、日本帝国が友好的な日米関係を構築し、「東洋」地域に対する支配や植民地の経営を国内、国内外的に正当化するため対外宣戦活動の一環として組織的に企画し、推進したことを糾明している。

ところが、このような日本帝国の意図は、当時の「東洋」に対し優越意識や知識を持っていた米国記者に同意・共有され、「近代化」に成功した日本帝国が遅れた「朝鮮」または「中国」を支配し、植民地化することを指示し、日本の民族的優越を是認する結果をもたらしたと主張する。

すなわち、カーネギー財団が主催した米国記者団の東京視察団は、結果的に米国に神話的な日本の成功な近代化像を国内外に伝達し、同時に日本のアジア侵略と民族的優秀性を是認することになり、日米は帝国主義的の共犯関係にあったと主張する。

したがって、カーネギー財団の東洋視察米国記者団の活動は「日米友好」のため帝国日本の対外宣戦の一環として推進されたが、その活動の内容には、日米両国のアジア戦略と民族的優劣意識が構造的に共有されていたというのである。

2. 論文に対するコメント

(1) まず、カーネギー財団の「東洋視察米国記者団」の東京視察活動には、日本の帝国主義的な対外宣戦の意図と共に、米国記者団の西欧帝国主義の「東洋」に対する優越的な知識と民族的な優越意識が共有されていたという研究者の指摘は十分に納得できる主張だと判断できる。当時、朝鮮と中国の遅れた社会、経済状況を考慮すると、帝国日本の対外宣戦の意図が米国記者団に受容されやすかったであろうと考える。

(2) ところが、「東洋視察米国記者団」の東洋視察が活動した1929年の日本は、経済的には資本主義体制が発展し、外交的にはシデハラ(幣原)の国際協調的な外交路線の終わりであった。帝国日本の対外宣戦政策は、このような1920年代とそれ以後の帝国主義的な膨脹政策を積極的

に推進した1930年代以後とどのような相違点があるのか気になるところである。

(3) また、カーネギー財団は、研究者の指摘の通りであるなら、日本の外務省が対外宣戦の政策の一環として「東洋視察米国記者団」を推進しようという意図を把握していたのにも関わらず、同調し推進した一番の主な理由は何であったのか、疑問である。

종합토론

司會 - **李相薰**(한국외대 교수)

討論 - 鄭滢, 金弼東, 小林聰明, 禹政權, 廖秀娟
南相虎, 李利範, 裴開花, 徐東周